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은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조경학석사 학위논문

수도권 조선족 밀집지 분화 요인에 관한 연구

- 경기 부천 · 시흥 조선족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ifferentiation Factors of Korean-Chinese Enclave in the Metropolitan Area

- Focusing on the Chinatown in Bucheon and Siheung,
Gyeonggi Province -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도시환경설계전공

박 지 훈

수도권 조선족 밀집지 분화 요인에 관한 연구

- 경기 부천 · 시흥 조선족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김 세 훈

이 논문을 조경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0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도시환경설계전공
박지훈

박지훈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12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수도권 조선족 밀집지 분화 요인에 관한 연구

- 경기 부천 · 시흥 조선족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박지훈

위 논문은 서울대학교 및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학위논문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심사위원의 지도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2월

위 원장 _____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부위원장 _____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위 원 _____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초 록

수도권 조선족 밀집지 문화 요인에 관한 연구

- 경기 부천 · 시흥 조선족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

박지훈
환경조경학과 도시환경설계전공

1980년대 후반, 고성장시대를 맞이한 대한민국은 노동자 인권 향상으로 3D 직종 기피현상이 만연했고, 산업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한국계 중국인, 중국 동포 등으로 불리는 재한조선족 역시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이주노동자로 들어와 본격적으로 한국에 정착하기 시작했다. 재한조선족은 현재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집단 중 가장 인구가 많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수의 밀집지를 형성하고 있다. 저출산 ·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도시경제에서 하부서비스업의 큰 비중을 담당하고 있는 재한조선족 노동자들의 역할은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시공간에서 재한조선족 밀집지가 가지는 영향력과 중요성 역시 증대해지고 있다.

대외적으로 잘 알려진 재한조선족 밀집지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영등포구 대림동 등 서울남서부 차이나타운과 경기 안산시 원곡동이다. 그러나 최근 10년 사이 재한조선족 사회에서는 이동이 감지되고 있다. 경기 부천시 대산동 · 심곡동 · 소사본동 일대와 시흥시 정왕본동 · 정왕1동 일대에 새로운 밀집지로 부상하고 있다. 경기남서부에 위치한 이 두 신밀집지는 낙후되고 열악한 밀집지가 아닌 비교적 쾌적하고 깔끔한 도시공간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 남서부 일대에 새롭게 형성된 재한조선족 밀집지의 형성과 그 배경을 밝히고, 각 밀집지들이 지니고 있는 특성차이와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가리봉동, 대림2동, 원곡동의 구밀집지와 대산동, 정왕동의 신밀집지를 대상으로 비교분석을 진행하였다. 외국인 밀집지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구밀집지의 형성과정을 정리하였고, 신밀집지의 형성 과정을 이 구조에 대입하며 비교분석하였다. 해당 결과를 중심으로 재한조선

족 밀집지가 분화되는 현상을 입증하였고, 분화 요인을 밝히고자 했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 공간분석, 설문조사 그리고 심층면접 등의 단계를 통해, 재한조선족 이동의 지역별·체류자격별 경향성을 도출했다. 구밀집지에 오래 산 재한조선족들은 부동산 재개발 이슈와 사회적 지위 향상 등으로 신밀집지로 이동하려 하고 있다. 또한 각 재한조선족 밀집지들 간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구밀집지들 간에는 형성시기와 거주자의 가치관이 비슷하며, 신밀집지 간에도 마찬가지다. 반면 신밀집지는 형성요인과 거주지 선택요인 등 지리적으로 인접한 구밀집지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까운 미래 새로운 재한조선족 밀집지가 형성된다면 그곳은 기존 밀집지에서 멀지 않은 지역일 것임을 시사한다. 동시에 외국인 신분으로 자신들만의 도시를 자발적으로 조성하는 국내 최초의 사례로써 향후 도시계획 정책 수립에 있어 반영되어야 할 중요사안임을 역설하고 있다.

.....
주 요 어 : 재한조선족, 조선족 밀집지, 외국인 밀집지, 분화현상, 분화요인
학 번 : 2021-21631

목 차

제1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01
1. 연구의 배경	01
2. 연구의 목적	05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06
1. 연구의 범위	06
2. 연구의 방법	08

제2장 선행연구 고찰

1절. 이론적 배경	09
1. 외국인 밀집지의 개념	09
2. 국제이주 이론과 외국인 밀집지	11
3. 외국인 밀집지의 기능 및 유형	15
4. 거주지 선택 이론	18
2절. 국내 선행연구 고찰	20
1. 재한조선족 재이주의 역사와 배경	20
2. 재한조선족 연구	22
3. 재한조선족 밀집지 연구	25
4. 거주지 선택 요인 연구	26
3절. 시사점 및 연구의 차별성	27

제3장 구밀집지 형성과 1차분화

1절. 서울남서부 일대 형성 및 분화과정	28
1. 가리봉동 밀집지 형성	28
2. 가리봉동 이탈 요인	30
3. 서울남서부 밀집지 형성	33
2절.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일대 형성	36
3절. 소결	41

제4장 신밀집지 형성과 2차분화

1절. 재한조선족 동향	43
1. 지역별 동향	44
2. 체류자격별 동향	48
2절. 구밀집지 이탈 요인	58
1. 지역 재개발과 주거불안정성	58
2. 사회적 특성의 변화	61
3절. 신밀집지 정착 요인	68
1. 경기도 부천시 대산동 일대	68
2.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일대	81
4절. 소결	90

제5장 신밀집지 실태 및 지역인식

1절. 신밀집지 실태	92
1. 주거안정성과 주거환경	95
2. 일자리와 교통접근성	97
3. 재한조선족 관련 생활권 형성	99
2절. 신밀집지 지역 인식	101
1. 경기도 부천시 대산동 일대	101
2.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일대	105
3절. 소결	108

제6장 결론

1절. 연구의 요약	111
2절. 연구의 시사점	113
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115

참고문헌

Abstract

표 차례

[표 1] 국내 외국인 밀집지 유형 분류	17
[표 2] 이주초기 서울시 주요 자치구별 중국인 인구분포	32
[표 3] 서울시 주요 행정동별 중국인 인구분포	32
[표 4] 재한조선족 친척초청 관련 제도 및 정책	34
[표 5] 경기도 안산시 행정동별 외국인 인구분포 1990-2015	37
[표 6] 경기도 안산시 초기 이주민 국적별 현황 1997-2000	37
[표 7] 2002년 불법체류자 종합 방지대책 시 자진신고자	38
[표 8] 구밀집지 간 형성시기 및 특성 비교	42
[표 9] 재한조선족 인구의 거주지역 분포	45
[표 10] 재한조선족 인구의 수도권 거주지역 분포	45
[표 11] 경기도 중국인(재한조선족+중국인) 추이	46
[표 12] 재한조선족 등록외국인(중기체류자)의 거주지역 분포	52
[표 13] 재한조선족 거소신고자(장기체류자)의 거주지역 분포	52
[표 14] 재한조선족 체류 조선족 인구대비 장기체류자 비율	53
[표 15] 재한조선족 미성년자녀 거주지역 분포	55
[표 16] 재한조선족 귀화자 거주지역 분포	56
[표 17] 전국 만 18세 이상 재한조선족의 혼인상태 및 자녀동거여부	62
[표 18] 전국 만 18세 이상 재한조선족의 가구유형	62
[표 19] 전국 만 18세 이상 재한조선족의 거처종류 및 점유형태	62
[표 20] 전국 만 18세 이상 재한조선족 노동자의 종사상 지위	65
[표 21] 전국 만 18세 이상 재한조선족 노동자의 종사 산업분류	65
[표 22] 전국 만 18세 이상 재한조선족 노동자의 종사 직업군 분류	65
[표 23] 전국 만 18세 이상 재한조선족 노동자의 월평균 급여 구간	66
[표 24] 부천시 행정동별 전체인구 및 중국인(재한조선족+중국인) 인구	69
[표 25] 재한조선족 밀집지 행정동별 공시지가	72
[표 26] 재한조선족 밀집지 행정동별 주택유형별 실거래가(매매)	72
[표 27] 부천시 재한조선족 밀집지 행정동별 주택유형 개수	74
[표 28] 부천시 재한조선족 밀집지 LQ지수 (내외국인 통합)	76
[표 29] 시흥시 행정동별 전체인구 및 등록외국인 인구	82
[표 30] 시흥시 행정동별 국적별 외국인 인구	82
[표 31] 시흥시 재한조선족 밀집지 행정동별 주택유형 비율	83
[표 32] 시흥시 재한조선족 밀집지 LQ지수	86

[표 33] 재한조선족 신밀집지 간 응답자 나이 및 성별 비교	93
[표 34] 재한조선족 신밀집지 간 응답자 체류자격 비교	93
[표 35] 재한조선족 신밀집지 간 응답자 체류기간 비교	93
[표 36] 재한조선족 신밀집지 간 응답자 가구단위 비교	93
[표 37] 부천시 거주 재한조선족 응답자 직전·현재 거주지 비교	94
[표 38] 시흥시 거주 재한조선족 응답자 직전·현재 거주지 비교	94
[표 39] 재한조선족 신밀집지 응답자 간 현 거주지 정착이유 비교	94
[표 40] 부천시 거주 재한조선족 응답자 직전·현재 거주 주택유형	95
[표 41] 시흥시 거주 재한조선족 응답자 직전·현재 거주 주택유형	95
[표 42] 재한조선족 신밀집지 간 응답자 간 직전·현재 거주 주택크기 비교	96
[표 43] 재한조선족 신밀집지 간 응답자 간 직전·현재 거주 주택 점유형태 비교	97
[표 44] 재한조선족 신밀집지 간 응답자 간 직전·현재 주거비용 비교	97
[표 45] 재한조선족 신밀집지 간 응답자 근로형태 비교	98
[표 46] 재한조선족 신밀집지 간 응답자 연간 소득구간 비교	98
[표 47] 1차분화와 2차분화 현상 간 비교	110

그림 차례

[그림 1] 국내 체류 외국인 취업관련 주요 체류자격 연도별 현황(2008-2019)	01
[그림 2] 수도권 행정인구 대비 등록외국인(한국계 중국인) 비율 변화	04
[그림 3] 연구 대상지 : 구밀집지	07
[그림 4] 연구 대상지 : 신밀집지	07
[그림 5] 가리봉동의 쪽방 ‘별집’의 모습	29
[그림 6] 가리봉동의 쪽방 ‘별집’의 평면	29
[그림 7] 국내 조선족 체류자와 입국자(1992-2021)	44
[그림 8] 부천시로 전입한 전출지역 상위10개	48
[그림 9] 시흥시로 전입한 전출지역 상위10개	48
[그림 10] 부천 체류외국인 이전거주지(1+5년)	48
[그림 11] 시흥 체류외국인 이전거주지(1+5년)	48
[그림 12] 체류자격에 따른 재한조선족 체류기간 분류	50
[그림 13] 체류자격별 조선족 인구 수(1992-2021)	51
[그림 14] 방문취업(H-2) 자격자 추이 (시·군·구 단위) 2010-2021	54
[그림 15] 재외동포(F-4) 자격자 추이 (시·군·구 단위) 2010-2021	54
[그림 16] 영주권(F-5) 자격자 추이 (시·군·구 단위) 2010-2021	54
[그림 17] 서울특별시 행정동별 재한조선족 인구 분포 변화	57
[그림 18] 수도권 내 재한조선족 주요 밀집지와 지역이동 다이어그램	57
[그림 19] 가리봉동 노후도와 재정비지역 현황(2022)	59
[그림 20] 가리봉동 단독·다가구주택 실거래가 (2011-21)	59
[그림 21] 대림2동 노후도와 재정비지역 현황(2022)	60
[그림 22] 대림2동 단독/다가구 주택 실거래가 (2011-21)	60
[그림 23] 원곡동 노후도와 재정비지역 현황(2022)	61
[그림 24] 원곡동 단독/다가구 주택 실거래가 (2011-21)	61
[그림 25] 이주노동자의 주거만족도 점수	63
[그림 26]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 만족도 점수	64
[그림 27] 한국인, 재한조선족 간 임금수준별 임금근로자 비중	66
[그림 28] 구밀집지 거주 재한조선족의 이탈 과정	67
[그림 29] 경기도 부천시 중국인 인구 분포 변화	69
[그림 30] 부천시 대산동 밀집지 위치	70
[그림 31] 부천시 대산동 밀집지 전경	70
[그림 32] 외국인 보유필지 수(누적취득), 2014-20	71

[그림 33] 토지소유 외국인 중 중국인 비율, 2014-20	71
[그림 34] 외국인 취득 건축물 수 (누적취득 아님) 2006-21	72
[그림 35] 부천 심곡본동 단독다가구 실거래가(2011-21)	73
[그림 36] 부천 심곡본동 아파트 실거래가(2011-21)	73
[그림 37] 부천 심곡본동 연립다세대 실거래가(2011-21)	73
[그림 38] 부천 대산동 일대 토지이용 및 건축용도	73
[그림 39] 부천시 개업 중국음식점 분포	77
[그림 40] 부천시 개업 중국음식점 개수	77
[그림 41] 부천시 개업 국제여행사 분포	78
[그림 42] 부천시 개업 국제여행사 개수	78
[그림 43] 부천시 개업 유료직업소개소 분포	79
[그림 44] 부천시 개업 유료직업소개소 개수	79
[그림 45] 부천시 다문화관련 기관 및 시설 분포	80
[그림 46] 부천남초등학교 후문	80
[그림 47] 시흥시 정왕동 밀집지 위치	83
[그림 48] 시흥시 정왕동 밀집지 전경	83
[그림 49] 시흥 정왕동 연립·다세대 실거래가(2011-21)	84
[그림 50] 시흥 정왕동 아파트 실거래가(2011-21)	84
[그림 51] 시흥시 정왕동 단독·다가구 실거래가(2011-21)	84
[그림 52] 시흥시 정왕본동 일대 건축물용도	84
[그림 53] 시흥 정왕동 일대 인력소개소 분포	86
[그림 54] 시흥 정왕천로에 위치한 인력소개소들	86
[그림 55] 시흥시 개업 중국음식점 분포	87
[그림 56] 시흥시 개업 중국음식점 개수	87
[그림 57] 시흥시 개업 국제여행사 분포	88
[그림 58] 시흥시 개업 국제여행사 개수	88
[그림 59] 시흥시 개업 유료직업소개소 분포	88
[그림 60] 시흥시 개업 유료직업소개소 개수	88
[그림 61] 시흥시 다문화관련 기관 및 시설 분포	89
[그림 62] 시흥 군서미래국제학교 정문	89
[그림 63] 재한조선족 신밀집지 간 응답자 종사 산업군 비교	99
[그림 64] 재한조선족 신밀집지 응답자 간 현거주지 정착이유 비교	108

제1장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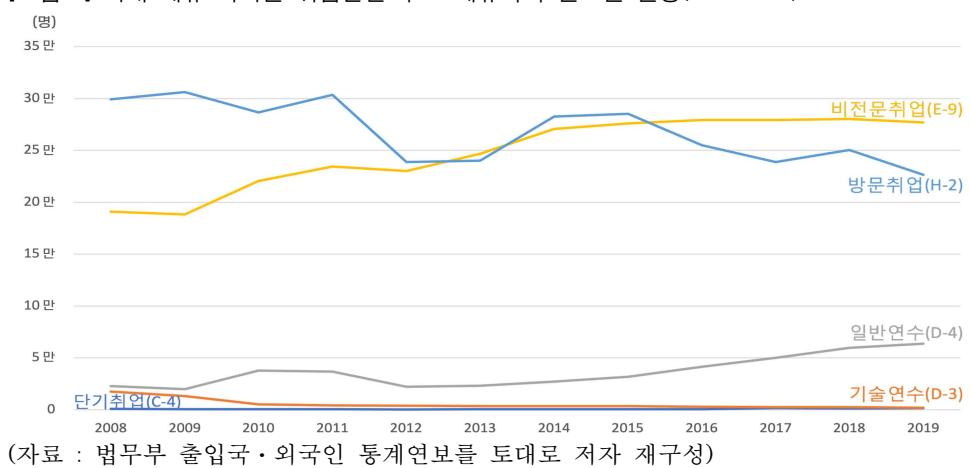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1)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

오늘날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한국에서 외국인을 마주치는 것은 일상이 되었다.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내 체류외국인 수는 2010년 12월 기준 126만 명에서 2019년 12월 기준 약 2배인 250만 명으로 증가 했다. 이로써 한국사회는 사실상 다문화사회로 진입을 앞두게 되었다.¹⁾ 국내 체류 외국인 인구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외국인 노동자집단으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림 1] 국내 체류 외국인 취업관련 주요 체류자격 연도별 현황(2008-2019)



대한민국에서 노동인력 유입이 시작된 시점은 고성장시대인 1980년대 후반이다. 노동자의 인권 및 임금 상승 시대 속에 내국인 노동자의 ‘3D 직종 기피 현상’이 만연하였고,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면

1) 여성가족부(2020)에 따르면 OECD 다문화사회 분류기준은 총인구대비 외국인 비율 5%이다.

서 바야흐로 대한민국은 ‘인력 송출국’에서 ‘인력 수입국’으로 국제적 지위가 전환되었다. 이어 1990년대 초 걸프전쟁과 중동 대규모 건설사업의 종료로 중동지역에 집중되어있던 국제 인력들은 동아시아로 향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역시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가로부터 산업연수생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2000년대 초 한국계 중국인에 대한 방문취업제가 도입되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이민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²⁾ 이로써 국내 산업계의 노동력 부족 문제는 외부로부터의 인력 수입을 통해 해결된 것처럼 보였지만, 오늘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라는 큰 사회문제를 맞이하게 되면서 해외 노동인력의 적극적인 수입을 재고하게 되었다.³⁾ 이러한 국내 상황을 고려하면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유입은 지속·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그들의 밀집지 역시 이들의 인구에 비례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재한조선족 밀집지의 분포

국내 체류 외국인의 밀집지 형성에 있어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중국 동포’ 또는 ‘한국계 중국인’으로 불리는 재한조선족이다. 2022년 현재 재한조선족 인구는 약 52만 명으로 전체 등록외국인의 약 31.7%를 차지하고 있다.⁴⁾ 재한조선족이 공식적으로 국내에 유입된 시기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로, 1990년대 중후반 그 숫자가 급증해 2000년대부터는 국내 체류 외국인 중 가장 큰 집단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재한조선족들은 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정착했는데, 2021년 현재 재한조선족 전체 인구의 약 83.4%가 서울·인천·경기에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 내 재한조선족 밀집지는 서울과 경기 남서부에 집중되어 있는데, 특히 서울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와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시 권선구, 시흥시 정왕동 일대, 부천시 대산동 일대에는 재한조선족의 정체성이 뚜렷한 밀집지

2) 김연홍, 이성순(2020), 중장기 한국 이민정책의 방향 모색, pp. 9-10.

3) 최경수 외 (2016), 이민현황 및 장기적 영향평가를 통한 이민정책 추진체계 개선방안 연구, pp. 3-5.

4) 행정안전부(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등록외국인 기준으로 미성년자녀, 귀화자는 미포함

가 형성되어있다. 외국인 밀집지는 특정 국적 및 민족이 사회적 소수로서 집적 이익을 위해 풍치는 현상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글로벌 도시로의 변화와 외국인 유입을 경험하고 있는 수도권 도시공간연구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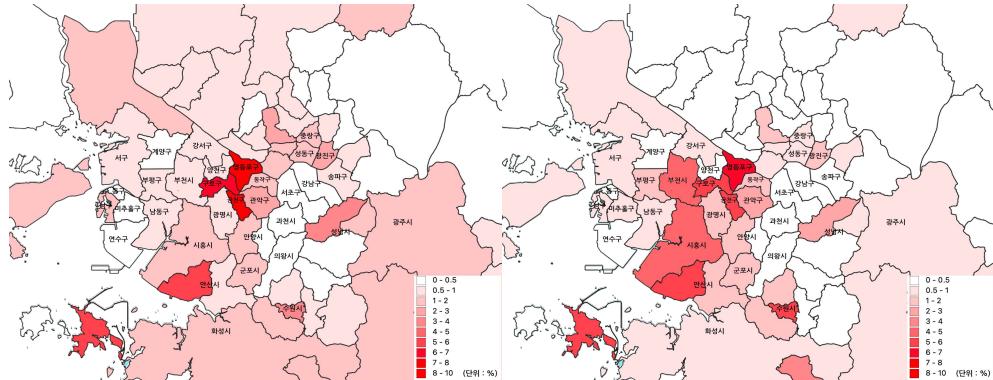
또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로, 해외노동인력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도시경제에서 하부서비스업의 큰 비중을 담당하고 있는 재한조선족 노동자들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도시공간에서 재한조선족 밀집지가 가지는 영향력과 중요성 역시 증대해지고 있다.

3) 새로운 재한조선족 밀집지 형성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기존 재한조선족 밀집지는 구로구 가리봉동, 영등포구 대림동 등의 서울 남서부 차이나타운과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이다. 그러나 최근 10년 사이 재한조선족 사회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 대산동·심곡동·소사본동 일대와 시흥시 정왕본동·정왕1동 일대에 새로운 밀집지가 형성된 것이다. 2021년 현재 부천시는 약 2만7천 명, 시흥시는 약 3만4천 명의 재한조선족이 거주하고 있으며,⁵⁾ 밀집지를 중심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두 밀집지는 뉴스와 영화 등 각종 매스컴에서 다루었던 낙후되고 열악한 이미지의 슬럼이 아닌 비교적 쾌적하고 깔끔한 도시공간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5) 행정안전부(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등록외국인 기준으로 미성년자녀, 귀화자는 미포함

[그림 2] 수도권 행정인구 대비 등록외국인(한국계 중국인) 비율 변화(좌 2010년, 우 2019년)



(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통계연보를 토대로 저자 작성)

이는 기존 서울과 안산의 재한조선족 밀집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립되고 폐쇄적인 성격과 비교해 중요한 변화라 볼 수 있다. 재한조선족들이 조상의 땅 한국에 정착한 지 30년이 된 지금, 그들이 처음 정착했던 동네를 두고 새로운 곳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씌워진 부정적인 여론과 서울지역의 부동산 재개발 등을 고려했을 때 시의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다. 이에 최근 재한조선족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변화와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밀집지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 재한조선족 밀집지들의 형성과정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새로운 밀집지의 탄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연구가 요구된다. 기존 밀집지와 새로운 밀집지 주민들의 주거환경, 사회적 특성의 비교분석은 재한조선족 사회의 변화에 대한 이해와 그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도시공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남서부 일대에 새롭게 형성된 재한조선족 밀집지들의 형성과 그 배경을 밝히고, 각 밀집지들이 지니고 있는 특성차이와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구로구 가리봉동, 영등포구 대림2동,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의 구밀집지와 부천시 대산동 일대와 시흥시 정왕동의 신밀집지 간의 관계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 두 가지 연구 질문에 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재한조선족 신밀집지는 어떠한 배경에서 형성되고 성장했는가?

국내 조선족 밀집지의 연구는 대다수 정착초기부터 입지했던 서울 남서부 일대와 안산 원곡동 등 기존 밀집지에 집중되어왔다. 사람들의 인식 속 조선족 차이나타운 역시 두 지역에 고정되어 있다. 이에 새로운 재한조선족 밀집지의 존재는 주목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또한 재한조선족의 정착이 장기화되면서 어떤 요인들이 그들로 하여금 기존 터전을 떠나고 낯선 지역에 정착하게 만들었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재한조선족 밀집지의 쇠퇴와 생성을 예측하고, 대응하는데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한조선족의 신밀집지의 존재를 규명하고, 형성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2) 구밀집지와 신밀집지는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는 도시공간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재한조선족 사회의 구밀집지와 신밀집지들은 형성시기와 배경이 다른 만큼 건조환경, 주민들의 경제활동 및 사회적 특성 등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각 밀집지들의 특성을 분석해 구밀집지와 신밀집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재한조선족 밀집지 형성 패턴을 파악해 향후 또 다른 재한조선족 밀집지의 형성에 대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1) 내용적 범위

본 연구에서의 ‘재한조선족 밀집지’는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계 중국인들의 공간적 집단거주지와 관련 인프라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소수민족집단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네트워크로 구성된 공동체를 형성한다.⁶⁾ 이러한 네트워크가 그들 간의 정보교환을 돋고 정착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공간적으로 같은 나라 및 민족 출신자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은 음식점과 상업 시설 등 연관 인프라가 형성되고 사교활동과 정보교환의 중심지가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한조선족 밀집지를 조선족들이 실제로 거주하는 ‘집단거주지’와 일자리 및 상업시설 등 ‘관련 인프라’로 분리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시간적 범위

외국인 밀집지의 형성과 분화 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최초로 유입되어 정착한 시점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다. 조선족의 한국 정착은 88년 서울 올림픽과 한·중 수교를 거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⁷⁾ 국내에 조선족들이 모여살기 시작한 최초의 시점은 정확히 규정하기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1990년대 말 쇠퇴한 구로공단의 배후지인 구로구 가리봉동의 별집과 반월 공단의 배후지인 안산 원곡동 쪽방으로 알려져 있다.⁸⁾ 본 연구의 전체적인 시간적 범위는 밀집지가 형성되기 시작한 1990년대 후반부터 2022년 현재까지다. 세부적으로는 가리봉동에서 주변부인 서울 남서부 일대로 조선족 인구가 확산된 2004년부터 2007년경을 ‘1차분화’로, 경기도 부천시와 시흥시의 조선족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한 2010년대 중반부터 2022년 현재까지를 ‘2차분화’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⁹⁾

6) 박세훈 외(2009),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 연구, 국토연구원, p. 20.

7) 설동훈, 문형진(2020), 재한조선족 1987-2020년, p. 49.

8) 방성훈, 김수현(2012), 한국계 중국인 밀집주거지의 분화에 관한 연구, p. 61.

9) 참고로 본 연구에서의 ‘분화’는 분리(segregation)의 의미가 아닌 파생(differentiation)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3) 공간적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크게 ‘구밀집지’와 ‘신밀집지’ 두 범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전통적인 조선족 밀집지인 서울 남서부 권역¹⁰⁾과 안산시 단원구를 ‘구밀집지’로, 최근 경기 지역 내 조선족 인구 증가가 가장 뚜렷한 지역인 부천시와 시흥시를 ‘신밀집지’로 구분했다. 세부적으로는 구로구 가리봉동, 영등포구 대림2동, 단원구 원곡동을 구밀집지, 부천시 대산동·심곡동·소사본동 일대(이하 대산동 일대)와 시흥시 정왕동 일대를 신밀집지의 공간연구 대상지로 정했다. 또한 연구의 전반적인 과정은 대부분 행정동을 기준으로 진행되었지만, 부동산 실거래가 등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는 모두 법정동으로 제공되었다. 이에 부천시 대산동의 경우 법정동인 심곡본동과 송내동으로, 시흥시 정왕동의 경우 법정동인 정왕본동으로 전환하여 진행하였다.

[그림 3]연구 대상지 : 구밀집지



[그림 4]연구 대상지 : 신밀집지



(자료 : 저자 직접 작성)

10) 서울 내 조선족 체류인구가 가장 많은 행정구역 3곳(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을 선택했다.

2. 연구의 방법

1) 문헌연구

본 연구는 모든 과정에 앞서 문헌연구를 진행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구밀집지의 형성과 성장 그리고 성장정책 과정을 정리하였고, 개별지역이 아닌 종합적 관점에서 기존 연구를 재구조화하였다. 한편 신밀집지는 선행연구가 부족해, 기초 통계를 활용하였다. 기초통계로는 내외국인 행정인구 증감추이, 대상지 내 조선족 관련 업종 개수, 부동산 보유현황 및 실거래가, 주택 노후도·용도·면적, 국내인구이동통계(지역 간 세대 이동)를 살펴봤다.

2) 공간분석

재한조선족 밀집지의 공간적 분석을 위하여 수집된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지역별 조선족 밀도 및 시계열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또한 현장조사를 통해 주거지 및 상업·인프라의 입지특성, 시설분포 등 지역의 물리적 현황을 기록하여 재한조선족 밀집지의 공간구조를 분석하였다.

3)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문헌연구와 현장조사를 통해 만들어진 가설을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검증했다. 설문조사는 신밀집지인 경기 부천과 시흥에서만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경기 부천과 시흥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재한조선족 동포 각 40명씩 총 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은 응답자 기초사항과 신밀집지에 정착하게 된 요인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심층면접은 설문조사 응답자 중 지역별로 각 5명씩 총 10명을 선발하여 진행하였다. 심층면접 내용은 설문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심화된 내용을 다뤘으며, 거주자 관점에서의 신밀집지로의 이주 경험을 구슬하였다.

제2장 이론적 고찰

1절. 이론적 배경

본 절에서는 수도권 재한조선족 밀집지를 다루기 위해 본격적인 연구진행에 앞서 외국인들에 의해 형성된 외국인 밀집지에 대한 국내외 선행 연구와 이론들을 고찰하였다. 첫째, 외국인 이주자들과 밀집지에 관련한 대표적인 이론들을 통해 외국인 밀집지의 개념과 정의를 정립하였다. 둘째,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유입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국제이주이론들을 정리하였다. 셋째, 외국인 밀집지의 기능과 역할을 검토하였다. 넷째, 거주지 선택요인에 대한 이론을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재한조선족 밀집지에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1. 외국인 밀집지의 개념

외국인 밀집지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된다. 첫째, 법률과 외국인 인구 수를 기준으로 하는 행정상 정의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장 제2조에 따르면,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미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로, 외국인 밀집지는 이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곳으로 정의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2012년 관할 지역 내 등록외국인이 3,500명 이상이거나 내국인 대비 외국인 비율이 2% 이상인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2012년 행정안전부에서는 외국인 주민이 주민등록인구 대비 10% 이상 또는 300명 이상인 지역으로 정의했다.

둘째, 공간의 ‘정체성’으로서의 정의다. 이는 주로 지리학자와 인류학자들에 의해 통용되는 개념이다. 공간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장소성’은 인간이 체험을 통해 특정 장소에서 느껴지는 애착으로 고유하면서 동시에 다른 장소와는 차별되는 특성을 말한다.(Tuan, 1977; Relpf, 1985; 박세훈, 2009 재인용) 외국인들은 밀집지에 거주함으로써 그들의 고유한 정체성과 생활양식을 보존할 수 있다.

셋째, ‘다문화 공간’으로서의 정의다. 다문화공간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외국인들의 ‘문화적 교류’와 ‘혼합’의 장이다.(정지희, 2015) 이곳의 문화적 결합은 내국인과 외국인 이주자들의 문화가 혼합된 공간으로 이주 전과 후로 나누어지는 이분법적인 공간이 아닌 두 문화 간 경계 공간 또는 제 2의 공간이라는 메타포를 만들어낸다.(최병두, 2018; 박찬영, 2020)

넷째,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적 공간’으로서 정의다. 외국인 집단 혹은 개인은 특정지역에 이주·정착하여 경제·문화적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다층적인 사회과정을 만들어낸다. 초국가주의적 공간은 이 과정이 지리적·문화적·정치적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하는 외국인 네트워크의 거점 혹은 결절점이다.(조현미, 2006) 초국가주의적 공간은 네트워크를 통해 이주민들로 하여금 국가 간 이주를 용이하게 하고, 흡입력을 발휘해 산재되어 있는 외국인 집단을 응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마지막 정의는 ‘필요에 의한 공간적 결합’이다. 외국인 밀집지는 주로 같은 민족, 문화를 공유하는 공동체로서, 내국인 주류집단 또는 다른 외국인 집단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권익을 쟁기기 위해 공간적으로 분리, 고립되어 형성된 지역이다. 밀집지 내 외국인들은 이들에게 익숙한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관계를 유지하며 생활한다. 시카고학파는 이러한 지역을 특성에 따라 민족클러스터(Ethnic Cluster), 민족커뮤니티(Ethnic Community), 민족집적지(Ethnic Enclave), 민족 근린지역(Ethnic Neighborhood), 게토(Ghetto), 디아스포라(Diaspora)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정의했다.(Alba et al, 1997)

이와 같이 외국인 밀집지 개념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들 간의 의미적 해석만 공유될 뿐, 그 공간적 범위나 규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개념 정의가 모호한 것은 도시 공간의 문맥과 외국인 집단의 개별 특성의 다양함과 동시에 외국인 밀집지를 다루는 분야의 범위가 넓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인 밀집지가 갖고 있는 다양성과 특수성이 작용되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2. 국제이주 이론과 외국인 밀집지

외국인 밀집지에 관련된 학술적 이론의 기원은 주로 국제이주 이론에서 찾을 수 있다. 국제이주에 대한 연구는 본질적으로 학제적이기에, 사회학, 정치학, 역사학, 경제학, 지리학, 인구학, 심리학, 법학 등 개별 사회과학 학문 내 상이한 이론과 방법론에 기반을 둔 다양한 접근이 존재한다(Brettell and Hollifield, 2007). 그러나 일반적으로 널리 수용되는 이론체계는 크게 ‘배출-흡인(push-pull theory)’, ‘이주체계론(migration system theory)’ 그리고 ‘초국가주의 이론(transnationalism)’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1) 배출-흡인 이론(push-pull theory)

배출-흡인 이론은 가장 먼저 등장했던 전통적인 국제이주이론으로 경제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배출-흡인 이론은 신고전경제학이론의 전제를 따르는데, 국제이주가 국가, 사회, 집단 간의 문제가 아닌 이주 행위자 개인의 경제적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즉 이주자 스스로가 경제적 요인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 더 나은 삶을 찾아 이주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이론은 국제이주 과정을 인구밀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또는 소득이 낮은 곳에서 소득이 높은 곳으로 사람들이 이동하는 경향을 강조하거나 경기 사이클의 변동과 이주를 연계했다. 이주의 요인을 살펴보면, 사람들을 자신들의 출생지에서 떠나게 하는 ‘배출 요인’과 이들을 특정한 수용국가로 끌어들이는 ‘흡인요인’으로 나누어져 있다. ‘배출요인’은 인구의 증가, 낮은 생활수준, 경제적 기회의 부족, 정치적 억압 등이 있으며, ‘흡인요인’은 노동에 대한 수요, 토지의 이용 가능성, 좋은 경제적 기회 및 정치적 자유 등이다. 그러나 국제이주의 모든 과정을 개인과 경제적 이유만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정치, 역사, 사회, 문화 요인에 관해서는 설명되지 않았다.¹¹⁾

11) S. Castles, M. J. Miller(2013), 이주의 시대, 일조각, 한국이민학회 옮김, pp.54-63.

2) 이주체계론(migration system theory)

배출-흡인 이론의 맹점이 드러나자 새로운 접근이 등장했다. 사회학과 인류학에서 유래된 이주체계론이 그것이다. 이주체계론은 이주의 흐름이 일반적으로 인력 송출-수용 국가 간의 식민지배, 정치적 영향, 무역, 투자 또는 문화적 유대 등에 기초하여 일종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Kritz and Zlotnik, 1992). 이 이론은 국제이주의 요인을 경제적 요인 이외에 정치, 사회와 인구 상황의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배출-흡인 이론에서 국가가 시장기능을 왜곡시킨다고 보았던 반면, 이주체계론은 국가의 역할을 국제이주에서 핵심적으로 보았다. 이주에 있어서 국가의 이민정책과 규제를 제외하고 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통 국가는 기업의 인력난 때문에 노동인구를 유입하기도 하지만, 난민과 종교적인 문제도 고려하기도 한다.

이주체계론은 이주의 기본 구조를 거시적-미시적 구조가 상호작용한 결과로 본다. 거시적 구조는 대규모의 제도적 요인들을 의미하며, 미시적 구조는 이주자 자신들의 네트워크 그리고 관행과 신념 등을 포함한다. 두 층위는 ‘중위구조(meso-structure)’라고 지칭하는 일련의 중간단계 메커니즘에 의해 연결된다.¹²⁾ 이 메커니즘에 따르면, 어떤 단일한 요인도 이주를 결정한다고 볼 수 없다. 이주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매우 다양하며,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움직이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관계된 과정의 모든 사항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2) S. Castles, M. J. Miller(2013), 전계서, p.65.

3) 초국가주의 이론(transnationalism)

초국가주의 이론은 전통적인 이주이론들이 이주민들이 왜 특정 국가로 이동하는지에 설명하는데 집중한데 반해 이주민들이 어떻게 공동체를 형성하고 수용국에 정착하게 되는지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주체계론을 보완하는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외국인 밀집지 개념의 네 번째 정의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초국가주의 이론은 특정한 장소와 이를 기초로 한 이주민들의 ‘네트워크’에 주목하는데, 이는 이주체계론의 중위구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주체계론은 국제이주와 정착 과정에 있어 경제적 요인, 사회적 관계망, 국가의 정책, 역사적 조건 등을 고려하는데, 기본 분석 단위가 국가이기 때문에 이주와 정착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도시, 지역, 장소적 상황과 조건에 대한 고려는 거의 없다.¹³⁾

일반적으로 이주민들의 이주와 정착의 과정에서 지리적 선택성이 작용한다 (Zhou, 1998). 모든 지역과 장소는 각자 상이한 도시적 맥락을 지니기에 이민자들 역시 정착한 지역과 장소에 따라 상이한 기회와 한계를 얻을 수 있다. 도시사회학자 파이스트(Faist)는 이 상이한 기회를 ‘특정 목적을 가진 행위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사회구조 속에 자리 매겨진 자원’ 즉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라고 정의한다. 사회자본은 이주민 개인이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연결망의 크기’와 그 연결망에 접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문화적·상징적 자본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 이주민들이 특정 지역과 장소에 정착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그 지역과 장소가 사회자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소위 상호 호혜성, 연대성, 동족에 대한 배려, 정보의 네트워크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 사회자본은 ‘입지특수적’ 특성을 가진다. 즉 한 지역에서 발견되어지는 특정 사회자본은 다른 지역에서는 찾기 어렵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도 어렵다. 사회자본의 이러한 특성은 사람들이 왜 특정 국가, 특정 지역으로 이

13) 박세훈 외(2009), *상계서*, p. 44.

주하는지를 설명해준다. 상대적으로 이주민을 위한 사회자본이 잘 갖추어져 있는 지역에 사람들은 이주와 정착을 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자본은 사람들이 잘 이동을 안하는지도 설명해준다. 특정 지역의 강력한 사회자본은 사람들을 공동체로 강하게 귀속시키는 역할도 한다.(Faist &Özveren, 2004; 박세훈 외, 2009 재인용). 가령 배출-흡인 이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히 배출요인이 있다 해서 사람들은 잘 이동하지 않는다. 오히려 고향의 공동체가 느슨해지면서 해당지역의 사회자본이 약해졌을 때, 그리고 기존의 역사적, 사회적 연계망을 통하여 수용국에 사회자본이 형성되어 있을 경우 쉽게 이동하는 것이다(Faist, 2000). 개발도상국에서 공동체적 연계가 약해질 때 이주가 많이 발생하는, 예컨대 식민지적 경험과 국가정책에 의해 이미 연계망이 형성된 국가로 사람들이 이주하는 것도 사회자본으로 설명되어진다.¹⁴⁾

이주초기에는 수용국에 사회자본이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이주와 정착에 많은 어려움이 수반된다. 초기 이주민들 중 다수가 젊은 노동자를 중심으로 고위험을 감수하는 경우인 것도 이 때문이다. 이후 이들의 노력을 통해 사회자본이 형성되기 시작하면, 기 형성된 사회자본이 이주의 통로가 되어 이른바 연쇄이주가 발생한다. 또한 사회자본이 형성되면 이를 활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국가, 인종, 민족, 문화적 배경 등 같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몰려들게 된다. 외국인 밀집지의 공동체 크기가 커질수록 사회자본 역시 비례해 커지게 되어있다.

14) 박세훈 외(2009), 상계서, p. 45.

3. 외국인 밀집지의 기능 및 유형

1) 외국인밀집지의 기능 및 역할

외국인 밀집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연구는 국제이주 이론과 더불어 발전되어왔다. 먼저 Abrahamson(1996)은 외국인 밀집지가 ‘이주민들에게 환경변화에 따른 심리적 충격을 완화시키고 대안적인 경제구조를 부여하며, 문화적 전통 보존을 촉진함으로써 이민자의 경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Abrahamson, 1996; Gold, 1992; Zhou, 1992; 한성미, 임승빈, 2009 재인용). 그리고 Gold(1992)는 이주민은 이주와 정착 과정에 의해 상실감, 분리감 그리고 무력감을 동반한 물리적, 사회적 치환(displacement)을 포함하는 외상을 입는데, 외국인 커뮤니티가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고 새로운 사회와 중재되어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보았다(Handlin, 1951; Kramer, 1970; Gold, 1992).

Portes와 Manning(1986)은 외국인 밀집지를 주로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봤다. 그들에 따르면 밀집지 출현의 목적은 ‘기업활동’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첫째, 그들이 떠나온 나라에서 습득한 사업 경험을 가진 이민자들의 상당수의 출현, 둘째, 자본의 유용성, 셋째, 노동력 자원의 유용성 등으로 제시한 바 있다. 즉 밀집지 내 이주민들은 수용국과의 경제적 통합에 초점을 두며 결합의 새로운 대안 양식으로 제안하였다(Portes, Manning, 1986; 한성미, 임승빈, 2009 재인용).

Knox와 Pinch(2010)는 외국인 밀집지를 ‘군집화와 저항’의 공간으로 보았다. 이민자 집단은 스스로 응집하고 내적 결속력을 강화함으로써 외부 주류사회로부터의 위협에 대해 저항하고, 집단의 사회적·문화적 자산을 지키는데, 그 과정을 ‘방어, 부조, 보전, 공격’의 기능으로 요약했다.¹⁵⁾ 한편 이와 같은 외국인 밀집지의 기능과 역할은 소수자로서의 외국인 이민자들의 관점에서 고려된 것으로 도시적 관점에서 이해하려면 물리적인 공간과 시간적 요인이 같이 고려 될 필요가 있다.

15) P. Knox, S. Pinch(2010), 도시사회지리학의 이해, 시그마프레스, 박경환 역, pp.198-201.

2) 외국인밀집지의 의미와 유형

박세훈 외(2010)는 외국인 밀집지가 현대도시 공간 속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 기존 이론과 연구를 종합하여 네 가지로 분류했다. 외국인 밀집지는 첫째,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뿐만 아니라 ‘사회-공간복합체’로서 사회적 관계를 내재하고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공간이다. 둘째, ‘도시하위계층의 집적지’로서 초기 이주자들의 열악한 경제적 현실과 사회·문화적 차별이 공간적 분리로 나타났다. 셋째, 이주자의 ‘정체성’이 표출되는 공간으로 애착의 장소이며 외부와는 차별적 장소다. 넷째, ‘상품화 대상’으로써 장소마케팅과 문화적 타자성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박세훈 외(2010)는 국내 외국인 밀집지역을 거주자 유형과 입지요인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개의 유형으로 분류했다. 첫째, 양적으로 가장 많은 유형인 ‘공단배후 노동자거주지’다. 1990년대 산업계의 해외노동력 유입을 통해 급증한 경우로 단순 기능 노동자들이 주를 이루며, 대규모 산업단지 주변에 분포한다. 대표적인 도시는 안산시 단원구, 남양주 마곡, 시흥시 정왕동, 대구시 달서구 등이 있다. 이 유형은 정부가 정책으로 인원을 제한하여 더는 증가하고 있지 않다.¹⁶⁾

둘째, ‘대도시 저렴주택지’ 유형이다. 이 유형은 주로 건설업 및 일용직에 종사하는 재한조선족에 의해 형성되는 밀집지다. 재한조선족은 한국어 소통이 가능하기에 대도시 중심부에 거주하며 건설업, 요식업, 간병인 등 저차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 유형은 특히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집값이 저렴하지만, 교통이 편리한 구로구 가리봉동, 영등포구 대림동 등에 형성된다. 이러한 지역을 중심으로 조선족의 주거지와 상업시설들이 증가해왔다.

셋째, 외국관련 시설 주변지역에 형성되는 유형이다. 주로 예전이 개항장이나 조계지였던 곳, 미군 주둔지, 종교시설 인근에 외국인들이 모여들면서 생겨났다. 인천 화교 차이나타운과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는 조계지와 주둔지로 인해

16) 박찬영(2020), 서울의 외국인 밀집지역 유형화와 도시건축 환경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68.

형성되었고, 서울 용산구 이슬람 중앙성원, 종로구 혜화동의 ‘리틀마닐라(가톨릭 성당)’, 인천 부평역에 위치한 ‘미얀마마을(불교 사찰)’ 등은 종교시설로 인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전문인력의 고급주거단지다. 이 유형은 주로 1970-80년대를 거치면서 대사관 및 학교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발전된 밀집지역이다. 서초동의 서래마을, 동부이촌동의 리틀도쿄, 한남동의 독일인 마을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대부분 서울의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변동이 크지 않은 안정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¹⁷⁾ 다른 유형과는 다르게 특정 외국인만을 위한 상업시설과 서비스시설이 발달하기 보다는 지역의 특색은 가지고 있으나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위주로 많이 생겨났다.¹⁸⁾

[표 1] 국내 외국인 밀집지 유형 분류

유형	입지요인 및 특징	사례
공단배후 노동자거주지	- 대규모산업단지 주변지역 - 중국,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 중심	- 안산시 원곡동 - 시흥시 정왕동
대도시 저렴주택지	- 임대료가 저렴하고 교통이 편리 - 일용직, 건설업 등	- 구로구 가리봉동 - 영등포구 대림동
외국관련시설 주변지역	- 조계지, 외국군대, 종교시설 등이 입지요인 - 거주지보다는 상업지역으로 형성	- 인천·부산 차이나타운 - 서울 이태원 거리 - 용산구 중앙성원(이슬람) - 대학로 리틀마닐라(가톨릭) - 부평 미얀마마을(불교)
전문인력 고급주거지	- 학교, 대사관 등을 중심으로 형성 - 선진국의 한국주재원 중심	- 반포 서래마을(프랑스) - 동부이촌동 리틀도쿄

(자료 : 박세훈 외(2010),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 연구1, 저자 재구성)

17) 동부이촌동 ‘리틀도쿄’는 일본인학교의 마포구 이전으로 현재는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지 않다.
18) 박세훈 외(2010), 상계서, pp.95-96.

4. 거주지 선택 이론

거주지 선택 요인에 관한 연구는 크게 개인 또는 가구의 ‘생애주기’와 거주지와 직장과의 ‘통근거리’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주거이동 연구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Brown and Moore(1970)는 Rossi의 생애주기 이론에 기반하여 주거이동 과정을 두 단계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가구 구성원의 변화나 가족 상황의 변화에 따라 현재의 거주 환경에 불만이 나타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해당 가구가 이사할 집을 찾아보고 이사할지 혹은 현재의 집에서 계속 살지를 결정한다. 이때 가구는 현재 주택의 불만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이주하고, 그렇지 못하면 현재 주택의 개선을 통해 불만을 해소하는 과정을 거친다.

Dieleman(2001) 역시 ‘생애주기’를 거주지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는다. 그는 주거 이동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검토한 뒤 세 가지 결과를 도출한다. 첫째, 주거이동률과 개인과의 생애주기와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서구 선진국들 간에는 20-35세 사이의 젊은이들이 가장 주거이동률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둘째, 주거 이동률과 현재 주택의 규모 및 유형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상대적으로 큰 주택에 살거나 자가에 사는 가구가 작은 주택에 살거나 임대주택에 사는 가구보다 이동률이 낮다. 셋째, 개인 또는 가구의 생애 주기와 주거 선택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한편 Clark and Withers(1999)는 동일한 주택과 노동시장 내에서 직장 이동이 주거이동을 촉진하는 요소라고 주장한다. 연구결과 미국에서는 직장을 이동한 가구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주거이동을 할 확률이 2.4배 높았으며, 젊거나 임대주택에 사는 가구일수록 주거이동률이 더 높았다고 한다.

Van Ommeren et al.(1999)와 Van der Vlist(2001)는 탐색이론에 기반하여 직장이동과 주거이동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이들은 통근 비용이 직장 및 주거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는데, 통근 비용이 높을수록 현재의 직장이나 주택을 유지할 가능성성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Montgomery와 Curtis(2006)는 2001년 이후 국제적으로 발표된 주거이동 및 주거 입지 분야 주요 논문 30여 편을 검토한 후 최근 연구 동향을 정리하여 발표했다. 이들에 따르면, 주거이동 및 입지를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은 많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①가구 특성 : 가구 소득, 구성원 수, 나이, 인종 등 ②주택특성 : 주택 유형, 점유형태, 주택가격 및 주거비용 등 ③입지특성 : 교통 접근성, 학군, 공공 서비스, 조세, 어메니티, 대기 질, 이웃주민 등 세 가지로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개인 또는 가구의 거주지 선택 요인 중 ‘생애주기’와 ‘통근거리’는 본 연구의 대상인 재한조선족 밀집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로 비전문취업(E-9)자격을 가져 5년 이상 체류가 어려운 타 국가 출신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달리, 재한조선족은 재외동포(F-4)자격만 획득하여도 사실상 체류기간이 제한이 없다. 따라서 20년 전 한국에 건너온 청년층이 어느덧 중·장년층으로 바뀌고 가족구성원이 증가하는 사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재한조선족의 거주지 선택 요인에서 ‘생애주기’가 충분히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거주지 이전이 자유롭기 때문에 한정된 자본 내에서 주거지의 질적 수준과 통근거리 간 균형 조절이 가능하기에 ‘통근거리’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2절. 국내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의 대상인 ‘재한조선족 밀집지’는 ‘재한조선족’과 ‘외국인 밀집지’ 두 가지 관점에서 논의가 되어왔다. 조선족은 오늘날 국내에 체류하는 단일 외국인 집단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외국인 정책 영향력에 있어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민자 연구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한편 국내 외국인 밀집지 연구 역시 재한조선족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재한조선족 밀집지는 그 규모와 개수가 비대한만큼 문헌과 통계자료의 접근성 또한 높기 때문이다. 또한 재한조선족 밀집지 국내 연구의 주된 지리적 배경은 주로 서울 남서부 일대와 안산 원곡동에 편중되어왔다. 반면 경기도 타 시·군 및 지방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며, 문화현상에 대한 연구 역시 찾기 어렵다. 본 절에서는 먼저 재한조선족에 대한 이해를 선형하고, 재한조선족 밀집지 형성에 대한 연구를 살피고, 마지막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거주지 선택 요인에 대한 연구를 고찰할 것이다.

1. 재한조선족 재이주의 역사와 배경

조선족(朝鮮族)은 중국 동북(東北)지방의 요녕(遼寧, Liaoning; 랴오닝) · 길림(吉林, Jilin; 지린) · 흑룡강(黑龍江, Heilong Jiang; 해이룽강)등 동북3성(東北三省)과 그 밖의 중국 땅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는 한민족(韓民族) 혈통을 지닌 중국 국적의 주민을 뜻한다.¹⁹⁾ 이들은 중국의 55개 소수민족 중 하나로, 중국 전역에 2021년 현재 약 17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대부분의 조선족들은 조선 말기, 생존을 위해 만주로 건너간 한인들의 후예로서 광복 이전에는 재중동포가 약 200만 명에 이르렀고, 광복 이후 이 중 절반만 귀국하고 나머지는 중국에 머물게 되었다. 이후 재중조선족은 중국 사회 공산주의 정권 수립에 공을 세움으로써 연변에 조선족자치주를 설립하게 되었

1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조선족 (최종 열람일 2022년 8월 30일)

으나, 이후 한족중심의 중화사상 기조로 인해 소수민족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냉전시대 단절되었던 한-중 관계는 중국의 개방정책이 시작된 1970년대 이후 재개되었다. 1982년 중국은 재중조선족의 한국친척방문이 부분적으로 허용되었고, 1988년 서울올림픽과 1992년 한·중수교 이후 국가 간 관계가 개선되어 공식적으로 드나들 수 있게 되었다. 설동훈·문형진(2020)에 따르면, ‘재한조선족’은 재중조선족이 한국으로 재이주함으로써 형성되었다. 재외동포법 시행령²⁰⁾에 따르면, 재한조선족 동포는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대한민국에 적을 두었던 재중조선족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다. 2022년 현재 재한조선족은 귀화자 포함 약 80만 명 안팎으로 추정된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들을 ‘한국계중국인’, ‘조선족’, ‘중국동포’, ‘중국교포’, ‘재중동포’ 등으로 지칭하고 있다. 법무부에서 사용되는 공식명칭은 ‘한국계중국인’이며, 국립국어원에서는 중국사회가 아닌 한국사회에서의 ‘조선족’ 사용이 차별의 표현으로 ‘재중동포’, ‘중국동포’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²¹⁾ 한편 학계에서는 ‘한국계중국인’, ‘중국동포’, ‘조선족’ 세 용어를 병기하고 있으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조선족’이다. 그러나 ‘조선족’이라는 용어는 현재 전 세계에 걸쳐 널리 퍼져있는 이들의 실태를 봤을 때 현 거주지가 중국인지, 한국인지 아니면 또 다른 국가인지 명확하지 않다.²²⁾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구분 짓기 위해 ‘재한조선족’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재한조선족은 중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뿐만 아니라 한국 국적을 취득했지만 조선족 사회와 그 문화권 안에서 삶을 영위하는 ‘귀화자’까지 범주에 포함시켰다.

20) 재외동포법 시행령 : 재외동포의 출입국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년 4월 12일 일부개정 및 시행)

21) 국립국어원(2014), “남 대하듯 부르지말아요 재일동포, 재미동포, 조선족?”, 차별과 편견을 낳는 말들¹¹⁾, (최종 열람일 2022년 8월 30일)

22) 신혜란(2016), 우리는 모두 조선족이다, 이매진 출판, pp. 18-19.

2. 재한조선족 연구

1992년 한·중수교 직후 중국조선족은 친척방문, 한약재 장사 등의 방식으로 한국을 방문하였다. 그 뒤 밀입국, 여권위변조, 위장결혼, 공항이탈, 노무송출 등의 편법을 통해 입국하여 ‘불법체류자’ 및 이주노동자의 신분으로 한국 최하층 노동시장에서 조용히 1990년대를 지냈다. 이 시기 한국 학계에서는 조선족 동포들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²³⁾ 재한 조선족 정착 3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그들은 늘 정치적 이슈의 중심이었다. 이들을 국적으로 볼 때는 외국인이지만, 인종적으로는 한국인이며 재외동포담론에서는 재미교포보다 차별대우를 받는 집단이면서도 다문화담론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집단 중 가장 특혜를 받는다. 기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사회적으로 복잡미묘한 지위를 갖고 있다.

이주 초기 10년 간 재한 조선족 연구는 크게 ‘이주노동자로서 조선족’, ‘재외동포법’ 두 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다. 이주노동자로서 조선족에 대한 연구는 설동훈(1996)의 박사학위논문인 “한국사회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이후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연구는 이주노동자의 유입배경, ‘흡입-배출이론’, 세계체제론, 동화이론과 모순이론 등의 틀을 빌려 이주노동자의 입국과정, 자신들의 세력을 규합하는 과정, 정부 정책 등을 살펴보았다. 국적을 막론하고 모든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조선족을 따로 부각시키기는 않았지만, 당시 모든 상황과 제도를 이해하기에 용이하다. 한편 1999년 제정된 ‘재외동포법’은 재미교포와 재일교포에게만 혜택을 주었고, 고려인과 조선족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았고 이는 학계에 조선족의 동포지위에 대한 담론을 불러일으켰다. 박우(2011)에 따르면, 이 시기 재외동포법 관련 연구들은 크게 ‘재외동포법’에 조선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관점, 역사·문화·혈통적으로 동포일지라도 국민을 구분하는 근거는 국적이기에 민족성을 강조하는 것을 경계하자는 관점, ‘민족문제’에 집중하면 조선족의 노동자신분이 약화되거나

23) 박우(2011), 한국의 재한조선족 연구 현황, p. 209.

잊혀지므로 현실을 정시하자는 관점 세 가지로 나뉘었다고 볼 수 있다.

재한 조선족 역사의 2막이라고 볼 수 있는 시기는 2004년 재외동포법 개정 이후 라고 볼 수 있는데, 재외동포법 대상에 조선족이 포함됨으로써 한동안 그들의 법적지위에 대한 연구는 맥이 끊긴 반면, 이주노동자로서의 조선족 분야의 경우 그 맥을 유지하며 ‘이민족 집단화’와 사회적응과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건강과 삶의 질’로 분화되었다. 이민족 집단화 연구들은 주로 조선족들의 국제이동을 체계화했으며 이들이 초국적 네트워킹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현장조사를 통해 뒷받침하였다. 건강과 삶의 질 연구는 재한조선족 연구가 사회, 정치, 외교, 사법 영역에서 사회복지, 의학, 보건학으로 확대됨과 동시에 그들이 한국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한 조선족들은 재외동포법 개정 다음 변곡점인 2007년 ‘방문취업제’와 ‘재외동포사증’의 확대적용으로 다수가 합법체류신분이 되었다. 이는 타국가 출신의 이주노동자들과 별개의 독자적인 노선을 갖게 되어 더 이상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배경에서 언급했듯이 방문취업(H-2)자격과 재외동포(F-4)자격자는 비전문취업(E-9)자격의 타 국가출신의 이주노동자보다 업종 간 이동, 체류지 변경이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에 자신들만의 밀집지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²⁴⁾ 조선족들은 자유로운 체류자격이라는 특성에 더불어 한국인에 준하는 언어능력과 동일한 외모로 서비스업으로의 진출이 용이했고 이로 인해 상당수 동남아 이주노동자들이 농어촌과 공업단지에 분포하는데 비해 서비스업 수요가 많은 도시에 살게 되었다.²⁵⁾

24) H-2노동자들은 E-9 노동자에 비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의 범위가 현저히 작다. 이는 이들이 선호하는 몇몇 지역에 몰려있는데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집중이 두드러진다. - 정현주(2020), 한국 이주정책에서 이주미의 시민적 계층화와 공간분화, p. 578.

25) 조선족 체류자의 약 80%가 서울수도권에 거주한다. (서울 37.3%, 경기 39.6%, 인천 4.3%)

3. 재한조선족 밀집지 연구

도시계획·지리학·건축학 분야에서의 조선족들의 공간에 관심이 집중된 시기도 이때쯤이었다.²⁶⁾ 한정우(2008)는 안산시 원곡동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정착과정을 지역의 역사와 이주노동자와의 역사의 관계를 통시적으로 인과관계를 풀어냈으며, 김현선(2010)은 서울 구로구, 영등포구의 조선족 밀집지에 대한 공간적 분석을 진행하여 그들이 밀집하게 된 환경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방성훈·김수현(2012)은 구로구 가리봉동과 광진구 자양동 밀집지에서 그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내부 구성과 정주 여건 등의 차이를 밝혔다. 또한 가리봉동이 조선족들의 초기 정착지 역할을 하고, 자양동을 거주 기간이 길고 상대적으로 부유한 조선족들의 2차 정착지로 규정하며 그들의 밀집지가 분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석준·김경민(2014)은 외국인 집단의 정착이 장기화될수록 밀집지의 특성이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화하고 이 과정에서 소수인종의 문화가 주류문화의 일부로서 편입된다고 보았다.

앞선 연구자들이 밀집지 형성요인을 부동산 가격과 교통 등 입지여건으로 분석한 반면, 박우(2017)는 그들의 밀집지 형성과 분화의 과정이 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승과정과 일치한다고 보았다. 지역이동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서로 모여살기도 어려웠지만 시민권이 높아지고 거주지 선택의 자유도가 높아지자 집적 이익을 위해 모여 살았으며 부가 축적되자 경제적 수준에 맞는 거주지를 선택하기 시작했다고 보았다. 이 시기 재한조선족 공간연구의 특징은 주로 서울 소재 밀집지를 대상으로 했다는 것에 있다. 이는 서울 남서부에 위치한 재한조선족 차이나타운이 가진 상징성과 주목도의 크기에 있어서 다른 지역의 그것과 비교 불가하며, 지자체 및 관련 기관에서 진행한 실태조사와 각종 통계들이 서울에 집중되면서 연구 환경에 있어 편의성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26) 2003년에 김일권의 “한국체류 조선족의 생활실태에 대한 연구”에서 이미 구로구 가리봉동, 안산시 원곡동을 다루었으나 밀집지를 공간의 관점에서 다루었다기보다 생활사적으로 조명한 바가 크다.

한편 본 연구의 대상지와 관련된 재한조선족 연구는 부천·시흥 모두 약 세 차례 진행된 바 있다.²⁷⁾ 신인철(2007)의 연구는 경기도 부천시의 외국인 행정 동별 인구와 사업체 분포를 연관 지으며 외국인의 거주분리 현상에 대해 탐구 했다. 그에 따르면 재한조선족의 부천 입지요인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비용이다. 이창호 외(2021)는 노년기 재한조선족의 건강 악화 요인을 그들의 생애사에서 찾고자 하였다. 정선주(2021)의 연구는 재한조선족 자영업자들이 부천에서의 정착 및 창업 과정을 취재하며 기반이 없던 부천에 정착하게 된 요인과 재한조선족 상인들의 세대 차이에 따른 현실 인식을 경험론적으로 조명 했다.

한편 이석현(2015)의 연구는 안산과 시흥에 거주하는 내국인들의 다문화 공간 인식 정도를 바탕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함으로써 다문화 정책의 현 지점을 비판하고, 올바른 다문화공간의 발전상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안산과 시흥의 공간적 차이와 이들의 정착배경에 대한 분석은 미미하였으며, 내국인의 시선에서만 서술되었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후 지자체에서 진행된 이미숙 외(2018)와 황복선 외(2021)의 연구는 시흥 소재 외국인주민들을 위한 사회통합정책과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연구들은 재한조선족을 포함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FGI)을 진행하여 외국인 시선에서의 보다 심도 깊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27) 부천 : 신인철(2007), 정선주(2021), 이창호 외(2021) 시흥 : 이석현(2015), 이미숙 외(2018), 황복선 외(2021)

4. 거주지 선택 요인 연구

국내 체류 외국인 숫자가 증가하면서, 국내 곳곳에 외국인 밀집지가 생기기 시작하였고 외국인 밀집지 분포 관련 연구 역시 증가해왔다. 특히 거주지 선택 요인에 관련한 연구는 ①특정 국적의 외국인에 집중하지 않고 ②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 또는 수도권 단위의 광역적인 범위를 기준으로 ③기술통계를 통해 요인을 밝히는 경향이 있다.

김희철·안건혁(2011)은 외국인들의 거주지 선택에 있어 사회자본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는데, 전문인력 유형 외국인은 ‘외국인 학교’를 중심으로, 노동자 유형 외국인은 ‘외국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나타난다. 특히 노동자 유형 외국인은 거주지 선택에 있어 주거환경과 주택가격 등 요인의 영향을 받음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밝혔다. 정지은 외(2011)의 연구 역시 외국인 거주지 결정요인이 국적별로 상이함을 밝힘으로써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외국인의 주택점유유형은 월세와 사글세가 많으며 저소득층이 많은 국적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고, 북미·유럽 출신의 외국인은 전문기술인력·고소득인 경우가 많아 자녀교육환경에 큰 관심을 보임을 밝혔다. 이정아(2013)는 전국 148개 시·자치구를 대상으로 외국인 거주지 선택 요인을 분석하였다. 외국인 거주비율이 높을수록, 고용밀도가 높을수록, 제조·건설업체 수가 많을수록, 아파트비율이 낮을수록 외국인의 거주비율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수현(2018)은 한국계 중국인의 밀집거주지 선택요인에 있어 제조업 조사자 수, 월세가구 비율, 등록외국인 수, 기대임금, 인구 100명당 다문화 가구원 수, 주민등록인구 등의 요인이 양(+)의 영향을 주는 것을 밝혔다.

이들 연구가 외국인 거주지 선택 요인에서 공통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적, 직업 그리고 체류자격 등 소득과 관련있는 요인들이 거주지 선택에 있어 가장 영향이 크다. 둘째, 정주성이 높은 국적, 체류자격 등의 배경을 가진 외국인들일수록 모여 사는 경향이 있다. 셋째, 지역 내 아파트 비율이 적을수록, 월세가구 비율이 높을수록 밀집지가 될 가능성성이 크다.

3절. 시사점 및 연구의 차별성

앞서 국제이주, 외국인밀집지, 거주지 선택에 관한 이론 및 재한조선족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며 본 연구에 시사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박세훈(2010)의 외국인 밀집지 유형구분에 따르면 본 연구의 대상지인 안산 원곡동 일대, 시흥시 정왕동 일대는 첫 번째 유형인 공단배후 노동자거주지로 서울 남서부, 부천 대산동 일대는 두 번째 유형인 대도시 저렴주택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부분은 연구가 진행되면서 확인할 것이다. 둘째, 거주지 선택 요인 중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생애주기’와 ‘통근거리’를 재한조선족 사례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생애주기’를 구밀집지 이탈요인 중 하나인 ‘사회적 특성의 변화’로, ‘통근거리’는 신밀집지 정착요인 중 하나인 ‘대중교통 접근성 및 통근거리’로 표현하여 진행하였다.

본 연구가 기존의 재한조선족 밀집지 연구들과 차별되는 특성으로는 먼저 그동안 연구 대상으로 주목 받지 못했던 부천과 시흥 소재 경기도 밀집지를 ‘신밀집지’로 정의하고, 정착과정과 요인에 주목하여 구밀집지와의 비교분석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대다수의 선행연구는 서울 남서부 일대와 안산 원곡동 일대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이주 과정과 해당 지역에 정착하게 된 입지요인만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지역에 대한 비교적 참신한 시도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국내 외국인 밀집지의 ‘분화과정’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 점이다. 선행연구에서 사용했던 ‘분화’의 개념은 내국인 밀집지로부터의 구분, 분리(Segregation) 또는 인구가 증가하여 주변부로 팽창(Expansion)의 분화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화’는 파생(differentiation)의 분화로 밀집지가 연접지가 아닌 새로운 지역으로의 밀집지를 놓음을 시사한다. 이는 구밀집지-신밀집지 관계 속에서 탄생하며, 신밀집지는 구밀집지의 성격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제3장 구밀집지 형성과 1차분화

1절. 서울 남서부 일대 밀집지 형성 및 분화과정

1. 가리봉동 밀집지 형성

재한조선족 밀집지는 조선족 이주노동자들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은 아니었다. 이들의 이주초기 주거패턴은 일반적인 이주노동자의 그것과 특별히 다르지 않았다. 이주노동자는 대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주거환경보다는 임대료와 물가가 저렴하며 일터가 가까운 곳을 선호한다. 당시 이 조건에 딱 해당하는 곳은 서울에서는 구로구 가리봉동이었다. 가리봉동은 1965년에 조성된 구로공단의 배후주거지로 약 20년간 빈민과 노동자들의 일상생활과 문화중심지로 기능했다. 이후 구로공단은 1980년대 후반 경공업의 쇠퇴와 88올림픽을 앞두고 서울시의 환경정화사업으로 인해 일부 공장들이 이전하는 등 몰락의 길에 들어섰다. 그나마 남아있던 주민들도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살 길을 찾아 떠나게 되었고, 그들이 떠난 빈 공간은 조선족 동포들이 채우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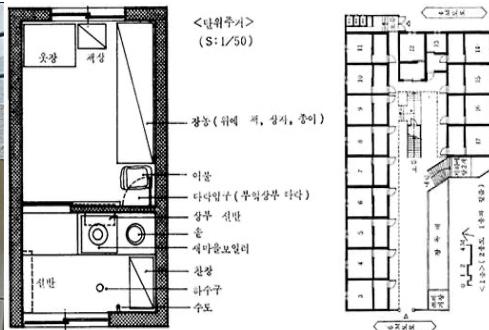
가리봉동은 소위 ‘별집’으로 불리는 주거형태가 유명한데, 이는 공단 노동자들이 사용하던 노후한 쪽방으로 공동화장실 하나에 적계는 10명에서 많게는 20명까지 이용하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지녔다.[그림5,6] 몇 년간 세입자가 없자 집주인들은 조선족을 비롯한 이주노동자들에게 저렴한 값에 제공했다. 비록 화장실도 없고 좁은 단칸방이지만 혼자 입국해 생활하는 초기 이주노동자에게는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다. 또한 가리봉동은 지하철 1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과 7호선 남구로역이 위치해 서비스업·제조업·건설업 등 주로 일용직에 종사하는 조선족들에게 있어 출퇴근이 용이했다. 재한조선족의 세력이 조금씩 증가하자 가족이나 연고 없는 후속 이주자들 또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또 몰려들었다. 이후 2000년대 초반 일명 “차이나타운” 또는 “옌볜거리”로 불리면서 재한조선족 최초의 밀집지가 형성되었다.

[그림 5] 가리봉동의 쪽방 ‘벌집’의 모습



(자료 : 우리문화신문(2015), 여공~G밸리 구로공단
반세기 역사<가리봉오거리>전)

[그림 6] 가리봉동의 쪽방 ‘벌집’의 평면



(자료 : 김영기(1983), 구로공단인근 노동자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가리봉동 일대에 재한조선족 밀집지가 형성된 요인들은 연쇄이주, 저렴한 임대료와 물가, 교통편의성 등이 있으나 인구 증가에 있어서는 크게 세 가지 사건이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다. 시기적으로 첫 번째 사건은 1997년 ‘외환위기’다. 위환위기로 인해 재한조선족들에게 일감을 주던 사업체들과 건설현장이 줄어들게 되자 이들은 더욱 저렴한 주거지를 찾아 가리봉동으로 모여들게 되었다.²⁸⁾ 두 번째는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시행했던 ‘불법체류자 종합 방지대책’이었다. 2002년 3월 법무부는 월드컵을 앞두고 테러방지 등을 위해 방안을 발표했고, 불법체류자가 자진신고를 하면 2003년 3월까지 출국 유예를 약속했다. 이때 중국인 15만1천 명이 자진신고했으며 그 중 조선족이 10만 명을 넘어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체류자였던 이들이 양지로 드러나자 가리봉동 일대의 소비인구가 증가했고 상업시설의 확대가 일어났다.²⁹⁾ 세 번째 사건은 2003년 8월에 통과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다. 이로 인해 조선족의 취업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인구증가에 탄력이 붙었다.

28) 설동훈·문형진(2020) 상계서, p. 151.

29) 임영상 외(2015), 가리봉-대림 중국동포타운 지식맵 구축, 서울연구원, pp. 20-21.

2. 재한조선족 밀집지 1차 분화

한편 급성장하던 가리봉동 밀집지는 10년이 채 안되어 성장세가 둔화되고 세력이 분화되었는데, 그 계기 역시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행정적인 절차에 의한 것으로 1995년 금천구가 구로구에서 분구된 것이다. 가리봉2·3동 남부순환로 이남지역이 가산동이 되었고 더불어 구로구 독산동 또한 금천구로 편입되면서 구로구의 재한조선족 숫자가 금천구와 양분된 것이다. 사람이 이동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재한조선족 밀집지는 구로구 가리봉동과 더불어 금천구 가산동·독산동으로 확대되었다.

두 번째는 모순적이게도 가리봉동 성장 계기 중 하나인 2004년 8월 고용허가제 시행으로 인한 ‘불법체류자 집중단속’이다.³⁰⁾ 고용허가제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조선족 이주노동자를 증가시켰지만, 합법의 범위가 커진 만큼 불법의 경계가 명확해진 것이다. 법무부 출입국은 고용허가제 시행과 동시에 가리봉동 사업장을 위주로 단속을 강화했고, 이로 인해 가리봉동에서 체류하던 일부 조선족들은 단속을 피해 서울 내 타 지역과 지방으로 흘러졌다. 그 결과 과거 이들이 거의 거주하지 않던 대림동, 독산동, 신길동, 봉천동, 신대방동, 자양동 등 새로운 조선족밀집지 형성의 초석이 되었다.³¹⁾

세 번째는 약 10년간 가리봉동의 잇따른 ‘재개발사업 추진 및 취소’로 인한 ‘슬럼 가속화’다. 서울시는 2003년 11월 열악한 주거환경, 낙후된 지역 이미지 개선, 도시생활 여건 제공, 교통체계 개선, 디지털산업단지의 배후시설,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가리봉동 125번지 일대를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였다. 사업지정으로 해당 지역은 10년간 건축허가의 제한을 받게 되었으며 주택과 상가는 정비와 관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후 2006년 11월 서울시와 구로구는 LH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며 ‘가리봉동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을 확대

30) 조선족 중 3년 미만 체류자는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합법적으로 취업활동을 하면 2년까지 체류가 보장되며, 3년 이상 4년 미만 체류자는 중국에 출국했다가 6개월 후 재입국해야하고 5년 이상 체류자는 1년 있다가 재입국해야했다. - 왕길환(2003), “고용허가제 통과, 조선족들 기대 속 불안”, 연합뉴스 (최종열람 : 2022. 10. 3.)

31) 임영상 외(2015), 상계서, pp. 21-22.

추진하였다.³²⁾ 그러나 별집촌과 상가 등의 소유주들이 임대소득의 축소와 추가 부담금 증가 등을 이유로 저항했으며, 이 시기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사업은 난항에 빠져들었다. 2008년 5월 서울시는 사업 명칭을 ‘가리봉재정비촉진지구’로 변경해 다시 시도했다³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인 LH의 재정악화, 1조 3,500억에 달하는 막대한 이전비용, 부동산 경기침체,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인해 2010년 중단되었다. 2013년 3월 약 10년간 사업이 별다른 진척이 없자 가리봉동개발대책위원회는 전면백지화를 주장하였고 서울시와 구로구는 2013년 6월 가리봉동 재개발사업을 재추진하였으나 2014년 2월, LH가 내부 부채문제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시행사 자격을 반납하며 사업을 포기하였다. 결국 구로구청은 같은 해 6월 서울시에 ‘가리봉동재정비촉진지구’ 해제를 요청하며 사업은 완전히 실패하였다.³⁴⁾ 재개발·재정비사업이 10년간 추진되고 엎어지고를 반복하는 동안 부동산 임대료는 불안정했으며, 정비와 관리가 불가능하자 주거환경이 계속 낙후되었다. 그동안 부를 축적하거나 보다 나은 환경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되었다.

[표3]의 인구분포를 살펴보면 2007년경부터 가리봉동에 체류하던 조선족 숫자의 증가세는 둔화되고 주변부인 구로2동, 대림2동 인구는 지속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가리봉동의 인구가 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 지역 인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이동’현상이 아닌 주변부로의 ‘팽창’현상으로 보인다. 고용허가제와 재외동포법 개정으로 재한조선족 숫자가 계속 증가했기 때문이다. 다만 2007년경부터 대림2동 재한조선족 인구가 최고치를 경신해 가리봉동이 가지고 있던 재한조선족 밀집지의 헤게모니는 대림2동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조선족이 떠난 별집촌은 한족과 다른 소수 민족의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채우고 있다.³⁵⁾

32)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 : 27만3,000m² (8만2,700평)의 대지에 5,430가구 규모의 주거시설과 53층 높이의 랜드마크 타워 등을 건립할 계획이었다.

33) 가리봉재정비촉진지구 : 대상지 33만2929m²로 이전 사업보다 확대 변경되었다.

34) 지충남(2014), 재개발사업이 재한조선족 집거지에 미친 영향, 한국민족문화 제53권 11호, pp. 256-259.

35) 동포신문(2019), “비자변경, 자격증 취득하면서.. 중국동포는 한국인의 생활문화 따라잡았다.” (최종열람 : 2022. 10. 4)

[표 2] 이주초기 서울시 주요 자치구별 중국인 인구분포 (상위 8개 자치구, 등록외국인) (단위 :명)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7	2008	2009
서울특별시	12,283	17,432	21,259	22,535	52,572	64,762	77,881	169,414	192,618	192,191
광진구	416	500	636	762	2,243	2,688	3,359	8,103	9,854	10,594
서대문구	2,380	2,692	2,827	3,065	1,447	1,670	2,032	3,518	4,003	3,940
마포구	1,343	1,495	1,671	693	1,579	1,953	2,199	4,608	4,782	4,691
구로구	323	586	936	1,158	5,293	6,636	9,416	23,041	26,383	26,220
금천구	737	1,045	1,248	1,245	4,394	4,836	5,573	13,661	16,306	16,880
영등포구	965	598	733	329	5,859	7,840	11,049	23,041	26,383	33,826
동작구	358	508	671	749	2,014	2,424	3,305	13,661	16,306	8,983
관악구	417	680	986	1,161	3,224	4,064	5,657	28,751	33,102	15,101

*재한조선족만이 아닌 중국인(한족 등 포함)통계임.

**1999년에서 2002년 사이에는 화교 중국인이 상대적으로 많아 서대문구와 마포구 인구가 더 높게 집계됨.
(자료 : 서울시, 『서울특별시 등록외국인(자치구·국적별)』, 1999-2009.) 2006년은 유실되어 생략.

[표 3] 서울시 주요 행정동별 중국인 인구분포 (상위 17개 행정동, 등록외국인) (단위 : 명)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가리봉동	59	145	211	1,672	2,032	2,711	6,326	7,180	7,307	7,416	7,977	6,111	5,948	6,792	6,773	6,561
구로2동	69	122	173	724	925	1,369	3,762	4,329	4,401	4,268	5,917	6,467	6,436	7,461	7,585	7,475
구로4동	41	92	111	611	805	1,442	3,364	3,492	3,171	2,681	3,012	3,619	3,687	4,317	4,498	4,473
구로5동	40	90	118	587	763	1,113	2,561	2,560	2,475	2,356	3,128	3,073	2,827	3,090	3,076	3,028
대림1동	14	49	32	210	282	435	1,295	2,768	2,491	4,015	4,466	3,138	2,931	3,069	3,055	3,041
대림2동	18	60	169	1,316	1,753	2,885	6,262	7,930	7,385	7,025	7,729	7,176	7,421	8,659	8,506	8,373
대림3동	47	73	100	496	688	1,082	2,211	3,261	3,140	2,983	3,398	3,204	3,353	3,922	4,054	3,993
신길1동	12	45	152	615	854	1,059	3,828	5,283	4,850	4,832	4,198	2,729	2,411	2,361	2,170	2,149
가산동**	781	665	1,740	456	1,915	275	4,049	4,599	4,640	4,782	4,820	3,670	3,371	3,699	3,498	3,392
독산1동**	172	216	1,057	265	1,257	201	2,962	4,002	4,181	5,206	5,289	3,122	2,334	2,227	2,050	1,988
독산3동**	20	22	93	21	159	14	2,525	4,002	2,777	2,513	2,989	3,116	3,405	4,304	4,436	4,359
시흥1동**	38	45	39	7	51	22	1,743	2,812	2,190	2,345	2,523	1,904	1,864	1,971	1,959	1,907
신사동	-	-	-	-	-	-	1,748	1,908	1,869	1,583	642	1,452	1,900	2,562	2,798	2,754
조원동	-	-	-	-	-	-	1,820	1,889	1,809	1,375	641	1,401	1,688	2,144	2,151	2,102
청룡동	-	-	-	-	-	-	1,394	1,425	1,346	947	965	1,026	1,086	1,375	1,330	2,102
신대방1동	-	-	-	-	-	-	2,584	2,973	2,968	3,116	3,316	1,367	2,412	2,825	2,712	2,669
자양4동	-	85	-	-	777	1,549	2,560	2,911	2,961	2,723	3,141	2,936	2,981	3,621	3,717	3,625

*2001년부터 2006년까지는 한족을 포함한 자료이며 2007년부터 2016년까지는 재한조선족만 분류한 자료임.
(불법체류자 미포함)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구로구의 자료는 오류가 있는 것 같아 관할구청 자료실에 연락해봤으나 납득할만한 답변을 수신하지 못하였음.

***2008년 구로4동과 6동은 4동으로, 구로2동과 본동이 2동으로 통합되었음.

****2008년 노유1·2동은 통합 후 자양4동으로 변경되었음.

(자료 : 구로구청, 『구로통계연보』, 2001-2006. 영등포구청, 『영등포통계연보』, 2001-2006. 금천구청, 『금천구 통계연보』, 국회전자도서관 『영진통계연보』 2001-2006. 법무부, 『통계연보』)

3. 서울남서부 밀집지 형성 : 대림2동

가리봉동이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재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조선족 최대 밀집지의 위상을 잃자 반사이익을 얻은 대표적인 지역이 대림동이다. 저렴한 물가와 지하철 2호선·7호선이 지나는 편리한 교통은 가리봉동의 장점을 빼닮았고, 무엇보다 주거환경이 양호하다는 장점이 있었다. 대림동의 대표적인 주거 유형은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 사이에 지어진 다가구 주택으로 비록 반지하, 옥탑방 또는 지상층 하나를 가벽으로 나눈 공간이지만³⁶⁾, 1970년대에 지어진 가리봉동의 별집(쪽방)보다 넓고 개인화장실이 있어 쾌적했다. 당시 임대료도 가리봉동과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점을 일찍이 포착한 대림동의 부동산들은 월세, 전세 및 매매를 조선족들에게 안내하면서 대림동으로 유도해 대림동 밀집지형성에 일조했다고 한다.³⁷⁾

다수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재한조선족 밀집지 형성의 가장 큰 원동력은 ‘연쇄이주’로 꼽는다. 연쇄이주는 가령 어떤 사람이 먼저 이주하여 한 지역에 자리를 잡고, 뒤에 이주한 그의 친척 및 친구가 그 지역에 합류하는 것을 말한다.³⁸⁾ 이는 서울 남서부 일대의 모든 밀집지에 적용되지만, 밀집지 형성과정에 있어 가리봉동보다는 대림동에 더 크게 작용한 것처럼 보인다. 이는 가리봉동 밀집지의 성장을 방해한 2003년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재개발 추진’ 이전의 친척초청 관계와 정책 때문이다. 조선족 이주 초기의 친척초청 제도는 직계 존속이 과거 대한민국에 적을 두고 죽기 전 고향 땅을 방문케 하기 위함이 컸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이들의 주된 이주 목적이 단순 ‘방문’에서 한국에서의 ‘노동’으로 바뀌었지만 당시 기준을 통해 유입된 조선족들은 노동하기에는 다소 연령이 높았다.³⁹⁾ 가리봉동 성장기에는 사실상 4촌 이내의 가

36) 대림동의 다가구 주택의 2층 독채에는 주인집이 살고, 1층을 둘로 나누어 전세, 반지하나 옥탑은 월세로 세를 주었다. 김동민(2018), 대림동에서 보낸 서른 번의 밤, 시사인. (최종 열람 : 2022. 9. 22.)

37) 이정현, · 정수열(2015), 국내 외국인 집중거주지의 유지 및 발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21권2호, p. 315.

38) 설동훈 · 문형진(2020), 상계서, p. 151.

39) 친척 초청 범위는 1999년 기준은 50세 이상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2002년은 40세 이상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다.

까운 인척만 초청이 가능했다. 2004년 기준이 25세 이상인 8촌 이내로 완화되자 노동이 가능하면 먼 친척도 초청이 가능해졌다. 집성촌 문화가 남아있던 재중조선족 사회에서 8촌 이내의 또래 혈족은 친척이면서 친구이기 때문에 쉽게 한국으로 불러들일 수 있었고, 일정기간 동거하며 기회가 되면 독립을 하기도 했다.

[표 4] 재한조선족 친척초청 관련 제도 및 정책

연도	제도 및 정책	범위	비고
1992	친척 초청범위 확대	60세 이상 5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한중수교
1994	친척 초청범위 확대	55세 이상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재외동포법 제정
1999	친척 초청범위 확대	50세 이상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2002	친척 초청범위 확대	40세 이상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2003	친척 초청범위 확대	30세 이상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외국인 고용허가제
2004	친척 초청범위 확대	25세 이상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재외동포법 개정
2013	재외동포비자 발급확대	60세 이상 외국국적 재외동포에게 재외동포(F-4)자격 발급확대 및 요건완화	-
2015	방문취업비자 기족동반 허용	방문취업(H-2)자격 체류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동반체류 허용	-

(자료 : 선행연구 및 정부자료 토대로 저자 작성)

당시 대림동의 또 다른 특징은 생활 편의시설이 많이 생겼다는 것이다. 생활 전반에 필요한 시설에는 중국 식료품을 파는 식료품점, 중국음식점, 여행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환전소 등이 있었으며, 휴대폰대리점과 공중전화기 등의 통신 서비스, 중국계 은행 등의 해외송금 서비스 시설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중국노래 목록이 추가된 노래방과 PC방, 간이도박장, 안마방, 주점, 커맥집⁴⁰⁾같은 여가 및 유흥시설, 옷과 잡화를 파는 소매점 그리고 심지어 건강보험 비대상인 외국인에게 진료비의 약 10-20%를 감면해주는 중국동포지정 병원도 있었다.⁴¹⁾ 조선족 대상으로 하는 가게들의 확충은 재한조선족의 연쇄이주를 가속시켰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들도 재한조선족 중심의 생활편의가 갖춰지자 대림동으로 이사오는 경우도 많았다.⁴²⁾ 2012년 ‘외국국적동포 제도변

40) ‘커피맥주’의 출입말로 조선족 밀집지에서 볼 수 있는 다방을 일컫는다.

41) 2000년에 개원한 고려대학교 병원이 대표적인 예로 한국과 중국의 교회단체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오정은 외(2016), 서울 서남권 중국동포 밀집지역 발전방안 연구, 이민정책연구원, p. 17.

경개선’ 시행으로 방문취업(H-2)자격자가 기능사 이상의 국내공인 기술자격증을 획득하게 되면 재외동포(F-4)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자 대림2동의 행정사들을 중심으로 자격증 학원이 유행하게 되었다.⁴³⁾ 대림동 밀집지는 단기체류자에게는 정착과 일자리 정보를, 장기체류자에게는 더 나은 체류자격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일종의 대한민국 정착의 첫 단계이자 ‘관문’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42) 이정현 · 정수열(2015), 상계서, pp. 309-311.

43) 충청일보(2020), “건축도장기능사 중국동포 F4비자 관련여행사, 행정사가 운영 또는 소개하는 기술학원조심”(최종열람 : 2022. 10. 3.)

2절.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밀집지

1. 원곡동 밀집지 형성

재한조선족의 이주 초기부터 서울 남서부권과 함께 가장 대표적인 재한조선족 밀집지로 손꼽히는 안산시 원곡동은 공업단지 배후주거지라는 관점에서 그 형성배경 또한 가리봉동과 유사하다. 국내 최초 도시계획 사례인 ‘반월 신공업 도시(1976)’ 계획은 이전 공업단지들과 달리 배후주거지와 공업지역을 이분화 시켜 직주분리를 명확하게 했다. 원곡동은 이런 반월 신도시에 적용된 방법에 의해 건설된 원주민과 공장 노동자를 위해 건설된 대규모 주택단지로서 탄생했다. 서울에 산재해있던 조립금속기계업 및 공해유발업체들의 이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반월공단은 1991년에 이르러 약 1000개 이상의 기업이 입지하고 약 8만 5천명이 근무하는 거대산업단지가 되었고,⁴⁴⁾ 당시 원곡동에는 한국인 노동자들만 거주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노동운동의 활성화와 3D업종 기피현상으로 인해 제조업계는 인력난이 시작되었고, 본격적으로 이주노동자 유입이 시작되었다. 원곡동 역시 1992년 ‘산업연수생제도’ 도입과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한국인 노동자 이탈과 해외 노동력의 유입으로 오늘날 한국에서 외국인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되었다. 이들 중 재한조선족 비율은 약 60-70%대로 단일외국인 집단 중 가장 크기에 조선족 밀집지라고 할 수 있다..

44) 반월·시화산업단지는 11,028개 업체가 입주해있고, 126,914명이 고용된 국내 최대 중소기업단지이다. 안산녹생환경지원 센터(2021) 반월시화산업단지 현황

[표 5] 경기도 안산시 행정동별 외국인 인구분포 1990-2015 (등록외국인 기준) (단위 : 명)

구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안산시	-	-	329	1,278	2,470	3,337	5,643	7,166	6,440	6,379	8,662	7,962	8,799
안산시	20,062	20,089	18,228	24,256	29,673	32,816	34,163	38,971	44,314	43,465	49,249	53,755	55,719
상록구	2,060	2,112	2,416	3,298	4,390	5,231	5,235	5,769	6,829	7,090	8,195	9,185	9,816
일동	291	162	184	275	362	463	442	652	732	592	602	629	726
이동	-	188	280	443	670	797	786	765	1,155	1,407	1,871	2,177	2,304
사동	580	393	480	625	899	1,202	1,336	1,354	1,292	939	829	911	1,013
사이동	33	171	161	166	191	189	161	159	202	268	289	319	357
해양동	-	-	-	-	-	22	136	397	788	1,143	1,312	1,417	
본오1동	427	410	495	718	913	1,093	1,043	1,140	1,233	1,057	1,048	1,033	1,080
본오2동	13	81	95	128	160	181	156	179	287	341	398	446	513
본오3동	91	132	99	137	180	238	244	265	346	516	755	948	972
부곡동	95	87	128	197	246	271	274	281	303	286	300	344	342
월파동	183	191	193	217	272	295	267	301	362	392	421	456	493
성포동	61	65	57	66	89	104	105	104	92	87	82	80	77
반월동	232	172	187	248	309	292	286	322	321	319	327	359	353
안산동	54	60	57	78	99	106	113	111	107	98	130	171	169
단원구	18,002	17,977	15,812	20,958	25,283	27,585	28,928	33,202	37,485	36,375	41,054	44,570	45,903
와동	201	270	327	473	622	767	731	756	922	991	1,158	1,280	1,369
고잔1동	339	329	330	356	426	512	540	505	589	488	492	505	498
중앙동	29	29	36	72	89	87	83	78	138	187	285	290	277
호수동	5	6	2	6	3	1	5	71	136	220	273	294	315
원곡본동	5,936	5,653	5,368	8,708	12,750	15,310	16,054	15,392	17,378	17,404	20,410	22,534	23,394
원곡1동	118	271	457	931	1,006	904	1,285	5,291	6,358	5,114	4,845	5,295	5,340
원곡2동	8	17	16	50	46	48	37	67	78	94	117	147	167
초지동	10,786	10,755	8,520	9,330	8,753	7,843	7,956	8,057	7,661	7,109	7,464	7,310	6,809
선부1동	346	360	404	486	797	1,045	1,094	1,522	2,016	1,285	993	906	970
선부2동	148	182	217	324	484	718	792	1,079	1,772	2,915	4,299	5,141	5,671
선부3동	45	54	82	159	190	210	219	245	339	491	645	787	964
대부동	41	51	53	63	117	140	132	139	98	77	73	81	129

*2017년 사3동은 해양동으로, 고잔2동은 중앙동으로 변경되고, 원곡1동과 원곡2동은 백운동으로 통합되고 원곡본동은 원곡동과 신길동으로 분할됨.

(자료 : 안산시청, 『경기도 안산시통계연보』, 2001~2016』)

[표 6] 경기도 안산시 초기 이주민 국적별 현황 1997-2000 (단위 : 명)

구분	중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기타	합계
1997	2,112	972	191	3	3,888	7,166
1998	2,324	700	561	6	3,902	7,493
1999	2,142	759	527	1,074	1,877	6,379
2000	3,133	977	880	1,253	2,419	8,662

(자료 : 한정우(2008), 안산시 원곡동 이주민의 영역화 과정,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안산시 원곡동 일대에 조선족 문화적 특성이 경관적으로 뚜렷하게 드러나게 된 계기 또한 가리봉동과 동일하다. 2002년 ‘불법체류자 종합 방지대책’ 실시로 불법체류 신분인 외국인들이 자진신고하였고, 한시적으로 합법 신분이 된 그들이 양지에 돌아다니게 되자 거리가 활성화되었다. 또한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로의 유입이 증가하자 상업시설이 증가해 경관에 변화가 발생했다.⁴⁵⁾

[표 7] 2002년 불법체류자 종합 방지대책 시 자진신고자 (국적별) (단위 : 명)

구분	안산 전체		원곡동	
	신고자	비율	신고자	비율
중국(조선족 포함)	8,660	43.2%	7,574	49.6%
조선족	7,887	39.3%	6,484	42.4%
방글라데시	697	3.5%	128	0.8%
인도네시아	455	2.3%	-	-
몽골	431	2.1%	274	1.8%
태국	418	2.1%	-	-
우즈베키스탄	-	-	144	0.9%
필리핀	-	-	134	0.9%
기타	1,502	7.5%	541	3.5%
전체	20,050	100.0%	15,279	100.0%

(자료 : 박배균·정진화(2004)연구에서 법무부(2002)『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신고』, 자료 인용)

형성 초기 안산시 원곡동 밀집지가 서울 남서부 일대와 달랐던 점은 주택유형과 통근방식이다. 조선족을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주 초기 샌드위치 패널로 만든 공장 기숙사, 컨테이너 박스로 급조한 임시공간, 회사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에서 내국인과 머무른 경우가 많았으며 공단 규모가 위낙 거대해 도보로 출퇴근이 어려워 회사와 공단에서 제공하는 셔틀을 타고 다녔다고 한다.⁴⁶⁾ 쪽방 또는 반지하에 거주하며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서울 남서부 밀집지의 조선족들과는 사뭇 다른 환경이다.

45) 한정우(2008), 안산시 원곡동 이주민의 영역화 과정, 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 52.

46) 한정우(2008), 전개서, p.

“여기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원룸이나 빌라 사는 동포들 별로 없었습니다. 저기 공원(현 근로자 운동장)에 있던 기숙사나 합숙소 이런데는 가족이랑 친구 데리고 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원룸 살던 중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살던데 넘겨주고 가고 그래서 들어가게 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재한조선족 주민, 안산시 원곡동 거주)

이들이 기숙사와 사택 등 임시거처에서 나와 본격적으로 원곡동으로 이동하게 된 계기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내국인들이 직장을 잃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 경우고, 두 번째는 단원구 동쪽인 고잔동, 초지동, 호수동 일대의 신축아파트들이 완공되자 내국인들이 아파트 단지로 이주하게 된 경우다. 그들이 살던 집들은 재한조선족 이주자들이 증가하는 시기와 맞물려 자연스레 재한조선족이 채우게 되었다. 이 시기 안산시 원곡동 밀집지의 대표적인 주거유형은 크게 ‘원룸’ 중심의 다가구주택과 ‘고시원’이었다. 1990년대 초중반 원곡동의 주거유형도 가리봉동의 별집과 다를 바가 없었지만,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집주인들은 임대 경쟁력을 극대화하고자 주택을 주방과 개인화장실이 달린 원룸형태로 개조했다. 보증금이 따로 없는 고시원도 같은 맥락에서 증가했다. 대신 고시원은 조선족이 아닌 단기 체류자가 많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온 외국인이 많이 거주했다고 한다.⁴⁷⁾ 지금과 달리 이주노동자들에게 허가된 체류기간도 짧았을 뿐더러 언제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할지 모르는 불안정한 처지였기에 상대적으로 복잡한 행정절차와 전입신고를 필수로 요하는 다세대주택과 일하러 온 처지에 보증금이 높은 주거는 피하려는 경향 때문이었다.

“교포마다 고향도 다르고 사정이 다르겠지만 안산 교포들이 한국말 조금 더 못하는 것 같아요. 온종일 한국말 쓸 일이 없는 사람도 많아요.”

(재한조선족 주민, 시흥시 정왕동 거주)

47) 박배균·정전화(2004), 세계화와 “잊어버림”的 정치 : 안산시 원곡동의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에 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0건 제4호, pp. 810-811.

안산시 원곡동 밀집지의 재한조선족이 타지역 밀집지와 다른 특성은 한국어 보다 중국어 사용 비중이 크다는 점이다. 안산시에서 거주하다가 시흥시로 이주한 한 재한조선족 동포에 따르면, 원곡동에 거주하는 조선족들은 대부분 공장 근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업무 중 중국어를 많이 사용해 한국어 사용능력이 서비스업 종사자들보다 높았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안산시 원곡동 밀집지의 조선족들이 종사하는 업종은 크게 ‘제조업’과 ‘건설업’으로, 보다 긴 대화를 요하는 식당종업원, 가사도우미, 간병인 등의 대인 서비스업보다 한국어를 덜 사용해도 되는 환경에 노출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한국어 구사 능력의 저하는 더 이상 안산시 원곡동만의 현상이 아니다. 재외동포재단(2016)에 따르면, 이주초기의 세대보다 최근에 이주한 세대들의 한국어 능력이 저하됐으며, 이는 중국 현지에서의 조선족 민족어 교육 감소가 원인이라고 본다.⁴⁸⁾ 이러한 한국어 사용능력 저하는 재한조선족의 세력 밀집을 가속화하는 또 하나의 요소로 보인다.

한편 동시기에 형성된 가리봉동 밀집지가 주변으로 분화되고 있을 때, 원곡동 밀집지 역시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인한 타지역에 이동한 재한조선족이 있었다. 그러나 다른 조건에 있어서 원곡동은 재개발 이슈가 없었고, 노후된 주택들은 원룸과 고시원으로 바뀌어 생활환경은 좋아졌기 때문에 재한조선족이 이동은 적었고, 시흥시 정왕동 밀집지가 형성되기 전까지 괄목할만한 규모의 분화현상은 일어나지 않았다.

48) 외국인 밀집지와 관련된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민족 밀집지(Ethnic Enclave)가 생활기반시설이 다 갖춰질 정도로 커지면 현지의 언어구사능력이 감소한다고 설명한다. 국내 재한조선족 밀집지 또한 탄생한지 짧게는 25년, 짧게는 10년인 만큼 직장이 아닌 생활환경에서도 한국어를 사용할 기회가 극히 적어졌을 것이다.

3절. 소결

본 장에서는 초기 밀집지인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과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밀집지가 형성되는 과정 그리고 가리봉동 밀집지가 주변부로 분화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구밀집지인 가리봉동, 원곡동 밀집지는 1990년대 중반에 형성되었다는 점과 공업단지 노동자의 배후주거지라는 점에서 출발점은 거의 동일하다. 다만 재한조선족이 유입되던 당시를 고려하면 구로공단은 쇠퇴했었고, 반월공단은 잘 운영되던 상태로 두 지역의 재한조선족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정착요인이 각각 ‘저렴한 주거지’와 ‘일자리 공급’이라는 차이점이 있었다.

이후 가리봉동 밀집지는 ‘구로구로부터의 금천구 분구’, ‘고용허가제 실시로 인한 불법체류자 집중단속’, ‘재개발사업 추진 및 취소로 인한 지역 낙후’ 등으로 2000년대 중반부터 그 위세를 잊기 시작했다. 한편 고용허가제 실시와 친척 초청범위 확대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조선족 동포들은 계속 증가했고 이들은 수용능력이 한계에 치달은 가리봉동이 아닌 대림2동과 구로2·4동 등 주변 지역에 정착했다. 또한 통계에 따르면 가리봉동 소재 재한조선족 인구는 증가세가 꺾였을 뿐 감소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차이나타운의 1차 분화는 ‘주변으로 확산’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원곡동 밀집지는 가리봉동과 같은 시기에 불법체류자 단속이 진행되었지만, 재개발 사업으로 대수선이 불가했던 가리봉동보다 주거환경이 양호한 편으로 주변으로의 인구유출이 심하지는 않았고, 초지동, 선부동 등 인근 행정동 역시 인구 증가율이 크게 높지 않은 점으로 보아 분화현상은 없었다고 보인다. 다만 2018년 들어선 서해선과 향후 신안산선, GTX-C 계획이 잇따라 발표되자 역세권 부지는 대대적인 재개발에 들어섰고 지역 부동산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원곡동의 재한조선족들이 주거안정성을 위해 시흥시 정왕동과 안산시 상록구의 저렴한 주거를 찾아 이동하고 있다. 이에 관해 자세한 사항은 4장 2절에서 다룰 것이다.

[표 8] 구밀집지 간 형성시기 및 특성 비교

구분		가리봉동 밀집지	대림2동 밀집지	안산시 원곡동 밀집지
형성시기		1990년대 중반	2000년대 초반	1990년대 중반
입지 요인	교통 접근성	가산디지털단지역(1,7호선) 남구로역(7호선)	대림역(2,7호선)	안산역(4호선)
	일자리 수급	- 강남, 안양 등 건설현장 - 상업지역의 서비스업	- 강남, 인천 등 건설현장 - 상업지역의 서비스업	- 반월공단 제조업 - 안산 상록구 건설현장
	저렴한 주거비용	쪽방촌(별집) (내국인 공단 노동자 유출)	다가구 ·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 옥탑	쪽방촌(내국인 유출) → 다가구 원룸, 고시원
	인구 증가 요인	- 중국으로부터의 연쇄이주 - 외환위기로 일감 감소 - 불법체류자 양지화 - 고용허가제 실시	- 중국으로부터의 연쇄이주 (고용허가제 실시 및 친척 초청범위 확대) - 가리봉동 분화로 인한 반사이익	- 내국인 유출(실직, 아파트) - 반월 · 시화공단의 접근성 - 고용허가제 실시
거주자 특성		- 건설 · 서비스업 종사자 다수 - 남성 1인가구 다수	- 건설 · 서비스업 종사자 다수 - 가족단위 다수	- 제조업 · 건설업 종사자 다수 - 중국어 사용비중 높음

제4장 신밀집지 형성과 2차분화

본 장에서는 먼저 재한조선족의 지역 및 체류자격별 인구 증감 현상을 분석해 최근 동향을 살필 것이다. 이후 대표적인 구밀집지인 서울시 남서부 일대와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일대의 인구 유출 현상의 원인과 특성을 밝히고, 신밀집지로 부상하고 있는 경기도 부천시 대산동 일대와 시흥시 정왕동 일대의 인구 유입 현상의 원인과 특성을 밝힘으로써 재한조선족 밀집지의 2차분화 현상이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1절. 재한조선족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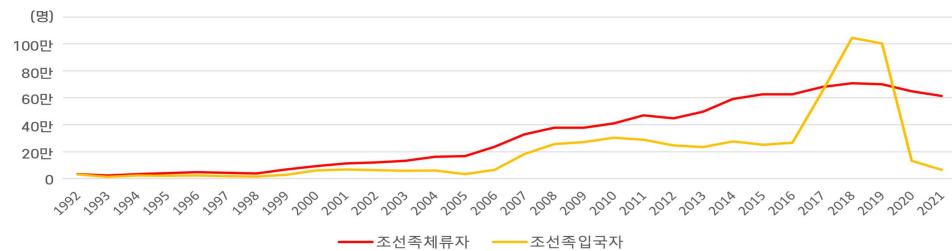
1992년 한·중수교 이후 국내로의 이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재한조선족의 유입인구 증가세는 2010년대 중반 들어 둔화되었다. 한국과 중국의 1인당 GDP격차가 1992년 7.45배였던 이주초기에 비해 2020년의 1인당 GDP격차는 3.1배로 살아온 터전을 떠날 만큼의 보상이 되지 않기에 선뜻 한국행을택하지 않는 경향이 커졌다.⁴⁹⁾ 또한 1992년 약 200만 명에 달하던 재중조선족들은 2020년 현재 약 170만 명으로 감소했으며 육체노동을 통한 경제활동이 어려운 60세 이상 인구가 2010년 11.6%에서 2020년 27.4%로 급증한 상황⁵⁰⁾을 미루어 보아 ‘코리안드림’을 위해 한국으로 이주하는 조선족들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출입국사무소(2020)에 따르면, 이러한 경향성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선언과 외국인 무사증입국 제한조치로 인해 더욱 감소하였다. 조선족 또한 입국자 수가 전년대비 88.2%나 감소했는데 단기방문(C-3)과 방문취업(H-2)자격 외국인들은 자가격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금전적인 비용 때문에 한국으로의 재입국을 포기했기 때문에 체류자 수가 더 감소했다.⁵¹⁾

49) 1992년 한국 : 13,744 USD, 중국 : 1,845 USD, 2020년 한국 : 31,881 USD, 중국 : 10,160 USD (출처 KOSIS)

50) 조선족 중 60세 이상 인구 2010년 211,535명(11.6%) 2020년 466,246명(27.4%) 출처 : 연변일보(2022)

51) 중국인 대상 행정사, 여행사 등에 따르면 방문취업(H-2)자격자는 비자를 갱신하려면 중국으로 가

[그림 7] 국내 조선족 체류자와 입국자(1992-2021)



*귀화자 및 미성년 자녀 미포함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저자 계산)

1. 지역별 동향

재한조선족 시도별 분포를 살펴보면 상위 세 지역은 경기, 서울, 인천으로 554,074명으로 전체의 82.1%에 달한다. 수도권 인구가 전국의 52.6%임을 고려하면 조선족 분포가 수도권에 심하게 집중됨을 알 수 있다. 조선족은 특히 타국적 출신의 이주노동자에 비해 뛰어난 한국어 구사능력 및 내국인과 동일한 외모를 통해 숙박 및 음식점업, 서비스업 그리고 건설업에 취직하기 유리했으며, 이는 자연스레 해당 산업의 일자리가 풍부한 수도권에 자리 잡게 되는 계기가 됐다. 수도권은 한국사회에서 정치·경제·교육·문화의 중심지로서 자본과 기술 및 인력이 집중되어있는 곳이므로 양질의 일자리, 문화시설 등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비수도권 지역은 충남·경남·충북·울산 순으로 인구가 많은데, 이 지역들의 공통적으로 공업화가 상대적으로 많이 진행되어 공업관련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재한조선족을 비롯한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지만,⁵²⁾ 만 명 이상의 시·군·구 규모의 재한조선족 밀집지는 아직까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야하는데, 개신 후 한국으로 재입국하기에는 자가격리를 위한 숙소비용과 2주간 임금이 사라지기 때문에 재입국을 포기한다고 한다.

52) 설동훈, 문형진(2020) 상계서, pp. 68-69.

[표 9] 재한조선족 인구의 거주지역 분포, 2020년 11월

구분	인원(명)					구성비율(%)				
	전체 (A+B+C)	성인 (A+B)	중국국적 (A)	한국귀화 (B)	미성년자녀(C)	전체	성인	중국국적	한국귀화	미성년자녀
전국	674,258	632,729	541,337	91,392	41,529	100.0	100.0	100.0	100.0	100.0
서울특별시	210,537	201,958	173,721	28,237	8,579	31.2	31.9	32.1	30.9	20.7
부산광역시	6,964	5,935	4,206	1,729	1,029	1.0	0.9	0.8	1.9	2.5
대구광역시	5,262	4,442	3,402	1,040	820	0.8	0.7	0.6	1.1	2.0
인천광역시	46,007	42,110	33,580	8,530	3,897	6.8	6.7	6.2	9.3	9.4
광주광역시	3,654	3,070	2,370	700	584	0.5	0.5	0.4	0.8	1.4
대전광역시	3,510	3,055	2,371	684	455	0.5	0.5	0.4	0.7	1.1
울산광역시	10,854	10,162	8,989	1,173	692	1.6	1.6	1.7	1.3	1.7
제주특별자치시	1,608	1,469	1,236	233	139	0.2	0.2	0.2	0.3	0.3
경기도	297,530	281,574	245,114	36,460	15,956	44.1	44.5	45.3	39.9	38.4
강원도	4,311	3,425	2,376	1,049	886	0.6	0.5	0.4	1.1	2.1
충청북도	14,937	13,756	12,036	1,720	1,181	2.2	2.2	2.2	1.9	2.8
충청남도	28,730	26,993	24,040	2,953	1,737	4.3	4.3	4.4	3.2	4.2
전라북도	5,614	4,638	3,517	1,121	976	0.8	0.7	0.6	1.2	2.4
전라남도	6,048	4,922	3,714	1,208	1,126	0.9	0.8	0.7	1.3	2.7
경상북도	9,571	8,164	6,508	1,656	1,407	1.4	1.3	1.2	1.8	3.4
경상남도	14,753	13,201	11,124	2,077	1,552	2.2	2.1	2.1	2.3	3.7
제주특별자치도	4,368	3,855	3,033	822	513	0.6	0.6	0.6	0.9	1.2

(자료 : 행정안전부, 『2020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 2021. 저자 계산)

[표 10] 재한조선족 인구의 수도권 거주지역 분포(상위 10개 시군구), 2011-2020년 매 11월 (단위 :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서울특별시	219,509	247,036	225,201	235,645	262,545	212,349	210,689	219,130	215,325	210,537
영등포구	44,722	50,810	45,933	50,199	56,227	44,738	43,569	45,377	44,143	43,335
구로구	33,349	38,071	35,094	37,703	44,684	38,300	39,246	42,631	42,784	42,668
금천구	21,466	23,797	21,691	22,523	27,419	23,735	24,291	26,300	26,281	26,099
관악구	18,667	22,142	20,396	21,245	23,838	19,506	19,373	19,692	18,933	17,964
광진구	11,762	13,539	12,287	12,692	14,424	11,332	11,121	11,213	10,898	10,523
경기도	164,718	196,446	198,955	229,224	269,078	239,866	252,238	275,799	285,770	297,530
안산시	28,654	34,758	36,463	43,843	52,681	42,328	42,329	44,789	45,378	46,942
수원시	23,584	27,146	26,698	31,013	38,630	33,501	35,705	39,246	39,789	40,155
성남시	14,123	15,738	14,673	15,689	18,391	15,352	15,258	16,022	15,950	15,539
부천시	10,744	15,332	15,910	18,423	19,656	20,125	22,898	27,434	30,124	33,594
시흥시	9,887	14,762	17,536	23,864	29,099	26,597	29,216	33,319	35,178	37,699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 2011-2021. 귀화자·미성년자녀 포함)

한편 수도권 내부에서도 지역별 조선족 인구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서울은 매년 소폭 증감을 보이며 약 21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 내 조선족이 많이 거주하는 상위 5개 행정지역은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광진구로 광진구를 제외하면 모두 서울 남서부에 위치해 조선족 약 13만 명이 거주하는 차이나타운의 거대한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영등포구, 관악구, 광진구는 2015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구로구, 금천구는 여전히 수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는 기간 내에 2015년-2016년 구간을 제외하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 내 전통적인 밀집지로 알려진 안산시와 수원 시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최근 3년 사이에는 증감 없이 비교적 완만하다. 성남시 또한 10년 간 만5천명 대를 유지했다.

[표 11] 경기도 중국인(재한조선족+중국인) 추이(상위 7개 경기도 시), 2002-2020년 매 11월 (단위 : 명)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23,760	57,559	65,030	52,083	87,251	102,949	141,108	134,989	134,587	169,971
수원시	1,591	3,698	5,128	5,799	9,678	15,069	18,754	20,416	21,556	23,811
성남시	1,196	3,879	4,295	4,314	7,201	9,677	11,581	12,000	12,145	12,941
부천시	1,868	3,725	3,992	3,932	5,493	7,760	9,535	10,032	10,453	11,943
안산시	3,636	7,321	11,372	9,559	14,120	19,413	22,681	23,620	26,794	31,429
화성시	1,699	4,795	5,009	3,587	5,225	6,304	7,490	8,465	8,499	9,666
시흥시	1,638	4,477	5,253	3,783	5,178	7,002	8,132	8,469	8,499	12,151
오산시	208	765	819	906	1,351	1,966	2,643	2,954	3,417	4,072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155,374	169,963	194,268	204,486	195,989	191,847	205,717	203,993	182,819	170,030
수원시	21,489	23,499	27,395	29,502	28,757	28,646	31,036	30,167	26,020	3,129
성남시	11,393	11,352	13,103	13,626	12,806	12,091	12,884	12,255	10,092	8,899
부천시	11,203	12,266	14,120	15,006	15,100	15,755	18,672	19,798	18,827	18,504
안산시	29,939	34,210	37,952	39,220	36,505	34,174	35,764	35,015	32,027	29,599
화성시	7,798	8,289	9,705	10,314	9,833	9,854	10,314	10,458	9,622	8,928
시흥시	12,874	17,460	21,187	22,752	21,779	21,944	24,172	24,098	22,132	21,394
오산시	4,013	4,898	6,194	6,822	6,664	6,831	7,666	7,648	7,140	6,6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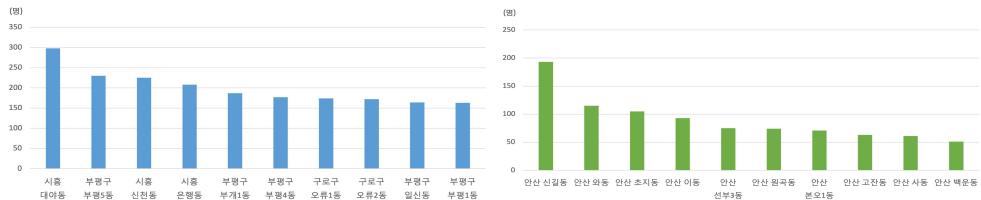
(자료 : 경기데이터드림, 『시군별 국적별 외국인 현황』, 2002-2021. 귀화자, 미성년자녀 제외)

소위 공업벨트 지역인 경기도 서부와 남부 일대는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공단에 취직한 재한조선족들이 증가했으며, 생활편의를 위해 서울 남서부권으로 왕래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멀기 때문에 그 중 가까운 안산시와 수원시를 중심으로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남동부에 위치한 성남시는 수정구 태평동·수진동을 중심으로 밀집지가 형성되었지만, 광진구 자양동 밀집지와 마찬가지로 성장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팔목할만한 지역은 본 연구에서 ‘신밀집지’로 심층 분석한 부천시와 시흥시로 10년 간 인구 규모가 3배 이상으로 성장한 만큼 재한조선족들 사이에서는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여겨진다. 두 지역은 행정구역상 경계를 맞대고 있는 이웃도시로 언뜻 보면 같은 생활·문화권을 공유하는 것 같지만 조선족 인구유입은 서로 다른 곳을 통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부천시 대산동 일대와 시흥시 정왕동 일대는 직선거리로 약 15.5km에 차로는 30분, 대중교통으로는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상호 접근성이 좋지 않다.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에서 제공하는 ‘국내이동통계 자료-인구관련연간자료’에 따르면 부천시 대산동·심곡동·소사본동으로 전입한 타 행정지역은 시흥시 북부인 대야동, 신천동 일대,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대 그리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순으로 많았고, 시흥시 정왕동으로 전입한 타 행정지역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일대가 많아 주거지 이동에 있어 ‘지리적으로 얼마나 인접한가’가 작용하는 비중이 큼을 알 수 있다. 또한 통계청의 다른 자료인 ‘2%인구사항’에 따르면, 타 지역에서 부천시로 이동한 외국인 64명 중 39명이 서울, 8명이 경기에서 왔다고 응답한 반면 시흥시는 44명 중 23명이 경기, 9명이 서울에서 왔다고 응답한 점을 미루어보아⁵³⁾ 조선족 또한 주거지 이동 시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을 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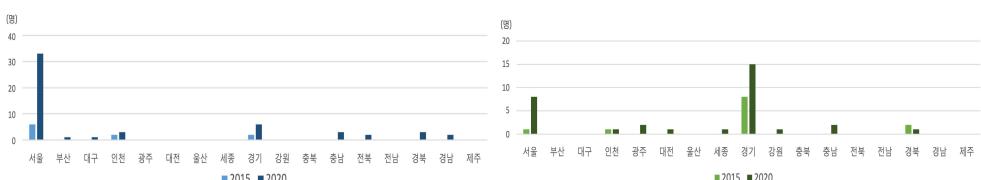
53) 부천시와 시흥시 체류 외국인이 모두 조선족은 아니지만 부천시 등록외국인의 약 77.1%(2022년 부천시 등록외국인 23,890명 중 중국국적자 18,438명)가, 시흥시 등록외국인의 약 69.4%(2019년 시흥시 등록외국인 34,697명 중 중국국적자 24,098명)가 중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소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그림 8] 부천시로 전입한 전출지역 상위10개 [그림 9] 시흥시로 전입한 전출지역 상위10개



(자료 :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국내이동통계 : 인구관련연간자료 2019-2021)

[그림 10] 부천 체류외국인 이전거주지(1+5년) [그림 11] 시흥 체류외국인 이전거주지(1+5년)



(자료 :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국내이동통계 : 2%인구사항 2015, 2020)

이로써 서울 거주 재한조선족들 인구는 감소하고 구밀집지 또한 확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반면, 경기도 재한조선족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밀집지
들 또한 새로운 곳들을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수치적으로 확인했다.
즉 재한조선족 인구의 무게중심이 서울에서 경기도로, 구밀집지에서 신밀집지
로 이동하는 경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추가로 이들의 이동에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기존 거주지와 지리적으로 인접함이 중요하게 작용했고, 그 중에
서도 자신들과 같은 입장인 동포들이 일찍이 정착한 지역을 택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2. 체류자격별 동향

지역별 재한조선족 인구의 무게중심이 서울에서 경기도로 옮겨가고 있다면
이동의 주체는 어떠한 특성을 지니는가. 체류 외국인으로서 그들에게 주어진
지위는 국적과 인종을 넘어 ‘체류자격’으로 구분되어진다. 같은 조선족이어도
체류자격에 따라 사회적 위치에 차등이 생기는 것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통계는 크게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데, 두 곳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값이 상이하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대상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기준일과 공표일이 다르기 때문이다. 내·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1975년부터 집계를 시작한 법무부 출입국의 『외국인정책 통계연보』는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한다. 반면 각 지자체 외국인주민의 거주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6년부터 집계를 시작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은 ‘기준일 전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한다. 즉 두 자료의 가장 큰 차이는 행정안전부 자료는 체류기간 3개월 미만의 ‘실제 단기체류외국인’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분류하는 항목의 기준 또한 다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기타외국인’, ‘외국인주민 자녀’ 등으로 분류했으며 법무부에서는 ‘장·단기 체류자격(A-1~T-1)’별로 분류했다.

본 연구에서는 두 기관의 자료를 토대로 재한조선족의 체류기간을 편의상 크게 ‘단기체류’, ‘중기체류’, ‘장기체류’ 세 단계로 분류했다.⁵⁴⁾ ‘단기체류’는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연보』의 체류기간 3개월 미만 외국인이며, ‘중기체류’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의 등록외국인이자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로 조선족 중에는 방문취업(H-2)과 방문동거(F-1) 자격자가 이에 속한다. ‘장기체류’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 동포 중 거소신고자들만 집계했다. 중국국적자인 재한조선족 사람이 재외동포(F-4) 비자를 받으려면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재한조선족 이주노동자들이 택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다. ①방문취업(H-2)자격 소지자로서 동일사업장⁵⁵⁾에서 2년 이상 근무하거나(F-4-24), ②기능사 이상의 국내공인 기술자격 중 소지자(F-4-27)인 경우 그리고 ③나이가 만 60세 이상일 경우다. 따라서 일

54)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모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을 ‘장기체류’로 분류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중기체류(등록외국인), 장기체류(거소신고자)로 분류하였다.

55) 육아도우미,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등으로 단순노동, 도박, 유흥업, 풍속영업 종사자들은 불가하다.

반적으로 방문취업(H-2)자격자보다 재외동포(F-4)자격자가 한국에 오래 살았다고 볼 수 있기에 재외동포(F-4)자격자를 ‘장기체류’외국인으로 분류했다.

[그림 12] 체류자격에 따른 재한조선족 체류기간 분류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저자 계산)

재한조선족의 정착기간이 길어지고 장기체류자가 증가하자 정부에서 자격분류를 세분화하기 시작했다. [그림13]에서, 중국국적의 재한조선족의 체류자격별 분포를 살펴보면 편의상 크게 ①초기 : 1992-2002년, ②중기 : 2003-2009년, ③후기 : 2010-2021년의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초기인 1992-2002년 사이에는 ‘단기체류자’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⁵⁶⁾ 그렇지만 그 후 등록외국인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2002년에는 재한조선족 전체 인구 118,300명 중 단기체류자 59.2%(70,007명), 등록외국인(중·장기체류자) 40.8%(48,293명)으로 바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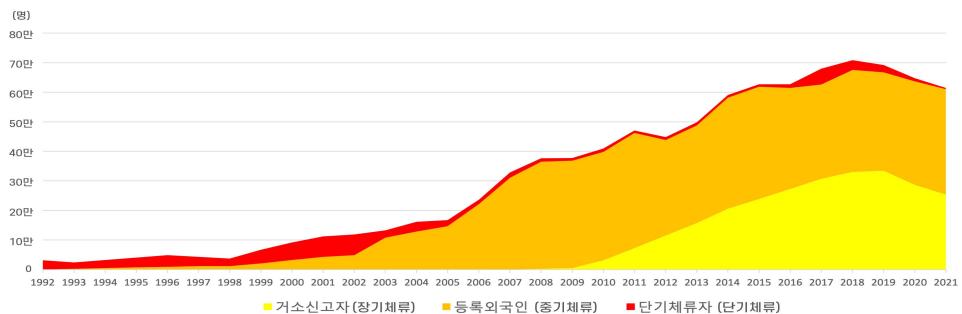
중기인 2003-2009년에는 ‘외국인 고용허가제’(2003년)와 ‘재외동포법 개정’(2004년), ‘방문취업제’(2007년) 실시 등으로 조선족의 국내 취업과 체류 문호가 대폭 확대되었다. 이 시기 단기체류자 수는 대폭 줄고 중·장기체류자가 급증했다. 2003년 중·장기체류자 수는 108,283명(81.8%), 단기체류자 수는 24,002명(18.2%)으로 변했다. 이는 바로 2003년 국회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데 이어, 한국정부가 불법체류 외국인의 체류자격 합법화 조치를 시행하였기 때문이

56) 한·중수교가 이루어진 1992년 국내 재한 조선족 수는 31,622명이었는데, 단기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이 98.7%(31,203명), 장기체류자격을 지닌 사람은 1.3%(419명)에 불과하였다.

다. 또한 2005-2006년 ‘불법체류 동포귀국지원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단기체류자격을 소지한 불법체류자의 자진출국을 유도함과 동시에 등록외국인으로 체류자격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 2007년에는 외국국적동포 방문취업제를 시행하여, 조선족 동포가 국내에서 저숙련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을 허용하였다.⁵⁷⁾

후기인 2010-2021년에는 조선족에게 ‘재외동포(F-4)’체류자격 발급이 확대되었다. 2007년까지 조선족은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거의 발급받기 어려웠지만, 2008년 1월 재외동포법 개정을 통해 발급건수가 증가하였다. 특히 ‘방문취업(H-2)’에서 ‘재외동포(F-4)’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사람들이 꾸준히 증가하였고, 한국정부는 방문취업(H-2)자격자 총인원 30만3천 명을 유지하기 위하여⁵⁸⁾ 그 빈자리를 채우는 정책을 운용하였고 그 결과 등록외국인(중기체류자)은 일정하고 거소신고자(장기체류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그림 13] 체류자격별 조선족 인구 수(1992-2021)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저자 계산)

중기체류자가 일정하고 장기체류자가 증가하는 현상은 조선족 인구의 지역 분포에도 영향을 주었다. [표12]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나타난 재한조선족 등록외국인(중·장기체류자)의 지난 10년 동안의 수도권 거주지역 분포를, [표13]는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연보』에 나타난 재한조선족 거소신고자(장기체류자)의 지난 10년 동안의 수도권 거주지역 분포를 보여준다.

57) 설동훈·문형진(2020) 상계서, p. 53.

58) 월드코리안(2011), “내년도 방문취업동포 30만3천명 유지”, (최종 열람일 : 2022년 10월1일)

[표 12] 재한조선족 등록외국인(중기체류자)의 거주지역 분포(상위 10개 시·군·구), 매 11월 (단위 : 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서울특별시	163,945	183,297	207,711	183,617	235,645	262,545	177,339	174,895	183,148	179,166
영등포구	32,931	37,652	43,394	38,364	50,199	56,227	39,120	38,086	40,050	38,897
구로구	25,356	28,080	32,553	29,052	37,703	44,684	32,997	33,674	36,805	36,694
금천구	16,227	18,238	20,977	18,709	22,523	27,419	20,590	20,902	22,802	22,637
관악구	14,335	15,745	18,277	16,348	21,245	23,838	16,516	16,386	16,736	15,970
광진구	8,813	9,703	11,381	10,117	12,692	14,424	9,741	9,507	9,662	9,373
경기도	122,442	136,194	161,771	161,534	189,109	269,078	199,552	209,138	229,502	236,928
안산시	20,124	23,181	29,867	31,119	37,833	52,681	36,203	36,063	38,348	38,696
수원시	17,452	19,030	22,268	21,441	25,480	38,630	28,915	30,772	34,031	34,416
성남시	10,695	11,430	13,048	11,874	12,741	18,391	12,900	12,864	13,658	13,540
부천시	8,328	8,808	11,114	11,403	13,673	19,656	15,978	18,101	21,943	24,154
시흥시	7,024	8,272	12,019	14,652	20,572	29,099	23,406	25,775	29,474	30,919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 2010~2019. 귀화자, 미성년자 제외)

[표 13] 재한조선족 거소신고자(장기체류자)의 거주지역 분포(상위 10개 시·군·구), 매 12월 (단위 : 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서울특별시	13,171	29,304	42,722	60,232	79,042	90,288	98,649	108,114	111,914	112,568
영등포구	2,252	5,262	7,890	11,827	16,112	18,907	20,467	22,172	22,726	22,857
구로구	1,698	4,166	6,199	9,253	12,601	14,982	17,193	19,438	20,742	21,282
금천구	1,061	2,514	4,013	5,833	7,885	9,301	10,639	12,319	13,171	13,505
관악구	1,269	2,625	3,832	5,565	7,499	8,705	9,789	10,599	10,754	10,445
광진구	807	1,616	2,380	3,497	4,584	5,105	5,477	6,015	6,142	6,152
경기도	10,715	25,453	43,005	59,373	76,997	88,994	105,024	122,912	137,285	147,287
안산시	1,809	4,649	7,817	10,985	14,054	15,730	17,458	19,667	21,125	22,203
수원시	1,310	2,605	4,457	7,004	10,003	11,988	14,736	17,458	19,528	20,416
성남시	723	1,755	2,700	3,920	5,184	5,905	6,431	7,236	7,529	7,757
부천시	564	1,553	2,736	4,305	6,044	7,542	9,472	11,852	14,257	16,078
시흥시	854	2,326	4,355	6,333	8,459	10,199	12,470	15,306	17,859	19,667

(자료 : 법무부, 『외국국적동포 지역별 현황』, 2010~2019.)

서울특별시의 등록외국인(중기체류자)은 2010년 16만 명대에서 2015년 26만 명대로 정점을 찍고 다시 감소해 2019년 17만 명대로 줄어들었다. 2015년과 2019년 사이 서울 남서부 일대의 감소율은 약 24.9%로 서울특별시의 감소율인 약 31.7% 보다 적다. 이는 재한조선족 중기체류자 중 다수가 서울 전역에서 구밀집지인 서울

남서부 또는 경기도로 이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울 남서부 일대의 경우, 일자리 정보가 풍부하고 조선족 간의 네트워킹이 잘 구축되어있어 단기·중기체류자들이 구직을 위해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특별시 거소신고자(장기체류자) 인구 수 역시 2010년부터 집계를 시작한 이후로 계속 증가하다가 2017년경부터 2021년까지 11만 명대를 유지했고 서울 남서부 일대 역시 똑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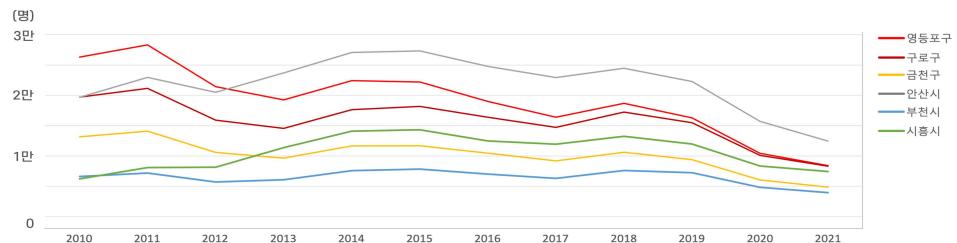
한편 경기도의 등록외국인(중기체류자)은 2012년 16만1천 명대에서 2021년 24만2천 명대로 약 8만 명이 증가했으며, 거소신고자(장기체류자)는 2012년 4만3천 명대에서 16만1천 명대로 약 4배 증가했다. 경기도의 장기체류자는 2016년부터 큰 변화 없는 서울과는 달리 해마다 1만 명씩 증가하고 있어 재한조선족 사회에서 장기체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부천시와 시흥시는 2010년부터 2019년 까지 각각 등록외국인(중기체류자) 인구가 약 2.9배, 4.4배로 증가해 같은 기간 전국의 모든 재한조선족 밀집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며 급성장했다. 또한 두 지역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거소신고자(장기체류자) 인구 역시 각각 약 28배, 23배로 증가했고 2019년 12월 기준 지역별 체류 조선족 인구대비 장기체류자 비율이 각각 66.6%와 63.6%로 전국의 모든 재한조선족 밀집지 중 가장 높은 장기체류자 비율을 차지했다. 이를 요약하면 서울 재한조선족 인구는 감소하고 경기도는 증가한다. 모든 밀집지는 장기체류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신밀집지인 부천과 시흥이 가장 높다. 구밀집지는 정착초기에 필요한 정보와 생활 인프라 등을 갖추고 있기에 단기·중기체류자들이 지속 유입되어 장기체류자 비율이 낮다.

[표 14] 재한조선족 체류 조선족 인구대비 장기체류자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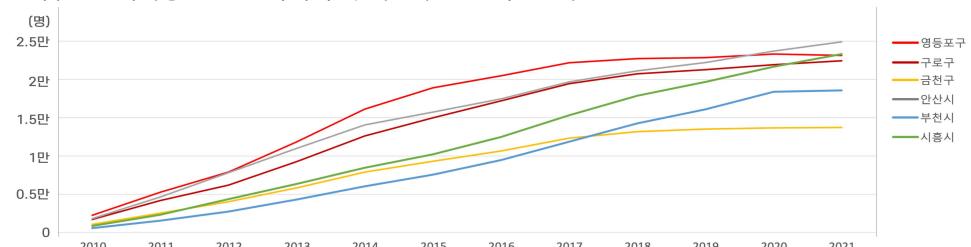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서울남서부	7.1	14.6	19.0	31.7	33.5	34.1	53.2	59.2	57.9	59.6
안산시	9.0	20.1	26.2	35.3	37.1	29.9	48.2	54.5	55.1	57.4
부천시	6.8	17.6	24.6	37.8	44.2	38.4	59.3	65.5	65.0	66.6
시흥시	12.2	28.1	36.2	43.2	41.1	35.0	53.3	59.4	60.6	63.6

(자료 : 복무부, 『외국국적동포 지역별 현황』, 2010–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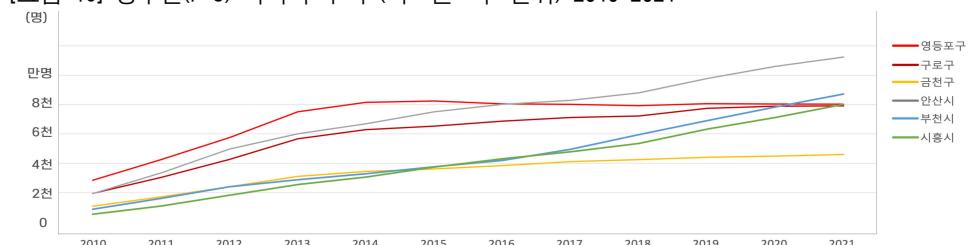
[그림 14] 방문취업(H-2) 자격자 추이 (시·군·구 단위) 2010-2021



[그림 15] 재외동포(F-4) 자격자 추이 (시·군·구 단위) 2010-2021



[그림 16] 영주권(F-5) 자격자 추이 (시·군·구 단위) 2010-2021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저자 계산

체류기간이 아닌 세부적인 체류자격별로 살펴보면 더욱 명료하다. 먼저 방문취업(H-2) 자격자는 모든 지역에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재중조선족의 노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때문에 한국 내 숫자가 적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재외동포(F-4)자격자는 서울 남서부 일대는 기울기가 완만해진 반면, 경기도 안산, 부천, 시흥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영주권(F-5)자격자는 이 경향성이 더욱 짙게 나타났다. 재한조선족 인구 수가 적은 편에 속하는 부천과 시흥이 서울 남서부 일대를 넘어선 것이다. 이를 통해 재한조선족 중 체류기간이 긴 사람들이 부천시와 시흥시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체류자격에 이어 신밀집지에서 조선족 장기체류자 수가 증가한다는 경향성은 다른 자료에서도 찾을 수 있다. 바로 ‘미성년자녀’와 ‘귀화자’의 지역별 분포다. 한국 국적이 아닌 재한조선족의 미성년자녀는 주로 ‘자녀초청’으로 인한 ‘방문동거(F-1)’사증을 가진다. 방문동거(F-1)사증 역시 부모의 체류자격에 따라 세부분류된다. 방문취업(H-2)자격자의 미성년 자녀는 F-1-11비자로 90일의 체류기간을 부여 받으며, 재외동포(F-4)자격자의 미성년 자녀는 F-1-9비자로 1년의 체류기간을, 그리고 영주권(F-5)자격자의 미성년 자녀는 F-5-4비자로 부모처럼 영주권을 가져 체류기간의 제한은 없다. 2011년부터 2021년 사이 구밀집지인 서울 남서부일대의 미성년자녀 인구는 3,798명에서 3,412명으로 소폭 감소했고, 경기 안산시는 1,797명에서 2,025명으로 소폭 상승했다. 반면 신밀집지인 부천시와 시흥시는 각각 708명에서 1,665명, 585명에서 1,586명으로 약 2.3배와 2.7배로 증가했다. 미성년자녀와 같이 산다는 것은 1인가구가 아닌 최소 2인에서 3인가구 이상임을 의미하며 체류기간이 긴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으며 신밀집지인 부천시와 시흥시가 전반적으로 가족 단위 재한조선족이 많이 몰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5] 재한조선족 미성년자녀 거주지역 분포(상위 10개 시군구), 매 11월 (단위 : 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서울특별시	9,562	10,239	11,202	11,134	9,595	8,573	8,473	8,584	8,727	8,579	8,280
영등포구	1,405	1,408	1,480	1,411	1,167	1,048	949	940	970	982	945
구로구	1,091	1,045	1,253	1,262	1,351	1,084	1,034	1,090	1,169	1,172	1,154
금천구	608	627	711	607	665	625	649	689	741	737	757
관악구	694	830	908	972	790	619	580	587	609	591	556
광진구	487	575	595	587	507	379	374	356	362	339	322
경기도	10,550	12,669	13,768	14,939	14,145	13,063	13,560	14,555	15,349	15,956	16,312
안산시	1,797	1,591	1,697	2,044	2490	1,812	1,751	1,831	1,927	2,016	2,025
수원시	1,343	1,415	1,567	1,696	1,947	1,289	1,324	1,410	1,467	1,495	1,528
성남시	877	889	953	1,003	931	677	642	617	632	603	583
부천시	708	1,359	1,494	1,612	853	1,157	1,242	1,386	1,487	1,578	1,665
시흥시	585	955	1,005	1,121	1,080	1,039	1,092	1,237	1,382	1,499	1,586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 2011-2021.)

상대적으로 체류기간이 가장 길고 등록외국인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는 귀화자 역시 미성년자녀 분포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국적법 제5조에 따르면 일반귀화 요건의 대표적인 사항은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과 ‘대한 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즉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F-5)소지자만 신청이 가능한 셈이며 본 절에서 장기체류자로 분류한 재외동포(F-4) 자격자보다 훨씬 오래 거주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2011년부터 2021년 사이 구밀집지인 서울 남서부 일대의 귀화자 인구는 14,691명에서 15,249명으로 소폭 상승했으며, 경기 안산시는 3,676명에서 5,366명으로 약 45%가 증가했다. 반면 신밀집지인 부천시와 시흥시는 각각 1,228명에서 5,738명, 1,030명에서 3,528명으로 약 4.7배와 3.4배로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귀화자는 국어 능력 및 한국사회의 문화와 풍습에 대한 이해가 높고, 각종 사업과 부동산 취득에 있어 자유롭기 때문에 조선족 밀집지에 귀속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재한조선족 사이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부천시와 시흥시에 유난히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는 것은 분명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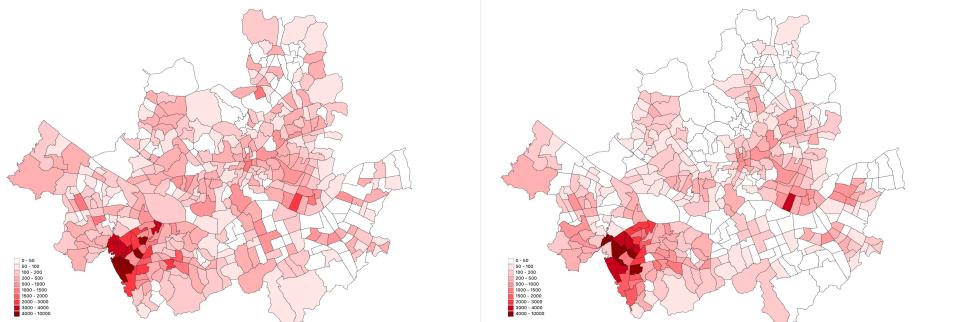
[표 16] 재한조선족 귀화자 거주지역 분포(상위 10개 시군구), 매 11월 (단위 : 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서울특별시	26,650	29,086	30,382	32,171	29,730	26,437	27,321	27,398	27,432	28,237	28,464
영등포구	5,665	6,008	6,089	7,699	6,376	4,570	4,534	4,387	4,276	4,452	4,434
구로구	4,178	4,473	4,789	4,852	5,078	4,219	4,538	4,736	4,921	5,167	5,350
금천구	2,620	2,193	2,271	1,977	2,678	2,520	2,740	2,809	2,903	3,051	3,091
관악구	2,228	3,035	3,140	3,179	2,864	2,371	2,407	2,369	2,354	2,373	2,374
광진구	1,572	1,583	1,575	1,557	1,547	1,212	1,240	1,195	1,163	1,179	1,146
경기도	17,974	22,006	23,653	25,176	26,397	27,251	29,540	31,742	33,493	36,460	38,870
안산시	3,676	3,300	3,647	3,966	5,643	4,313	4,515	4,610	4,755	5,113	5,366
수원시	3,211	3,463	3,690	3,837	4,851	3,297	3,609	3,805	3,906	4,104	4,289
성남시	1,816	1,801	1,846	1,945	1,997	1,775	1,752	1,747	1,778	1,835	1,863
부천시	1,228	2,859	3,013	3,138	1,669	2,990	3,555	4,105	4,483	5,207	5,738
시흥시	1,030	1,788	1,879	2,171	2,068	2,152	2,349	2,608	2,877	3,245	3,528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 2011-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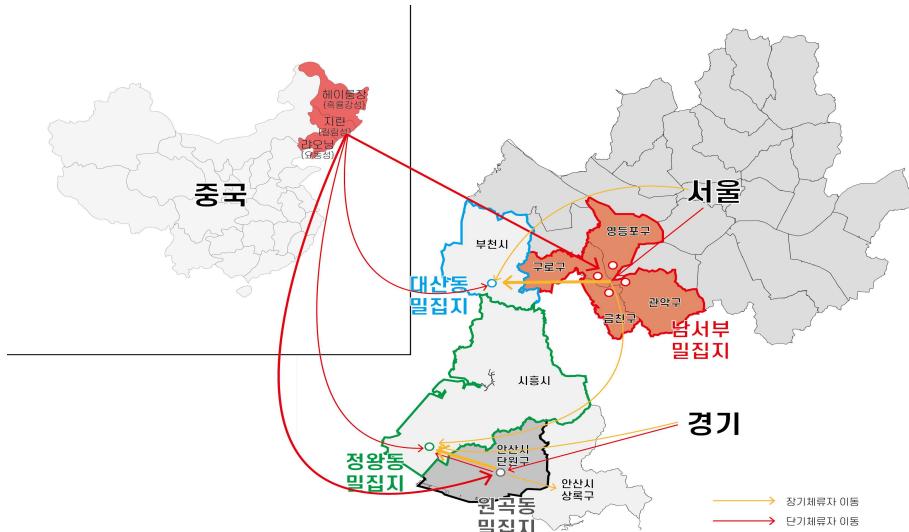
본 절에서는 최근 10년 동안의 수도권 거주 재한조선족의 이동을 지역별, 체류자격별로 살펴보았다. 먼저 국내에 있는 재한조선족 인구의 증가율은 서서히 줄어들어 앞으로도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부천시와 시흥시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또한 구밀집지는 체류기간이 짧은 사람들이, 신밀집지는 체류기간이 긴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림 17] 서울특별시 행정동별 재한조선족 인구 분포 변화 (좌 2007년, 우 2016년)



(자료 : 저자 직접 작성)

[그림 18] 수도권 내 재한조선족 주요 밀집지와 지역이동 다이어그램



(자료 : 저자 직접 작성)

2절. 구밀집지 이탈 요인

앞서 살펴봤듯이 재한조선족 ‘구밀집지’들은 최근 들어 그 규모는 유지하고 있으나 확장세는 둔화되었으며, ‘신밀집지’들이 성장하고 있다. 구밀집지 인구 구성의 특성은 전체 인구 규모는 크게 변화가 없지만 비교적 체류기간이 긴 재한조선족의 비율이 낮아지고 짧은 재한조선족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신밀집지는 전체 인구 숫자가 증가하며 그 중에서도 체류기간이 긴 재한조선족의 비율이 높다. 본 절에서는 장기체류 조선족 동포가 구밀집지 를 이탈하는 요인을 ‘지역 재개발과 주거불안정성’ 그리고 ‘사회적 특성의 변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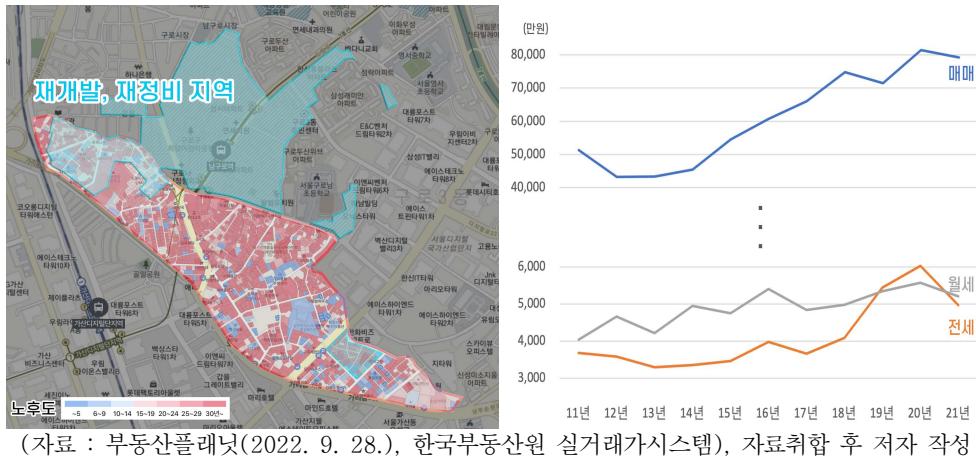
1. 지역 재개발과 주거불안정성

본 연구에서 구밀집지로 분류한 서울 남서부 일대와 안산시 원곡동 일대는 형성된 지 40년 이상 된 낙후지역이다. 이 중 가리봉동은 1965년 구로공업단지 배후주거지로 조성된 만큼 오래 되었고, 2003년 ‘균형발전촉진지구’의 지정으로 물리적 주거 환경의 개선이 불가능해지자 지역 노후화가 가속되었다. 집 주인들이 재개발사업에 의한 철거를 이유로 부실화된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을 수리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쪽방, 반지하, 옥탑방 등에는 사람이 살지 않게 돼 공실률이 높아졌고 이는 비단 건축물의 노후화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화 현상을 낳았다.⁵⁹⁾ 2000년대 중반, 지역 조선족들은 주거 환경의 질이 저하되자 가리봉동보다 비교적 나중에 지어지고 임대료가 크게 차이나지 않은 대림2동 같은 연접지로 이동했다.(1차 분화) 재한조선족들의 한국 정착 기간이 장기화 되고 돈이 모이자 주거환경의 물리적 품질을 고려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가리봉동의 재개발사업이 번번이 추진되고 취소되는 상황을 직접 지켜보면서 안정적인 주거를 추구하게 되었다.

59) 지충남(2014), 상계서, pp.28-29.

2021년 기준 가리봉동의 건축물 노후도는 84.7%로⁶⁰⁾ 본 연구의 구밀집지 대상지 중 가장 높은 노후도를 가진다. 가리봉동은 건축물의 약 80%이상이 단독·다가구 주택으로 2014년 재정비지구 해제 후 전·월세 임대료는 10년간 20%가량 상승했지만 매매가는 5억 원대에서 8억 원대로 약 60% 가량 상승했다. 남구로역 일대(구로2·4동)에 계획된 공공재개발과 구로3동의 지식산업센터 입지 등이 부동산 매매가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이는 가리봉동의 재한조선족들로 하여금 주거불안정성을 촉발하였고 장기체류자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꾀하고 있다.

[그림19] 가리봉동 노후도와 재정비지역 현황(2022) [그림20]가리봉동 단독·다가구주택 실거래가(201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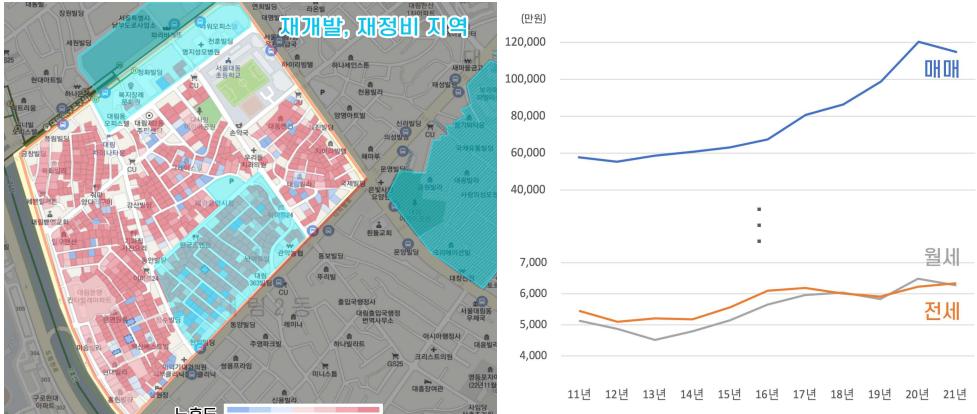


(자료 : 부동산플래닛(2022. 9. 28.), 한국부동산원 실거래가시스템), 자료취합 후 저자 작성

가리봉동의 후속 밀집지인 대림2동은 구밀집지 중 건축년도가 비교적 짧아 보이지만 2021년 기준 건축물 노후도 81.2%로 양질의 물리적 주거 환경을 가진다고 보긴 어렵다. 대림동 밀집지는 부동산과 관련한 경향성은 가리봉동과 유사한 점이 많다. 대림2동 건축물의 약 85% 이상이 단독·다가구 주택으로 지난 10년간 전·월세 임대료가 20% 가량 상승했지만 매매가는 6억 원대에서 12억 원대로 100% 가량 상승했다. 이는 대림2·3동에 걸친 재건축·재정비사업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으며, 장기체류자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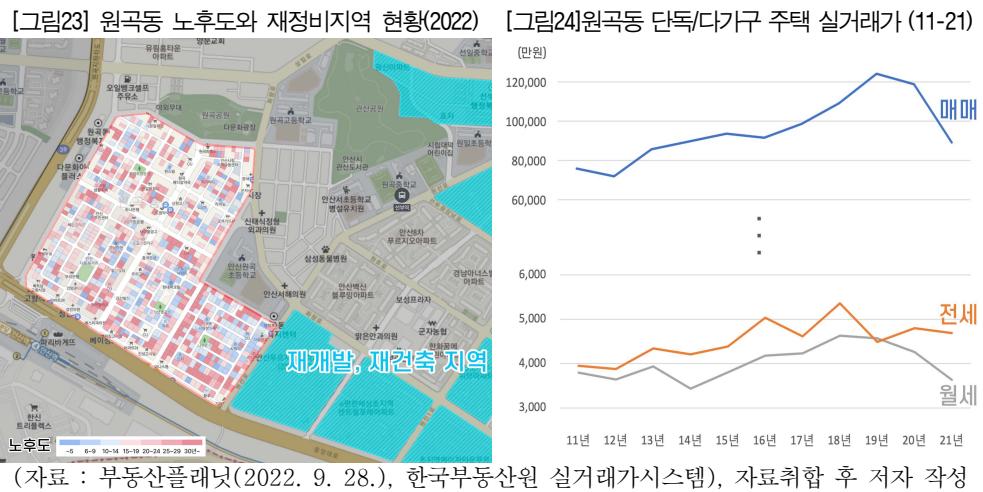
60) 건축물 노후도는 준공 30년 이상 건축물 비율을 기준으로 삼았다. (출처 : 서울시 (2021))

[그림21] 대림2동 노후도와 재정비지역 현황(2022) [그림22]대림2동 단독/다가구 주택 실거래가 (11-21)



(자료 : 부동산플래닛(2022. 9. 28.), 한국부동산원 실거래가시스템), 자료취합 후 저자 작성

안산시 원곡동 밀집지 역시 가리봉동과 대림동 등 서울 남서부 일대 밀집지와 같은 고충을 겪고 있다. 원곡동 건축물의 노후도는 약 55.5%로 서울 남서부 일대보다는 물리적 환경은 나은 편이지만 수인분당선, 서해선, GTX-C 등 의 신규 지하철 노선 설치로 인근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이 일어나며 부동산 매매가가 요동쳤다. 지난 10년간 단독·다가구 주택의 전·월세 임대료는 10% 가량 상승했지만 매매가는 8억 원대에서 12억 원대로 50% 가량 상승했다.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던 재한조선족 주민 입장에서는 주거불안정성을 느끼고 자가주택에 대한 열망이 커졌을 것이며, 단기체류자들은 임대료가 크게 상승하지 않아 계속 체류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사회적 특성의 변화

1) 가족구성원의 증가

구밀집지 거주 재한조선족들이 지역을 떠나게 되는 이유는 비단 지역 재개발과 주거불안정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회적 특성의 변화도 있다. 재한조선족의 정착 역사가 벌써 30년이 된 만큼 그들의 생애주기 역시 다음 단계로 이동했다. 그 중 가장 괄목할만한 사항은 ‘가족구성원의 증가’다. 이주 초기는 코리안드림을 위해 혈혈단신으로 건너온 경우가 대다수였으며 당시 주거비용을 아끼려고 친척과 친구 등 여럿이 같이 사는 경우도 많았다. 이후 이들은 중국에 있던 배우자와 다른 가족을 초청하거나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과 가정을 이루는 등 가족단위의 재한조선족이 늘었다. 실제로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는 재한조선족 비율은 2013년 65.7%에서 2019년 78.8%로 증가했으며, 마찬가지로 가족가구 2012년 68.3%에서 2016년 72.2%로 증가했다. 가족가구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 비율 역시 높아졌으며 가구당 가족구성원 숫자도 증가하게 되었다.

[표 17] 전국 만 18세 이상 재한조선족의 혼인상태 및 자녀동거여부 2012-2019 (단위 : %)

구분	2012 (N=2209)	2013 (N=2516)	2014 (N=2695)	2015 (N=3234)	2016 (N=3228)	2017 (N=3119)	2018 (N=4170)	2019 (N=4602)
혼인상태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배우자 있음	78.7	77.9	72.8	74.6	73.6	71.9	71.7	70.2
배우자 없음	21.3	22.1	27.2	25.4	26.4	28.1	28.3	29.8
배우자 거주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한국 내 같은 곳	-	65.7	65.8	67.4	69.2	76.9	77.7	78.8
한국 내 다른 곳	-	6.3	6.9	5.8	5.5	3.3	4.4	2.6
한국 외	-	27.9	27.3	26.8	25.3	19.9	17.9	18.6
자녀 거주지	-	-	-	-	-	100.0	100.0	100.0
자녀 모두 한국	-	-	-	-	-	50.8	53.4	54.7
자녀 일부 한국	-	-	-	-	-	11.2	10.0	10.4
자녀 모두 외국	-	-	-	-	-	38.0	26.6	34.9

*본 자료는 2016년 외국인고용조사에서 2017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로 변경되면서 집계항목이 다수 변경됨

(자료 :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2012-2019), 저자계산 및 작성

[표 18] 전국 만 18세 이상 재한조선족의 가구유형 2012-2019 (단위 : %)

구분	2012 (N=2209)	2013 (N=2516)	2014 (N=2695)	2015 (N=3234)	2016 (N=3228)	구분	2017 (N=3119)	2018 (N=4170)	2019 (N=4602)
가구유형	100.0	100.0	100.0	100.0	100.0	가구인수	100.0	100.0	100.0
1인가구	19.4	19.5	19.1	19.2	18.6	1인	16.1	18.0	16.8
가족가구	68.3	69.3	68.3	70.3	72.2	2인	37.5	35.2	36.5
기타가구	12.3	11.2	12.5	10.4	9.2	3인이상	46.3	44.8	46.7

*본 자료는 2016년 외국인고용조사에서 2017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로 변경되면서 집계항목이 다수 변경됨

(자료 :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2012-2019), 저자계산 및 작성

[표 19] 전국 만 18세 이상 재한조선족의 거처종류 및 점유형태 2012-2019 (단위 : %)

구분	2012 (N=2209)	2013 (N=2516)	2014 (N=2695)	2015 (N=3234)	2016 (N=3228)	2017 (N=3119)	2018 (N=4170)	2019 (N=4602)	2020 (N=6216)	2021 (N=6467)
거처종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일반주택	75.3	77.1	75.3	77.8	78.4	79.2	76.0	75.1	72.8	72.7
아파트	11.2	11.4	11.4	10.6	12.5	12.9	14.4	16.5	18.1	18.8
기숙사	11.5	9.5	10.5	9.3	6.4	4.9	3.3	2.7	2.4	2.2
기타	2.0	2.0	2.9	2.2	2.7	3.0	6.4	5.7	6.7	6.2
점유형태	-	-	-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기집(자기)	-	-	-	-	9.6	9.7	12.1	15.0	17.1	18.8
전월세(임대)	-	-	-	-	79.5	74.7	77.8	74.6	73.9	72.8
무상	-	-	-	-	10.9	15.5	10.1	10.4	9.1	8.5

*본 자료는 2016년 외국인고용조사에서 2017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로 변경되면서 집계항목이 다수 변경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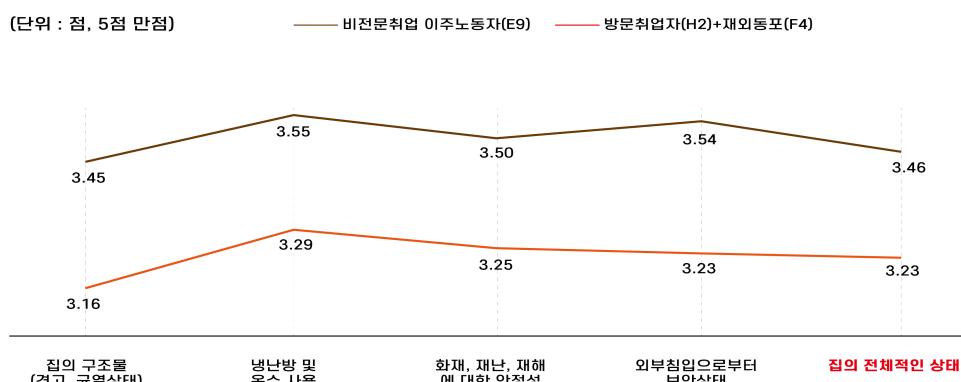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2012-2019), 저자계산 및 작성

2) 주거환경 선호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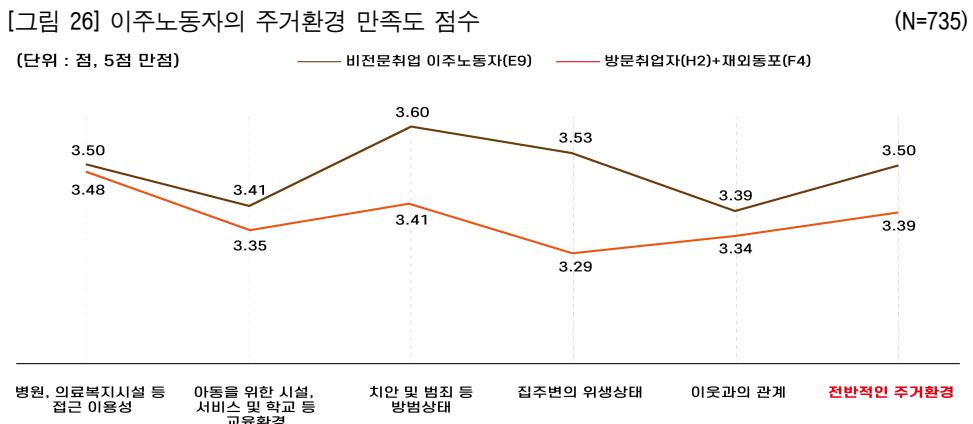
재한조선족의 정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생애주기 상 가족구성원이 증가하자 필요한 주거면적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자연스레 거주하는 주택유형도 ‘면적이 넓은 집’을 선호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지난 10년간 재한조선족 중 기숙사 거주자가 11.5%에서 2.2%로 대폭 감소한 것을 보면 더 넓은 주택 유형으로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표19].

재한조선족의 거주환경 변화는 면적뿐만 아니라 ‘쾌적성’ 선호에도 있다. 동기간 일반주택 거주자가 77.1%에서 72.7%로 감소하였으며, 아파트거주자는 11.4%에서 18.8%로 증가한 점을 보면 단지로서 비교적 관리가 잘된 아파트를 선호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자료에 따르면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진 재한조선족 사람들이 ‘평균 주거만족도 [그림25]’와 ‘평균 주거환경만족도[그림26]’조사에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의 이주노동자들보다 모든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현실적으로 주거환경이 더 열악한 비전문취업(E9) 외국인들보다 낮다는 점을 미루어보아 재한조선족은 현재 주거환경이 불만족스러운 편이며, 응당 더 쾌적한 주거환경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25] 이주노동자의 주거만족도 점수 (N=735)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외국인근로자 실태조사), 저자 재구성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외국인근로자 실태조사), 저자 재구성

주거환경의 선호도에는 ‘주거안정성’도 포함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7년 재한조선족의 자가 보유비율은 9.6%에서 2021년 18.8%로 약 2배 증가하였으며, 동기간 전월세 임대 비율은 79.5%에서 72.8%로 감소했다[표19]. 자가 보유 비율이 상당히 높아진 것은 역시 지역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주거불안정성’이 축발되었고, 체류기간이 장기화되면서 그동안 축적한 재산과 대한민국의 부동산대출 제도를 통해 이를 해결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

정착기간이 장기화됨으로써 재한조선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도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여전히 대다수가 피고용인으로서 각종 산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재한조선족 중 자영업자의 비율은 2017년 2.92%에서 2021년 5.56%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특히 자영업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비율은 동기간 0.7%에서 1.83%로 증가해 미약하게나마 피고용인에서 고용인으로 바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영업자 입장에서 조선족 관련 사업이 과포화된 구밀집지보다는 무주공산인 신밀집지로의 진출이 더 매력적이었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표 20] 전국 만 18세 이상 재한조선족 노동자의 종사상 지위, 2012-2021 (단위 : %)

구분	2012 (N=1698)	2013 (N=1868)	2014 (N=1992)	2015 (N=2423)	2016 (N=2359)	2017 (N=2276)	2018 (N=2360)	2019 (N=3176)	2020 (N=4032)	2021 (N=4204)
종사상자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상용근로자	44.5	46.4	45.7	44.9	47.1	44.8	40.4	41.0	44.6	42.8
임시·일용직	52.4	51.3	51.9	52.5	50.1	51.7	54.9	54.0	49.6	51.1
비임금근로자	3.1	2.3	2.5	2.6	2.8	3.5	4.7	5.0	5.7	6.2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	-	-	-	-	0.70	1.52	1.57	1.66	1.83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	-	-	-	-	2.20	2.67	3.12	3.42	3.73
무급가족 봉사자	-	-	-	-	-	0.62	0.47	0.31	0.64	0.59

*비임금근로자 =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 무급가족 봉사자

(자료 :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2012-21), 저자계산 및 작성

[표 21] 전국 만 18세 이상 재한조선족 노동자의 종사 산업분류, 2012-2021 (단위 : %)

구분	2012 (N=1698)	2013 (N=1868)	2014 (N=1992)	2015 (N=2423)	2016 (N=2359)	2017 (N=2296)	2018 (N=2360)	2019 (N=3166)	2020 (N=4022)	2021 (N=4194)
산업분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농림·어업	2.4	1.4	1.3	2.3	1.6	1.5	1.3	1.2	1.0	1.0
광공업	38.5	44.0	42.1	40.6	38.5	36.0	35.7	35.6	33.1	34.6
건설업	17.3	13.0	16.8	12.9	14.1	17.4	20.4	19.2	18.9	21.4
도·소매, 음식, 숙박	27.1	25.1	25.2	24.6	24.7	25.4	23.6	25.5	26.2	23.3
전기, 운수, 통신, 금융	0.5	0.8	0.8	0.8	0.9	0.8	1.4	1.3	1.9	2.0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14.3	15.8	14.0	18.9	20.2	18.9	17.6	17.3	18.9	17.7

(자료 :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2012-21), 저자계산 및 작성

[표 22] 전국 만 18세 이상 재한조선족 노동자의 종사 직업군 분류, 2012-2021 (단위 : %)

구분	2012 (N=1698)	2013 (N=1868)	2014 (N=1992)	2015 (N=2423)	2016 (N=2359)	2017 (N=2296)	2018 (N=2360)	2019 (N=3166)	2020 (N=4022)	2021 (N=4194)
직업군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관리·전문직	2.0	1.9	1.6	2.6	2.8	2.8	2.3	2.7	2.4	2.0
사무직	1.8	2.1	2.1	2.6	2.9	2.4	2.6	2.5	3.2	3.3
서비스·판매	14.3	16.0	16.7	14.8	16.6	19.1	20.9	19.7	21.0	19.5
농림·어업	1.4	1.0	1.1	1.1	1.0	0.5	0.6	0.9	0.6	0.7
기계작·조립	40.6	41.1	42.5	41.0	40.9	40.0	38.6	42.0	40.0	43.6
단순 노무직	39.8	38.0	36.1	37.8	35.9	35.1	35.0	32.2	32.8	30.9

(자료 :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2012-21), 저자계산 및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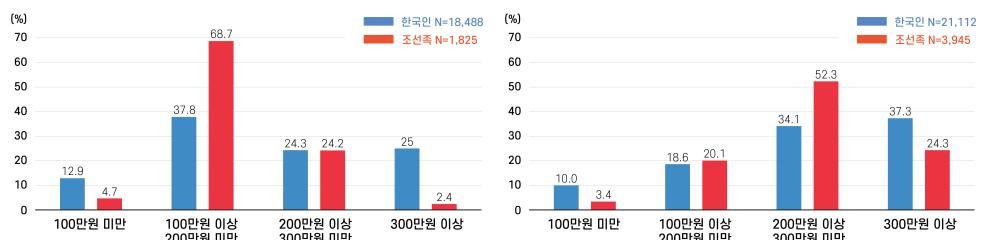
이들이 종사하는 산업분야와 직업군 역시 변화를 보이고 있다. 1차 산업인 ‘농림·어업’ 산업은 2012년 2.4%에서 2021년 1.0%로, 종사자는 1.4%에서 0.7%로 절반가량으로 줄어들었다. 비교적 전문지식을 요하는 ‘전기, 운수, 통신, 금융’ 산업은 0.5%에서 2.0%로 증가했으며, 사무직 종사자가 1.8%에서 3.3%로 증가했으며 단순노무직 종사자가 39.8%에서 30.9%로 감소했다. 이는 방문취업(H2)자격자가 재외동포(F4)자격을 소지하기 위해 공인 자격증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관련지식을 습득하고 업계에 취직하는 등 직업교육이 효과가 있었으며, 중국에서 새로 건너온 젊은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고등교육을 받은 영향이 작용했다고 보인다. 이로써 재한조선족의 경제활동의 주 무대가 육체만을 이용하는 저차원 산업에서 보다 고차원적인 산업으로 상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3] 전국 만 18세 이상 재한조선족 노동자의 월평균 급여 구간, 2012-2021 (단위 : %)

구분	2013 (N=1825)	2014 (N=2695)	2015 (N=2359)	2016 (N=2292)	2017 (N=2196)	2018 (N=2822)	2019 (N=3017)	2020 (N=3801)	2021 (N=3945)
임금구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만원 미만	4.7	30.3	4.3	3.4	2.6	2.5	3.7	3.6	3.4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68.7	48.0	55.0	47.3	36.3	30.7	25.1	24.3	20.1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24.2	20.0	36.6	42.2	49.3	52.8	52.2	52.8	52.3
300만원 이상	2.4	1.7	4.1	7.0	11.7	14.0	19.0	19.3	24.3

(자료 :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2013-21), 저자계산 및 작성

[그림 27] 한국인, 재한조선족 간 임금수준별 임금근로자 비중 (좌 : 2013, 우 :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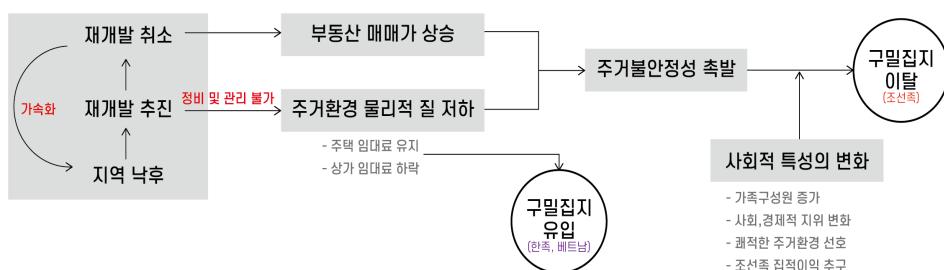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2013, 2021), 저자계산 및 작성

재한조선족은 종사자로서의 지위와 봄담고 있는 산업분야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한 상승했다[표23]. 2013년 임금 근로자 68.7%가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구간에 속했고 300만원 이상 구간에는 2.4%였지만, 2021년은 과반수인 52.3%가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구간이었으며 300만원 이상 받는 근로자 또한 24.3%로 소득수준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최저시급 상승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더라도 동기간 같은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한국인 근로자들과의 임금 격차가 많이 좁아진 것으로 보아 이들의 경제적 처우가 이주초기보다 많이 향상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단순노무직에서 기술직과 사무직으로의 전환 그리고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소득이 높아진다는 것은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역시 전보다 높아지고 있으며 기존에 살던 지역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역으로의 정착에 있어 큰 원동력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림 28] 구밀집지 거주 재한조선족의 이탈 과정

(자료 : 저자 직접 작성)



본 절에서 살펴본 구밀집지의 조선족 동포들이 이탈하게 되는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밀집지가 낙후되자 재개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고 추진과 취소를 반복하면서 대수선이 불가능해지자 물리적 주거환경이 질적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질이 낮아지자 임대료는 낮은 상태로 유지되었지만 부동산 매매가격은 계속 상승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지역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들은 주거불안정성을 느끼게 되었으며, 그동안 가족도 늘고 모아둔 돈을 바탕으로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닌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3절. 신밀집지 정착요인

1. 경기 부천시 대산동 일대

경기도 부천시 대산동⁶¹⁾ 밀집지가 재한조선족의 집단 거주지로 알려진 것은 비교적 최근이다. 2002년 총인구가 약 82만 명대였던 부천시는 재한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 인구가 단 1,868명이었다. 당시 가리봉동 총인구 약 1만1천 명 대에 중국인 인구가 1,672명임을 감안하면 부천시의 조선족 인구밀도는 너무 낮아 뚜렷한 밀집지가 따로 없었을 것이다. 공업단지 배후주거지로 탄생한 구 밀집지들과 달리 부천시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만한 규모의 공업단지가 없었기 때문에 확실한 조선족 인구유입 요소를 갖추지 못했다.⁶²⁾

정선주(2021)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착초기 조선족들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 부천에 정착한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서울 남서부 지역에서 지내다가 이사를 온 사람도 있었고 중국에서 바로 온 경우도 있다고 했으며, 밀집지가 없었음에도 부천시를 택한 이유는 주로 ‘교통’, ‘저렴한 임대료’ 그리고 ‘전통시장’이었다. 부천시가 다른 지역보다 서울남서부 일대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1호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어 조선족 관련 인프라를 누리기도 쉬웠으며 당시 주거비용은 서울남서부 밀집지보다 딱히 저렴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더 비싸지는 않았다. 부천 재한조선족 밀집지의 원류는 ‘부천자유시장’으로 볼 수 있다. 부천역 남부광장에 위치한 부천자유시장은 1947년에 개장한 부천시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시장으로, 이들이 정착할 당시 균린상가보다 임대료가 절반 가량이나 저렴했고 내국인의 눈에 크게 띠지 않아 선호했다고 한다. 이는 주 소비계층이 젊어지면서 위생과 투명하지 않은 유통방식 등을 이유로 전통시장을 기피하고 마트를 선호하는 한국인들과 달리 재한조선족들은 전통시장을 즐겨 찾기 때문에 전통시장으로의 입지는 상인과 손님 두 입장의 재한조선족에

61) 행정동 상 대산동은 법정동인 송내동과 심곡본동의 영역이다.

62) 2022년 현재 부천시 내의 유일한 산업단지인 오정산업단지는 2007년 착공하여 2009년 완공하였으나 입주 기업이 70개 안팎으로 그 규모가 과거의 구로공단, 반월·시화공단보다 현저히 작다. (출처 : 부천시 산업단지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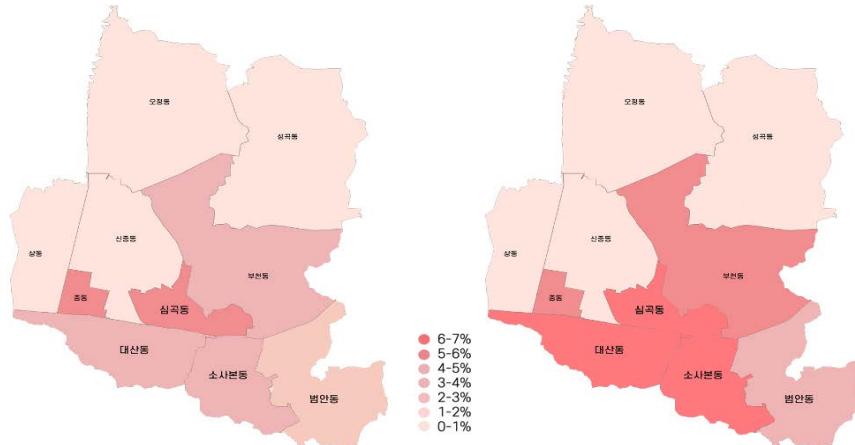
게 최적의 선택이었다. 오래 전부터 부천역 지역에서 거주했던 내국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시각적으로 인지가 될 만큼 재한조선족 인구가 증가한 것은 2010년대 초라고 한다. 실제로 부천시는 2011년이 돼서야 전체 인구 중 중국 국적의 외국인 비율이 1%를 넘어섰고 이후 지속 증가하여 2.3%에 도달했다.

[표 24] 부천시 행정동별 전체인구 및 중국인(재한조선족+중국인) 인구 (단위 : 명, %)

구분	2011년			2019년		
	행정인구	중국 국적자	비율	행정인구	중국 국적자	비율
부천시	889,500	11,943	1.3	855,685	19,798	2.3
심곡동	76,235	2,773	3.6	71,296	4,845	6.8
부천동	104,802	1,837	1.8	95,743	2,373	2.5
대산동	97,892	1,275	1.3	88,626	4,573	5.2
소사본동	62,602	1,142	1.8	60,526	3,034	5.0
범안동	76,664	700	0.9	98,882	1,623	1.6
중동	49,930	1,275	2.6	43,612	1,228	2.8
신중동	129,363	210	0.2	131,670	549	0.4
상동	94,706	72	0.1	88,972	193	0.2
성곡동	98,155	455	0.5	87,385	529	0.6
오정동	99,151	965	1.0	88,983	851	1.0

(자료 : 부천시, 『부천시 인구 현황』, 2011, 2019. 저자 정리)

[그림 29] 경기도 부천시 중국인 인구 분포 변화 (좌 2011년, 우 2019년)



(자료 : 부천시, 『부천시 인구 현황』, 2011, 2019), 저자 작성

[표 24]을 살펴보면, 지난 10년 간 재한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 인구 증가가 가장 두드러진 곳은 대산동, 심곡동, 소사본동으로 각각 기존 인구의 약 3.6배, 1.7배, 2.7배로 증가하였다. 세 지역은 모두 1호선 지하철 노선이 지나는 구간으로 부천시 북부에 위치한 ‘중동 신도시’보다 일찍 개발되었으며 상대적으로 건축물들이 오래되고 낙후된 구도심이다. 그 중 가장 가파르게 인구가 성장한 곳은 부천역 남부광장과 경인로 이면도로에 접한 대산동(법정동 상 심곡본동)의 다세대주택들이 몰려있는 곳이다. 이곳의 경관은 아직까지는 구밀집지들보다는 이국적인 느낌이 덜하다. 재한조선족 인구밀도 자체가 낮은 까닭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저층 위주로 조선족 관련 상가들이 입점해있고, 2층 이상부터는 일반적으로 주거용도로 사용하기에 따로 간판이나 장식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2022년 현재 부천시 밀집지는 다른 밀집지들에 비해 행정지역 전체에 분포되어 있어 그 밀도가 낮은편이다. 그러나 대산동을 중심으로 재한조선족 인구가 밀집하는 추세로, 향후 전형적인 차이나타운다운 경관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높다.

[그림 30] 부천시 대산동 밀집지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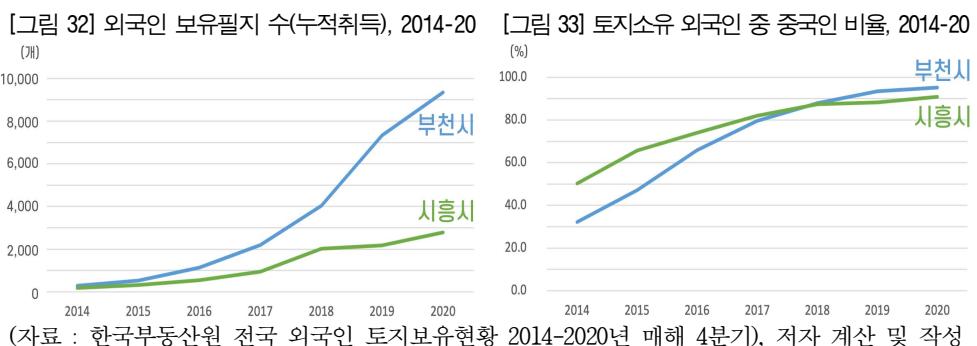
(자료 : 저자 직접 작성 및 촬영)

[그림 31] 부천시 대산동 밀집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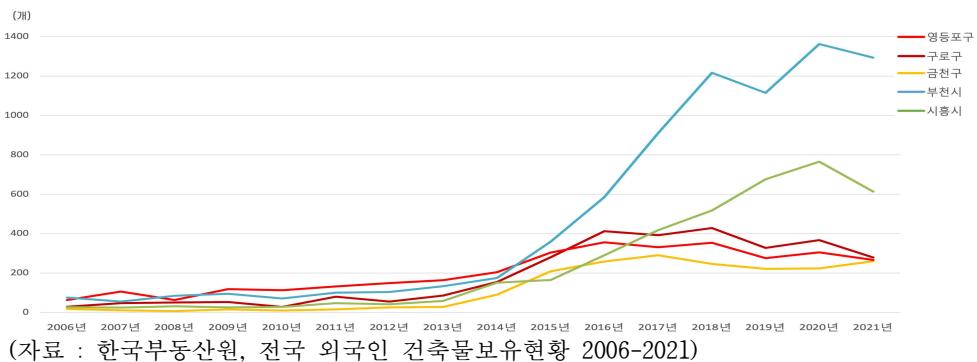
1) 주거안정성과 주거환경

서울 남서부 밀집지를 비롯한 구밀집지의 장기체류 조선족 동포들이 주거불안정 성과 사회적 특성의 변화를 말미암아 지역을 벗어나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 경기도 부천시에서는 어느 외국인 밀집지에서도 없었던 현상이 관찰되었다. 바로 ‘부동산’ 매입이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외국인 토지 보유현황에 따르면, 부천시 외국인 보유필지(누적취득)수는 2014년 4분기 기준 각각 294개였으나, 2021년 4분기 기준 9,973개로 급증하고 있다. 이 중 중국 국적자가 95.8%였으며 그 중 거의 전체가 조선족 동포였다. 귀화자 신분을 가진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재한조선족은 부천시 내 1만 개 이상의 토지 부동산을 사들였다고 추정된다.



재한조선족의 부동산 집중매입 현상은 토지에 국한되지 않았다. 일정량의 부를 축적한 재한조선족들 중심으로 서울 남서부 일대의 건축물을 매입하는 경우는 꽤 있었지만, 지역별로 거래 건축물이 연간 100에서 200건이 고작이었다. 하지만 부천시는 2018년에 이미 1000건을 넘어 최근에는 약 1400건에 달 할 정도로 건축물 매입에 봄이 일었다.

[그림 34] 외국인 취득 건축물 수 (누적취득 아님) 2006-2021



(자료 : 한국부동산원, 전국 외국인 건축물보유현황 2006-2021)

이들의 공격적인 부동산 매입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아무래도 서울보다 저렴한 부천시 부동산 가격으로 보인다. 토지의 경우 2021년 공시지가 기준 서울남서부 일대보다 절반가량 저렴하고, 아파트 비율 또한 낮기 때문에 향후 재개발을 노려봤을 때 투자가치도 있기 때문이다. 건축물의 경우 역시 한창 취득건축물 수가 증가하기 시작했던 2015년에서 2017년 사이 모든 유형에서 대산동 건축물 매매가가 구밀집지의 약 50%에서 70% 수준으로 저렴했다.

[표 25] 재한조선족 밀집지 행정동별 공시지가, 2021

(단위 : 만원/m²)

구분	구밀집지			부천시			시흥시		
	가리봉동	대림2동	원곡동	대산동	심곡동	소사본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공시지가	324.6	334.8	170.7	189.8	217.6	202.9	162.3	169.9	116.0

(자료 : SGIS, 『주거현황보기』, 읍면동별 공시지가 2021, 저자계산 및 작성)

[표 26] 재한조선족 밀집지 행정동별 주택유형별 실거래가(매매) 2015-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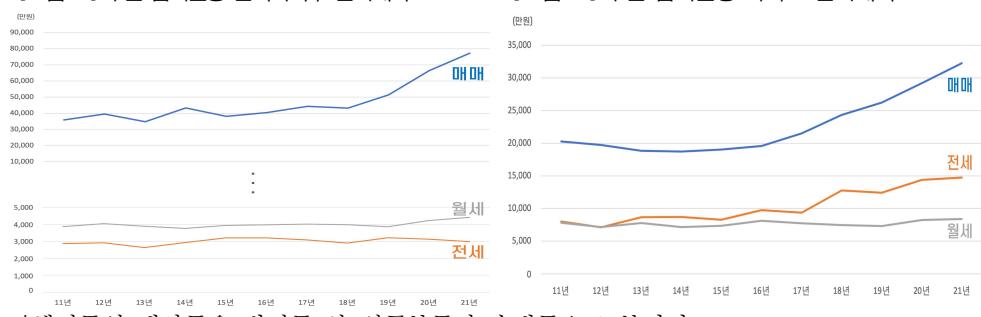
(단위 : 만원)

구분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아파트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가리봉동	60,773	66,007	74,776	-	-	-	-	-	-
대림2동	67,451	80,712	86,451	18,730	21,445	21,580	33,719	35,720	40,809
원곡동	91,578	98,668	109,147	12,055	12,706	14,970	29,736	29,661	30,238
심곡본동	40,461	44,367	43,292	12,997	12,754	13,137	19,048	19,589	21,507
정왕동	84,252	86,403	84,632	9,636	9,786	9,679	19,130	20,002	20,575

(자료 : 부동산플래닛(2022. 9. 28.), 한국부동산원 실거래가시스템, 자료취합 후 저자 작성)

본 연구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상 부천시 대산동 밀집지의 재한조선족들이 많이 거주하는 유형은 연립·다세대 주택으로 단독·다가구 주택과 아파트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⁶³⁾ 2015년경부터 연립·다세대 주택의 매매가격은 2021년까지 1억3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 사이로, 4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승한 단독·다가구 주택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승한 아파트에 비하면 절반가량 저렴하다. 가격이 저렴한 연립·다세대 주택이 많은 점은 자신의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재한조선족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며, 대산동 일대가 연립·다세대 주택이 타 지역에 비해 많기에⁶⁴⁾ 대산동이 밀집지로서 대두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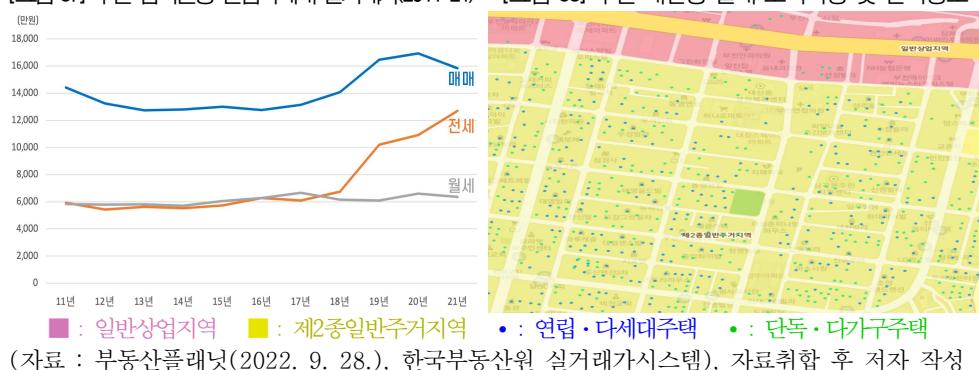
[그림 35] 부천 심곡본동 단독다가구 실거래가(2011-21) [그림 36] 부천 심곡본동 아파트 실거래가(2011-21)



* 행정동인 대산동은 법정동 상 심곡본동과 송내동으로 분리됨

(자료 : 부동산플래닛(2022. 9. 28.), 한국부동산원 실거래가시스템), 자료취합 후 저자 작성

[그림 37] 부천 심곡본동 연립다세대 실거래가(2011-21) [그림 38] 부천 대산동 일대 토지이용 및 건축용도



(자료 : 부동산플래닛(2022. 9. 28.), 한국부동산원 실거래가시스템), 자료취합 후 저자 작성

63) 부천시 거주 응답자 40명 중 23명이 연립주택에, 10명이 다가구 혹은 다세대 투룸에 거주한다고 응답했다.

64) 시흥시 정왕동 밀집지의 연립다세대 비율은 16.1%다.

[표 27] 부천시 재한조선족 밀집지 행정동별 주택유형 개수, 2020

(단위 : 개)

구분	총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타
		일반주택	다가구주택	영업겸용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심곡동	20,097	392	2,285	707	4,326	1,931	9,989	467
대산동	27,334	286	1,528	565	13,964	1,139	9,518	334
소사본동	18,027	160	1,539	427	10,076	492	5,037	296

(자료 : 통계청, 『주택총조사』, 주택의 종류별 주택 2020), 저자계산 및 작성

한편, 재한조선족의 부동산 매입은 ‘실거주’ 뿐만 아니라 ‘투기’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천시 소재 공인중개사들에 따르면, 소수의 부자들에 의한 투기 역시 존재한다고 한다. 밀집지의 성장세가 뚜렷해 보이자 선제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같은 재한조선족 동포에게 임대를 주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며, 3명 이상이 공동투자를 하거나 인접한 필지를 매입해 합필한 후 신축행위를 진행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최근 중국 국적 외국인들의 토지처분 금액이 2015년 126억여원, 2016년 76억여원, 2018년 347억여원, 2019년 150억여원으로 사실상 부동산 매매수익을 올리기 위한 매수라는 해석도 있었다.⁶⁵⁾

더불어 최근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중국 국적 외국인들이 심곡본동(행정동 상 대산동)과 소사본동 남부에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 매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 역시 두 차례 언급되어 시의회에서도 인지할 정도의 사회이슈로 자리 잡았다.⁶⁶⁾ 이처럼 재한조선족 중에는 순수하게 실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부를 축적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동산을 활용하는 이도 많음을 추론할 수 있다.

65) 부천일보(2019), 중국인 부천 토지 매입 급증. (최종열람 : 2022. 10. 4.)

66)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2019. 6. 11.) 최○○ 위원과 김○○ 부동산과장 간 질의, (2021. 6. 2.) 남○○ 위원과 이○○ 부동산과장 간 질의

2) 일자리와 교통접근성

부천시 대산동 밀집지의 또 다른 정착요인은 일자리와 교통 접근성이다. 부천시는 서울 구로구와 지리적으로 닿아있으면서도 1호선과 7호선으로 연결되어 있어 기존 서울남서부 밀집지의 일자리와 조선족 관련 시설을 활용하기에 용이했다. 하지만 재한조선족 밀집지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커지자 일자리와 상업시설 등 생활환경 측면에서 서울남서부의 영향권에 벗어나 지역 안에서의 자급자족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바로 부천시의 산업생태와 관련되어 설명할 수 있는데, 재한조선족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산업 다섯 가지 중 네 가지의 종사자 비율(LQ지수)이 1 이상으로 경기도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28].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건설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증가한 시기와 재한조선족 밀집지가 성장한 시기가 상당히 겹친다. 건설노동과 돌봄노동은 ‘도소매업’과 ‘음식점업’처럼 하나의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곳의 현장으로 이동하여 일을 하기에 지하철과 버스 같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에 인력사무소가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건설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산업에 종사하는 재한조선족의 이동은 해당 산업의 사업체가 많은 제조업, 도소매업과 달리 직주거리의 영향을 덜 받은 것으로 보인다.

[표 28] 부천시 재한조선족 밀집지 LQ지수 (내외국인 통합), 2012-2020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제조업	심곡동	0.18	0.16	0.17	0.17	0.16	0.15	0.15	0.16	0.16
	대산동	0.43	0.45	0.46	0.45	0.44	0.39	0.39	0.37	0.40
	소사본동	0.56	0.57	0.54	0.51	0.51	0.39	0.33	0.30	0.35
건설업	심곡동	0.98	0.90	0.93	0.89	0.98	1.20	1.11	1.28	1.48
	대산동	1.18	1.11	1.12	1.29	1.23	1.29	1.50	1.50	1.48
	소사본동	0.83	0.96	0.69	0.72	0.91	0.80	0.77	0.85	0.79
도매 및 소매업	심곡동	1.25	1.15	1.11	1.16	1.08	1.06	1.04	1.12	1.04
	대산동	1.53	1.41	1.42	1.38	1.42	1.55	1.46	1.41	1.38
	소사본동	1.19	1.09	1.12	1.05	1.07	1.05	0.94	0.97	1.11
숙박 및 음식점업	심곡동	1.87	1.76	1.90	1.90	1.83	1.79	1.87	2.03	1.86
	대산동	1.06	1.15	1.10	1.14	1.09	1.01	1.07	1.15	1.13
	소사본동	1.00	0.98	0.95	0.98	1.06	0.97	1.03	1.09	1.1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심곡동	1.78	2.05	2.20	2.22	2.12	2.05	2.18	2.18	2.28
	대산동	1.42	1.62	1.57	1.56	1.60	1.56	1.64	1.54	1.42
	소사본동	2.44	2.34	2.31	2.57	2.65	2.69	3.13	3.12	2.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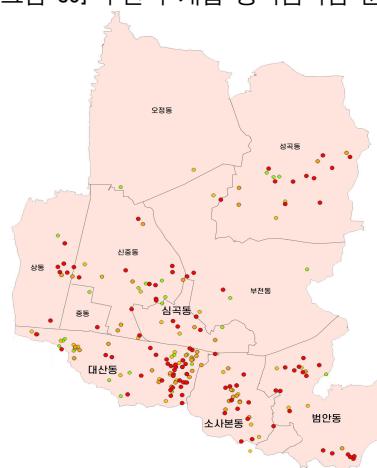
LQ = 행정동 산업별 종사자 수 / 행정동 총 산업 종사자 수 : 경기도 산업별 종사자 수 / 경기도 총 산업 종사자 수
 (자료 : 경기도 기본통계, 『산업별, 시군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2012-2020, 부천시 기본통계,
 『산업별, 읍면동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2012-2020), 저자 계산 및 작성

한편 지난 2018년 서해선 개통으로 소사본동의 재한조선족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서해선은 본 연구의 대상지인 부천시-시흥시-안산시를 가로지르는 지하철 노선으로, 구밀집지인 안산시 원곡동 밀집지의 주민들이 부천시 대산동 밀집지로의 이동을 모색할 수 있는 토대가 된 것으로 보인다. 서해선의 등장은 향후 재한조선족의 밀집지 분포에 영향을 미칠 강력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 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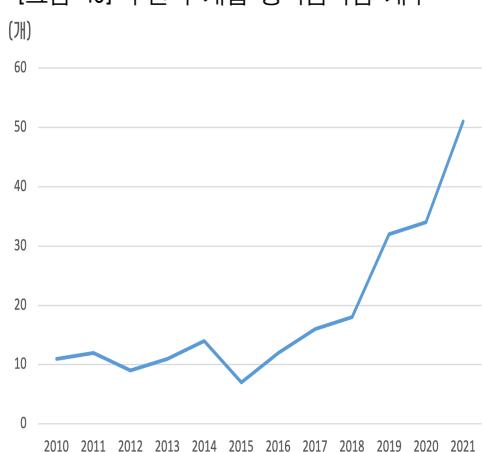
3) 재한조선족 관련 생활권 형성

재한조선족 인구 증가에 따라 이들과 관련된 시설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이 중 가장 팔목할만한 것은 ‘상업시설’과 ‘교육시설’이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재한조선족들이 택하는 업태는 대부분 중국음식점이다. 과거 화교를 중심으로 탄생한 짜장면·짬뽕 중심의 ‘한국화된 중국요리’가 아닌 양꼬치·마라탕·훠궈 등을 파는 ‘본토중국요리’ 가게다. 한국화된 중국요리 가게는 오늘 날 화교가 아닌 내국인도 많이 창업하고 있지만 본토중국요리는 아직까지 대중들 사이에서는 조선족이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행정안전부 로컬데이터에 따르면, 2016-2021년 사이에 부천 남부지역인 대산동, 소사본동을 중심으로 개업한 중국음식점이 급증하고 있다. 대산동 밀집지와 지리적으로 거의 일치해 중국음식점들이 밀집지를 기반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본토 중국요리가 2010년대 중반 양꼬치와 2010년대 후반 마라탕 등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유행했기에 젊은 세대들이 많은 변화가 지역이면 어디든지 찾기 쉬워져 중국음식점의 증가가 곧 재한조선족 밀집지 확장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림 39] 부천시 개업 중국음식점 분포



[그림 40] 부천시 개업 중국음식점 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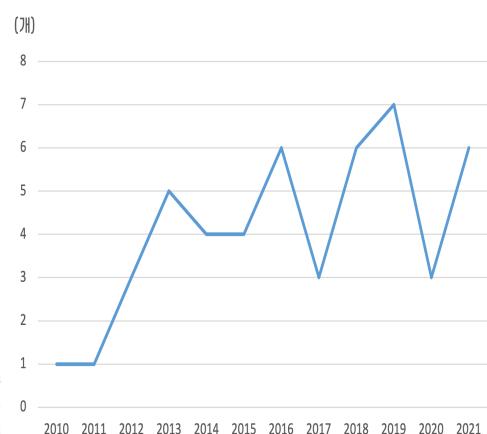
(자료 : 행정안전부, 로컬데이터 : 그룹별 업종조회), 저자 작성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체류하는데 재한조선족에게 빼놓을 수 없는 업종은 ‘여행사’와 ‘직업소개소’다. 본래 체류자격과 관련해 전문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곳은 행정사지만 여행사 역시 행정사 업무의 일부를 대체할 수도 있다. 또한 개업에 있어 전문자격증이 필수라 대부분 한국인이 운영하는 행정사와 공인중개사와 달리, 여행사는 개업의 기준이 낮아 조선족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문턱이 낮은 편이다. 단기체류자와 친척초청을 원하는 사람들이 주로 찾으며, 밀집지의 규모가 클수록 많이 자리잡고 있다. 최근 10년 새 부천시에서 새로이 영업신고를 한 국제여행사의 분포를 살펴보면, 대산동·소사본동·신중동 지역에 몰려있다. 신중동은 부천 내에서 비교적 소득수준이 높아 해외여행의 기회가 많은 사람들 때문에 많은 것으로 보인다. 신중동에 입지한 여행사들을 제외하면 재한조선족 밀집지 위치와 꽤 일치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코로나19 위기로 여행사 사업이 주춤했지만, 재한조선족 밀집지가 확장됨에 따라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1] 부천시 개업 국제여행사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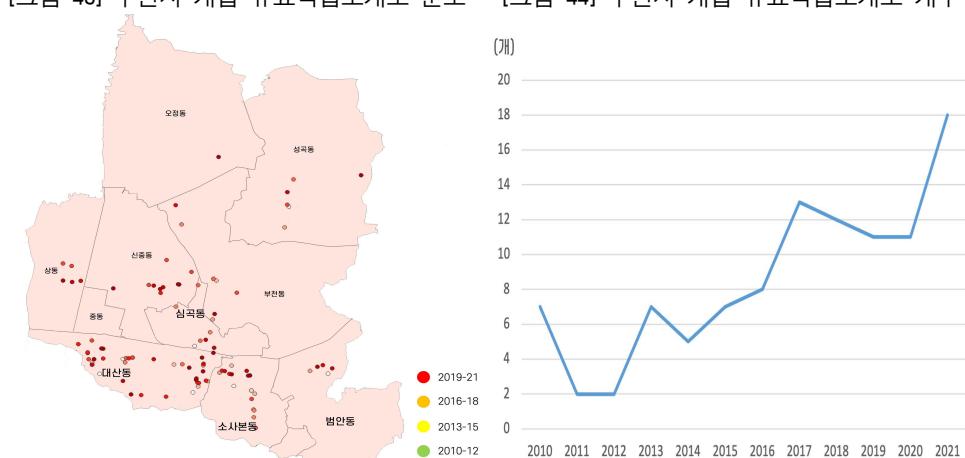
[그림 42] 부천시 개업 국제여행사 개수



(자료 : 행정안전부, 로컬데이터 : 그룹별 업종조회. 저자 작성)

‘직업소개소’ 역시 재한조선족 밀집지의 크기를 알려주는 지표라 볼 수 있다. 이주초기인 1990년대는 가족과 친구의 소개나 새벽 인력시장에서 일감을 얻곤 했지만, 2000년대부터는 단기 아르바이트부터 정규직까지 알선해주는 전문적인 시설이 생긴 것이다. 직업소개소의 경우에도 조선족 사장 또는 직원이 상주해 노동문제가 발생할 경우 간단한 민원은 직접 해결해주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이들의 생활에 밀접하다. 최근 10년 새 개업한 유료 직업소개소 증가세를 살펴보면 부천시 재한조선족 비율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사업장의 지리적 분포 역시 재한조선족 밀집지 위치와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3] 부천시 개업 유료직업소개소 분포 [그림 44] 부천시 개업 유료직업소개소 개수



(자료 : 행정안전부, 로컬데이터 : 그룹별 업종조회). 저자 작성

재한조선족 인구의 증가는 조선족 관련 시설의 입지에도 영향을 미친다. 부천시 소재 다문화관련 기관과 시설 대다수가 부천시 남부에 위치해 있으며 2010년 이후에 설립되었다. 심곡본동 주민지원센터 사회복지과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다문화관련 사업은 과거 결혼이주 여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는데, 2015년에서 2016년경부터 재한조선족 동포를 포함한 중국 국적 외국인들에 집중되어졌다고 한다. 이는 지역 거주 외국인의 비율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재한조선족들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 역시 상황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다. 대산동과 소사본동의 경계에 위치한 부천남초등학교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다문화 특별학급’ 1개 반을 운영하며 한국으로 입국한지 얼마 안 된 학생들의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림 45] 부천시 다문화관련 기관 및 시설 분포 [그림 46] 부천남초등학교 후문



조선족 관련 가게와 시설이 증가한 시기 및 지역이 재한조선족 인구가 증가한 시기 및 지역과 일치한다는 것은 재한조선족이 밀집지에서 생활하기 위해 민족 관련 상업과 시설 인프라가 필수적이며, 추후 유입 인구가 정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의미한다.

2.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밀집지가 재한조선족의 집단 거주지로 알려진 것은 부천시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최근이다. 부천시 대산동 밀집지가 서울 남서부 밀집지에서 분화된 것처럼 시흥시 밀집지는 안산시 원곡동 밀집지에서 분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근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지리적 접근성’이다. 시흥시 행정동 외국인 인구 분포[표29]를 살펴보면 시흥시 재한조선족의 분포가 안산시와 연접한 정왕본·1동에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시화산업단지’의 존재다.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 재한조선족을 포함한 외국인이 몰리게 된 시기는 시화산업단지가 완공된 2006년 이후로 추정된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본래 자동차부품회사가 많은 반월산업단지에 집중되었으나 시화산업단지에서 취급하는 휴대폰 및 전자기기 산업이 성장하자 일감이 증가했고, 섬세한 작업을 요하는 전자기기 산업 특성 상 젊은 층과 여성 근로자 중심의 구인이 증가했다고 한다.⁶⁷⁾ 일자리 공급의 추세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주로 비전문취업(E-9)자격 체류자인 아시아계 노동자들은 회사를 쉽사리 바꾸기 어려운 반면, 재한조선족들은 사업장과 체류지 변경이 보다 자유로웠기 때문에 이들 중 다수가 반월공단에서 시화공단으로 이직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정왕동 밀집지는 원곡동 밀집지 출신의 재한조선족 비중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시흥시 정왕동 밀집지는 도보 10분 이내 거리에 지하철 4호선 정왕역이 있고, 주거비용 역시 안산시 원곡동 밀집지보다 저렴한 편이었으며 인근에는 밀집지 정중앙에 정왕시장이 입지해 대산동 밀집지와 마찬가지로 정착 초기에 ‘교통’, ‘저렴한 임대료’ 그리고 ‘전통시장’의 요소를 지니고 있어 단기간에 더 많은 재한조선족을 끌어들이는 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67) 이미숙(2018), 시흥시 외국국적동포 사회통합정책개발 연구, 시흥시, p.64.

[표 29] 시흥시 행정동별 전체인구 및 등록외국인 인구, 2013, 2020

(단위 : 명, %)

구분	2013			2020		
	총 인구 (내국인+외국인)	외국인	총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	총 인구 (내국인+외국인)	외국인	총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
시흥시	422,817	26,052	1.3%	535,147	62,397	11.6%
대야동	35,778	470	1.3%	44,050	1,188	2.7%
신천동	44,258	567	3.0%	36,338	1,536	4.2%
신현동	12,515	372	1.1%	10,051	633	6.3%
은행동	31,712	359	1.1%	48,630	1,158	2.4%
매화동	13,835	232	1.8%	12,055	544	4.5%
목감동	11,467	203	1.6%	41,871	1,035	2.5%
군자동	43,711	712	29.5%	22,557	1,561	6.9%
정왕분동	34,095	10,052	22.9%	38,700	20,382	52.7%
정왕1동	39,037	8,921	4.4%	39,624	18,177	45.9%
정왕2동	38,063	1,682	5.9%	34,979	5,063	14.5%
정왕3동	28,430	1,665	0.5%	25,306	3,537	14.0%
정왕4동	25,135	130	11.0%	21,335	852	4.0%
과림동	2,811	310	0.5%	2,240	293	13.1%
연성동	45,464	222	0.9%	23,561	472	2.0%
능곡동	16,506	155	0.9%	18,403	481	2.6%
월곶동	-	-	-	16,357	1,214	7.4%
장곡동	-	-	-	27,803	529	1.9%
배곧동	-	-	-	71,287	3,742	5.2%

(자료 : 경기도, 『경기도시흥시기본통계2013』, 행정안전부, 『2020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저자 재구성

[표 30] 시흥시 행정동별 국적별 외국인 인구, 2020년 11월

(단위 : 명)

구분	합계	중국 (한국계)	중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 네시아	몽골	기타
시흥시	52,297	32,955	5,470	3,917	2,888	792	728	699	4,848
대야동	829	271	75	112	126	30	15	29	171
신천동	1,055	493	110	129	109	*	*	50	111
신현동	496	*	*	114	123	25	24	18	129
은행동	666	184	76	106	94	26	25	37	118
매화동	368	68	24	72	75	22	13	5	89
목감동	595	209	83	81	58	22	*	*	124
군자동	964	478	139	120	94	*	*	18	96
정왕분동	18,961	15,498	2,089	458	239	48	10	94	525
정왕1동	16,561	10,771	1,469	1,392	773	239	245	219	1,453
정왕2동	4,123	1,461	385	502	505	205	177	86	802
정왕3동	2,941	962	208	453	399	44	166	51	658
정왕4동	515	298	93	42	26	9	*	*	43
과림동	515	298	93	42	26	9	*	*	43
연성동	293	81	29	49	58	6	*	*	65
능곡동	240	78	42	31	26	*	*	9	51
월곶동	839	521	159	59	33	9	10	5	43
장곡동	255	101	51	27	16	9	-	6	45
배곧동	2,316	1,427	422	114	60	9	14	35	235

(자료 : 시흥시 기본통계, 『2021 외국인주민 현황』), 저자 재구성

[그림 47] 시흥시 정왕동 밀집지 위치



(자료 : 저자 직접 작성 및 촬영)

[그림 48] 시흥시 정왕동 밀집지 전경



1) 주거안정성과 주거환경

구밀집지인 안산시 원곡동의 장기체류 조선족 동포들이 주거불안정성과 사회적 특성의 변화를 겪으며 지역을 벗어나게 되어 이동한 곳은 시흥시 정왕동 밀집지다. 이곳의 대표적인 주택 유형은 다가구 주택인데 그 비율이 21.8%로 부천시 대산동 밀집지(12.1%)에 비하면 상당히 높다. 이는 최대한 많은 세입자를 들어기 위해 다가구 주택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길 원하는 외국인 주민들에게도 최적의 조건이었다.⁶⁸⁾

[표 31] 시흥시 재한조선족 밀집지 행정동별 주택유형 비율, 2020

(단위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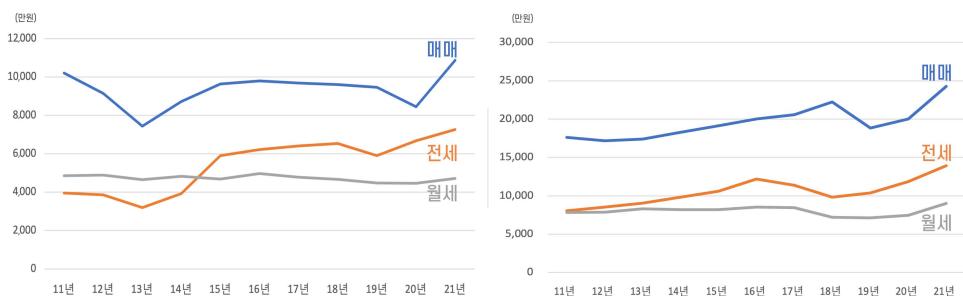
구분	총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타
		일만주택	다가구주택	영업겸용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정왕본동	6,039	37	863	656	2,320	0	2,026	137
정왕1동	6,575	0	876	321	5,324	0	0	51
정왕2동	14,290	7	6	18	10,683	0	3,560	16

(자료 : 통계청, 『주택총조사』, 주택의 종류별 주택 2020, 저자제작 및 작성)

68)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각 호마다 개별등기와 분리매매 방식이며,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건물 전체로 단독등기와 매매가 가능하다. 전통적으로 외국인 입장에서는 다세대주택의 전세 방식보다 다가구주택의 월세 방식을 익숙해하고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비즈(2022), “전월세 신고제 실시해보니.. 외국인 임차인 이렇게 많았네” (최종열람 2022. 10. 28.)

본 연구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상 시흥시 정왕동 밀집지의 재한조선족들이 많이 거주하는 유형은 단독·다가구 주택으로 연립·다세대 주택과 아파트보다 많았다.⁶⁹⁾ 단독·다가구 주택의 매매가는 2011년 6억5천만 원대에서 2019년 약 9억 원대로 증가했지만 전·월세 임대료는 10년 간 거의 증가하지 않고 유지되어 재한조선족들 입장에서는 지난 10년간 계속 상승했던 안산시 원곡동에 비해 보다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본인 소유의 집을 원하는 사람들은 부천시 대산동 밀집지와 마찬가지로 단독·다가구 주택에 비해 훨씬 저렴한 연립·다세대 주택 또는 아파트를 주로 매입했을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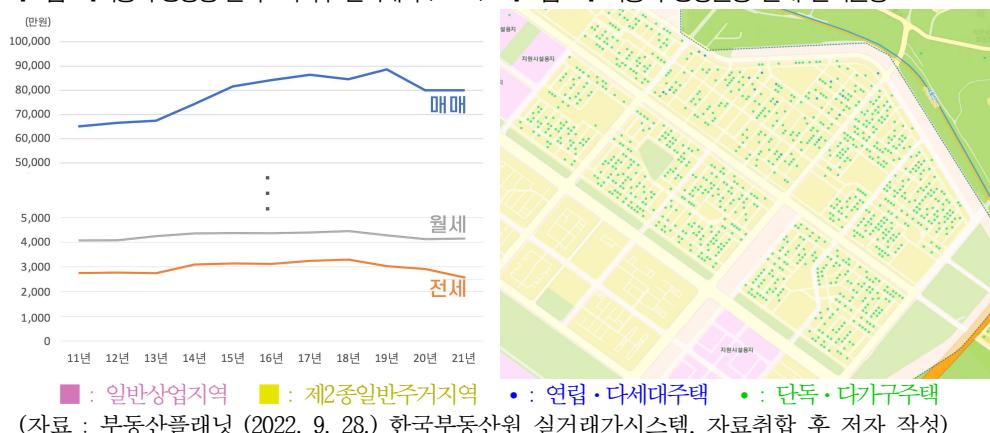
[그림 49] 시흥 정왕동 연립·다세대 실거래가(2011-21) [그림 50] 시흥 정왕동 아파트 실거래가(2011-21)



*법정동인 정왕동은 행정동 상 정왕본·1·2·3·4동임

(자료 : 부동산플래닛(2022. 9. 28.), 한국부동산원 실거래가시스템, 자료취합 후 저자 작성)

[그림 51] 시흥시 정왕동 단독·다가구 실거래가(11-21) [그림 52] 시흥시 정왕본동 일대 건축물용도



(자료 : 부동산플래닛 (2022. 9. 28.) 한국부동산원 실거래가시스템, 자료취합 후 저자 작성)

69) 시흥시 거주 응답자 40명 중 24명이 다가구 주택의 원룸·투룸에, 8명이 연립주택에, 6명이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응답했다.

2) 일자리와 교통접근성

시흥시 정왕동 밀집지의 주요 정착요인 중 또 다른 하나는 일자리와 교통접근성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시흥시 정왕동은 지리적으로 안산시 단원구와 맞닿아 있으며, 반월·시화공업단지 배후주거지로서 기능을 같이 담당한다. 이로 인해 정왕동에 거주하는 조선족 동포들은 제조업 일자리 수급이 향시 용이하다. 재한조선족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산업 다섯 가지를 살펴봤을 때, 지역 특성상 ‘제조업’ 종사자 비율(LQ지수)가 2 이상으로 가장 높았으며, 10년 간 지속 증가해왔다. ‘건설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역시 1 미만이었으나 정왕본동·1동·2동 중 대부분의 지역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두 산업 분야 비중의 증가 현상은 부천시에서도 발견된 현상으로 재한조선족 인구가 많아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산업종사자의 특성은 세부적인 지역 간 차이도 존재했는데, 재한조선족이 가장 많이 정왕본동의 경우, 제조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비율이 1 미만이었지만, 도매 및 소매업이 1 이상을 보이고 있다. 정왕1동과 2동의 경우 정왕본동보다 공업단지에 가깝기 때문에 제조업 비율이 2 이상 나왔으나, 숙박 및 음식점업과 보건업 및 사회서비스업의 비율이 정왕1동이 훨씬 높게 나왔다. 이 차이는 재한조선족 인구가 정왕1동이 2동보다 약 8배가량 많기에 나온 결과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하는 바이다.

시흥시 역시 근로자들의 출퇴근 방식이 대개 외국인 밀집지들의 인력소개소 및 사측에서 제공한 운송수단을 이용한다. 특히 공업단지의 배후주거지로서 안산시 원곡동의 방식과 거의 동일한데, 바로 셔틀 정류장과 인력소개소가 큰 길가에 위치한다는 것이다. 정왕본동과 정왕1동의 경계선인 정왕신길로에 인접한 건물들에는 약 16~18개소의 인력소개소가 위치해 일용직들의 출퇴근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 제공되는 운송수단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정왕동 밀집지는 지하철 4호선, 수인선이 지나가는 정왕역이 10분 이내이며, 다소 거리가 있지만 안산을 경유하여 서해선을 이용할 수 있다.

[표 32] 시흥시 재한조선족 밀집지 LQ지수 (산업종사자수, 내외국인 통합), 2012-2020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제조업	정왕본동	0.37	0.34	0.42	0.42	0.42	0.43	0.43	0.42	0.44
	정왕1동	2.27	2.35	2.38	2.31	2.33	2.33	2.42	2.47	2.60
	정왕2동	2.51	2.55	2.53	2.69	2.70	2.73	2.83	2.87	2.67
건설업	정왕본동	0.80	0.87	1.02	1.04	3.83	0.92	0.92	0.97	1.10
	정왕1동	0.16	0.14	0.14	0.17	2.15	0.18	0.26	0.28	0.23
	정왕2동	0.25	0.23	0.28	0.20	1.80	0.25	0.25	0.18	0.21
도매 및 소매업	정왕본동	1.73	1.60	1.65	1.50	1.39	1.51	1.45	1.54	1.48
	정왕1동	0.71	0.72	0.69	0.75	0.78	0.77	0.77	0.80	0.77
	정왕2동	0.69	0.68	0.71	0.60	0.65	0.67	0.68	0.69	0.66
숙박 및 음식점업	정왕본동	0.37	0.40	0.38	0.35	0.38	0.38	0.39	0.39	0.36
	정왕1동	1.62	1.55	1.63	1.49	1.44	1.68	1.54	1.55	1.47
	정왕2동	0.37	0.40	0.38	0.35	0.38	0.38	0.39	0.39	0.3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정왕본동	0.27	0.28	0.24	0.24	0.22	0.18	0.18	0.16	0.38
서비스업	정왕1동	0.74	0.69	1.11	1.28	1.35	1.58	1.53	1.32	1.34
	정왕2동	0.27	0.28	0.24	0.24	0.22	0.18	0.18	0.16	0.38

LQ = 행정동 산업별 종사자 수 / 행정동 총 산업 종사자 수 : 경기도 산업별 종사자 수 / 경기도 총 산업 종사자 수

(자료 : 경기도 기본통계, 『산업별, 시군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2012-2020, 시흥시 기본통계, 『산업별, 읍면동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2012-2020. 저자 계산 및 작성)

[그림 53] 시흥 정왕동 일대 인력소개소 분포 [그림 54] 시흥 정왕천로에 위치한 인력소개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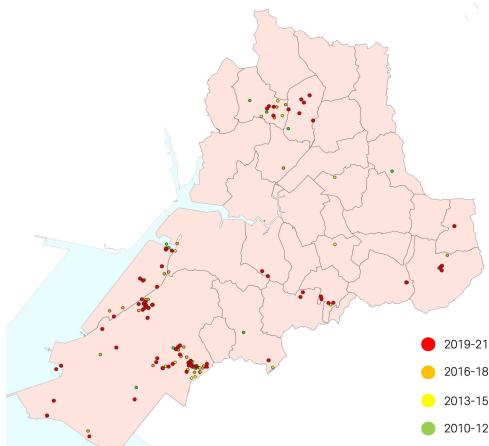


(자료 : 네이버지도, 저자 촬영 및 편집)

3) 재한조선족 관련 생활권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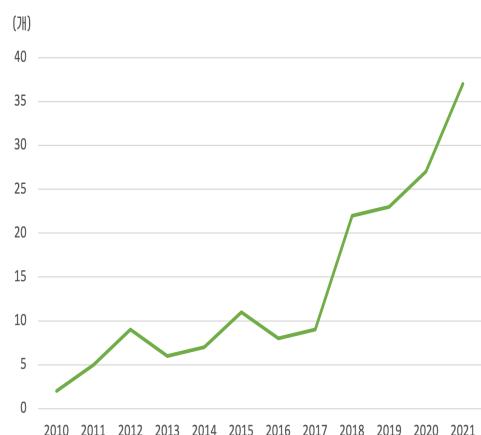
정왕동 밀집지는 형성 초기 생활환경 측면에서 안산시 원곡동 밀집지의 영향이 커울 것으로 추측되나,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커지자 자급자족이 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 재한조선족 인구 증가와 더불어 밀집지에 조선족 관련 상가와 시설들이 증가하고 있다. 2010년 개업신고한 중국음식점은 시흥시 전체에서 2개소였지만 가파르게 증가하여 2021년에는 37개소가 개업신고했다. 2019년 23개소 중 14곳이, 2020년 27개소 중 15곳이, 2021년 37개소 중 12곳이 정왕동에서 문을 열었다. 이들 중 대다수는 한국화된 중국요리점이 아닌 본토 중국요리점으로 양꼬치와 마라탕 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55] 시흥시 개업 중국음식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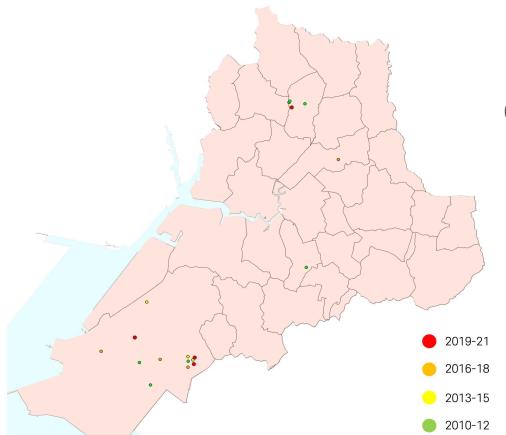
(자료 : 행정안전부, 로컬데이터 : 그룹별 업종조회. 저자 작성)

[그림 56] 시흥시 개업 중국음식점 개수



시흥시 전체에서 개업한 여행사는 그리 많지는 않아, 중국음식점만큼은 아니지만 개업신고한 국제여행사의 분포는 유의미함을 보여준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시흥시에서 개업신고한 국제여행사는 13개소로 이 중 8곳이 정왕동에 위치한다. 시흥시 조선족 인구분포와 어느 정도 일치한 셈이다.

[그림 57] 시흥시 개업 국제여행사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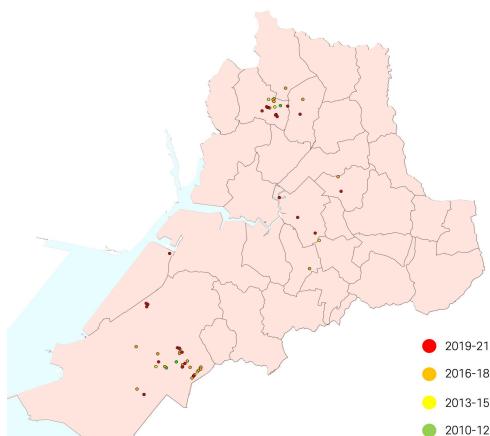
[그림 58] 시흥시 개업 국제여행사 개수



(자료 : 행정안전부, 로컬데이터 : 그룹별 업종조회. 저자 작성)

유료 직업소개소 역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시흥시에 개업신고한 68개소 중 35곳이 정왕동에 위치해 중국음식점 및 여행사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이처럼 재한조선족의 생활에 있어 밀접하게 관련된 업종들 중 다수가 위치한다는 것은 정왕동에 세력이 점차 집중되고 커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림 59] 시흥시 개업 유료직업소개소 분포



[그림 60] 시흥시 개업 유료직업소개소 개수



(자료 : 행정안전부, 로컬데이터 : 그룹별 업종조회. 저자 작성)

시흥시 정왕동 밀집지는 다문화 관련 기관과 시설 역시 많이 갖추고 있는 편이다. 대다수가 시흥시 남부에 소재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에 설립되었다.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에 따르면, 해당지역의 다문화 사업은 과거 공장근로 이주자의 처우와 생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는데, 2015년 전후로 재한조선족 근로자 상담건수가 증가했고 2018년 이후로 재한조선족 관련 행사가 증가했다고 한다. 이는 시흥시 정왕동 외국인 중 재한조선족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정왕동 밀집지는 군서초등학교와 군서미래국제학교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군서초등학교는 2009년부터 지금 까지 다문화특별학급 2개 반과 다문화예비학교를 운영 중이며, 군서미래국제학교는 1학년부터 9학년까지 초등·중등 교육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2023년 경부터 고등학교 교육체제 역시 도입할 계획이다. 시흥시는 2018년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되며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관련 이슈는 과거 이주초기 가족을 중국에 두고 온 재한조선족 노동자에게는 큰 관련이 없었으나, 가족구성원이 증가하게 된 재한조선족들의 이주 및 정주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61] 시흥시 다문화관련 기관 및 시설 분포 [그림 62] 시흥 군서미래국제학교 정문



4절. 소결

본 장에서는 재한조선족의 동향, 구밀집지 이탈 요인 그리고 신밀집지 정착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재한조선족의 분포는 아주 초기부터 수도권에 집중되어있었다. 이것은 제조업, 건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이들이 주로 종사하는 산업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많기 때문이다. 재한조선족의 정착 기간이 길어지자 수도권 내 지역의 인구가 변화되었는데 지난 10년간 서울은 전반적으로 다 감소하였으며, 경기도는 전체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경기도 부천시와 시흥시가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 재한조선족의 직전 거주지역을 살펴봤을 때, 부천시는 서울과 인천, 시흥시는 안산에서 많이 이주한 것으로 나타나, 신밀집지는 지리적으로 연접한 구밀집지와 상관관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체류자격으로 분류해 살펴봤을 때, 중국으로부터의 조선족의 유입은 줄고 정착한 사람들은 체류기간이 길어져 모든 밀집지에서 장기체류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정도는 신밀집지에서 더 크다. 특히 귀화자와 미성년 자녀 인구비율의 경우 구밀집지는 소폭 증가했지만, 신밀집지는 대폭 증가했다. 이는 재한조선족 사회의 장기체류자들이 앞장서서 신밀집지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구밀집지의 장기체류자들이 이탈현상은 크게 ‘지역 재개발과 주거불안정성’ 그리고 ‘사회적 특성의 변화’ 두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구밀집지가 재정비사업에 선정되어 대수선이 불가해지자 물리적 환경은 더욱 악화되었고, 사업이 추진되고 엎어지는 과정에서 주거불안정성을 느끼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 아래 재한조선족은 정착한 지 오래된 만큼 가족구성원이 증가해 더 넓은 집을 필요로 했으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선호하게 되었다. 또한 종사하는 산업과 사업장 내 지위의 변화 등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승됨에 따라 부동산 매입에도 큰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

한편 신밀집지 정착요인은 크게 ‘부동산과 주거안정성’, ‘일자리와 교통접근

성’, ‘조선족 관련 생활권’이다. 부천시 대산동 밀집지에 가장 많은 주택유형은 연립·다세대 주택인데, 매매 실거래가가 1억 6천만원 이하로 단독·다가구 주택(7억원)과 아파트(3억원)에 비하면 저렴해 부동산 매입을 원했던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곳은 일자리가 풍족하지는 않지만 훌륭한 교통망을 갖춰 건설업, 음식점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출퇴근하기 양호하다. 조선족 관련 가게와 시설 역시 구밀집지의 인프라에 의지하지 않을 정도로 많아져 생활권의 기능을 충족한다.

반면 시흥시 정왕동 밀집지는 부동산 매입이 부천만큼 급증하지는 않았지만, 행정절차가 덜 복잡해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단독·다가구 주택이 워낙 많았고, 구밀집지인 안산시보다 저렴한 부동산가격을 유지해 주거안정성 면에서 양호하다. 또한 시화공업단지 배후주거지로서 일자리 수급이 아주 용이해 이곳 주민들의 정착 요인은 일자리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족 관련 가게와 시설 역시 많이 생겨나 지역 내에서 자급자족할만한 생활권을 갖게 되었다. 이로써 신밀집지는 외국인 밀집지로서 생활권을 갖추었으며, 주거안정성과 일자리 면에서 장기체류자들이 구밀집지에서 느끼던 갈증을 해결해주었다.

구밀집지 이탈 요인과 신밀집지 정착요인을 살펴본 결과, 2차분화 현상은 1차분화 현상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점이 많다. 첫 번째는 지역 재개발의 추진으로 인한 주거불안정성이 촉발되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사회적 특성의 변화다. 1차분화 당시 재외동포법 통과와 연쇄이주 현상은 2차분화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가족구성원의 변화와 궤를 같이 한다. 세 번째는 그 대안으로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을 찾은 점이다. 그러나 확연한 차이점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 다음 장에서 그 차이를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제5장 신밀집지 실태 및 지역인식

본 장에서는 재한조선족 신밀집지의 주요 정착요인으로 꼽은 ‘부동산과 주거 안정성’, ‘일자리와 교통접근성’, ‘조선족 관련 생활권 형성’ 세 가지 요인이 실제로 작용하는지 심층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다. 이에 만 18세 이상 부천시와 시흥시 거주 재한조선족(귀화자포함) 각각 40명씩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두 지역은 최근 형성된 신밀집지로서 유사점이 많지만, 인구 특성과 중요하게 작용한 정착요인이 달랐다. 1절에서는 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두 지역을 비교·분석하여 4장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검증하고자 한다. 2절에서는 신밀집지 소재 자영업자, 근로자, 행인 등 내·외국인 각각 10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해 검증결과를 뒷받침하고자 하였다.

1절. 신밀집지 실태

신밀집지인 경기도 부천시 대산동 밀집지와 시흥시 정왕동 밀집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 먼저 두 지역 모두 4장 1절 ‘재한조선족 동향’에서 살펴봤던 장기체류자와 가족단위 가구의 비율이 높게 나왔다. 부천과 시흥 밀집지의 5년 이상 한국체류자는 각각 응답자의 90%와 77.5%였으며, 체류자격은 부천이 영주권(F5)이 35%, 재외동포(F4)가 20%로 가장 높았으며, 시흥은 재외동포(F4)가 42.5%, 영주권(F5)이 17.5%로 가장 높아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이 높은 상관관계를 가짐을 알 수 있었다[표33,34].

[표 33] 재한조선족 신밀집지 간 응답자 나이 및 성별 비교

(단위 : 명)

구분	총계	나이					총계	성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남자	여자
부천 대산동 밀집지	40	0	13	14	5	8	40	11	29
시흥 정왕동 밀집지	40	5	20	8	5	2	40	19	21

N = 80, (자료 : 저자 직접 집계 및 작성)

[표 34] 재한조선족 신밀집지 간 응답자 체류자격 비교

(단위 : 명)

구분	총계	결혼 (F6)	유학 (D2)	방문취업 (H2)	재외동포 (F4)	영주권 (F5)	귀화	기타
부천 대산동 밀집지	40	4	0	2	8	14	6	6
시흥 정왕동 밀집지	40	2	0	6	17	7	6	2

N = 80, (자료 : 저자 직접 집계 및 작성)

[표 35] 재한조선족 신밀집지 간 응답자 체류기간 비교

(단위 : 명)

구분	한국에서의 총 체류기간					현재 거주지역에서의 체류기간				
	3개월 -1년	1년 -2년	2년 -5년	5년 -10년	10년 이상	3개월 미만	3개월 -1년	1년 -2년	2년 -5년	5년 -10년
부천 대산동 밀집지	1	0	3	21	15	0	4	4	10	20
시흥 정왕동 밀집지	0	1	8	20	11	7	4	5	15	8

N = 80, (부천 40명, 시흥 40명) (자료 : 저자 직접 집계 및 작성)

[표 36] 재한조선족 신밀집지 간 응답자 가구단위 비교

(단위 : 명)

구분	총계	1인가구	2인가구	3인 이상 가구 (자녀포함)	3인 이상 가구 (부모포함)	3인 이상 가구 (부모·자녀포함)
부천 대산동 밀집지	40	4	8	19	4	5
시흥 정왕동 밀집지	40	3	6	18	5	8

N = 80, (자료 : 저자 직접 집계 및 작성)

부천과 시흥의 2인 이상 가구가 90%와 92.5%인 점으로 보아 대다수가 동거인을 둔 가족 단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 거주지 체류기간 ‘2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두 구간을 합친 비율이 각각 75%와 57.5%이며, ‘10년 이상’ 구간이 5%, 2.5%인 것으로 보아 두 지역 모두 지금 규모의 밀집지가 형성된 지 10년이 채 안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신밀집지 두 지역의 직전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부천 밀집지는 응답자 중 37.5%가 서울에서 왔으며, 30%는 같은 행정지역인 부천시, 22.5%가 경기도 타 지역⁷⁰⁾ 그리고 인천과 중국은 각각 2.5%, 7.5%였고, 시흥 밀집지는 응답자의 55%가 안산시 단원구, 15%가 같은 행정지역인 시흥시, 12.5%가 중국, 7.5%가 부천시 그리고 서울과 안산시 상록구가 5% 동률을 차지했다. 두 지역의 직전 거주지 결과는 [그림8,9]의 MDIS 자료에서 살펴본 주요 전출지역들과 인천을 제외하고 비슷하게 나타나 부천 밀집지는 서울에서, 시흥 밀집지는 안산에서 많이 이동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37] 부천시 거주 재한조선족 응답자 직전·현재 거주지 비교 (단위 : 명)

구분	부천시	서울시 구로구	서울시 금천구	서울시 영등포구	서울시 타지역	경기도 타지역	인천	중국
직전 거주지	12	4	2	4	5	9	1	3
구분	부천시 대산동	부천시 십곡동	부천시 소사본동	부천시 범안동	부천시 중동	부천시 타행정동		
현재 거주지	12	15	8	1	1		3	

N = 80, (자료 : 저자 직접 집계 및 작성)

[표 38] 시흥시 거주 재한조선족 응답자 직전·현재 거주지 비교 (단위 : 명)

구분	시흥시	안산시 단원구	안산시 상록구	부천시	서울시	경기도 타지역	인천	중국
직전 거주지	6	22	2	3	2	0	0	5
구분	시흥시 정왕본동	시흥시 정왕1동	시흥시 정왕2동	시흥시 정왕3동	시흥시 정왕4동	시흥시 타행정동		
현재 거주지	15	12	6	1	6		0	

N = 80, (자료 : 저자 직접 집계 및 작성)

[표 39] 재한조선족 신밀집지 응답자 간 현 거주지 정착이유 비교 (단위 : 명)

구분	주거안정성 및 환경 측면		사회·경제적 측면		생활·안전·교육측면			기타
	주거비용	주거쾌적성	일자리 수급용이	교통 접근성	조선족 관련 시설 접근성	기족 및 친지 거주 여부	다문화 특별 학급 유무	
부천 밀집지	12	2	0	8	14	9	5	3
시흥 밀집지	1	1	14	16	9	7	4	2

N = 80, (부천 40명, 시흥 40명, 복수응답 허용)

(자료 : 저자 직접 집계 및 작성)

70) 경기도 타지역은 시흥시, 안산시, 김포시, 성남시, 하남시 순으로 많이 응답했다.

1. 주거안정성과 주거환경

신밀집지의 재한조선족들은 거주지 이동과 동시에 거주하는 주택 유형과 질적인 면에서도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부천 밀집지의 경우 직전에 살던 주택 유형의 비율은 원룸 17.5%, 투룸 30%, 빌라 40%였는데, 현재 살고 있는 주택 유형은 원룸 5%, 투룸 25%, 빌라 57.5%로 바뀌었다. 시흥 밀집지의 경우 직전에 살던 주택 유형의 비율은 원룸 42.5%, 투룸 32.5%, 빌라 15%, 아파트 5%, 고시원·기숙사·사택 2.5%에서 현재 살고 있는 주택 유형은 원룸 17.5%, 투룸 42.5%, 빌라 20%, 아파트 15%로 바뀌었다. 두 지역 모두 원룸과 고시원·기숙사·사택 비율이 낮아지고 빌라와 아파트 비율이 높아짐으로써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질이 보다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표 40] 부천시 거주 재한조선족 응답자 직전·현재 거주 주택유형 (단위 : 명)

구분	다세대·다가구 원룸	다세대·다가구 투룸	연립주택 (빌라)	고시원·기숙사· 사택	아파트	기타
직전 유형	7	12	16	0	2*	3
현재 유형	2	10	23	0	2	3

* 2명 중 1명이 중국에서 아파트에 거주했다고 응답함.

** 응답자들이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을 구분하기 어려워해, 원룸·투룸으로 분류
N = 80, (자료 : 저자 직접 집계 및 작성)

[표 41] 시흥시 거주 재한조선족 응답자 직전·현재 거주 주택유형 (단위 : 명)

구분	다세대·다가구 원룸	다세대·다가구 투룸	연립주택 (빌라)	고시원·기숙사· 사택	아파트	기타
직전 유형	17	13	6	1	2*	1
현재 유형	7	17	8	0	6	2

* 2명 중 2명 모두 중국에서 아파트에 거주했다고 응답함.

** 응답자들이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을 구분하기 어려워해, 원룸·투룸으로 분류
N = 80, (자료 : 저자 직접 집계 및 작성)

주택의 크기 면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부천 밀집지의 경우 직전에 살던 주택 면적의 응답자 비율이 ‘33㎡미만’이 40%, ‘33㎡이상 66㎡미만’이 45%, ‘66㎡이상 99㎡미만’이 12.5%였는데,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은 ‘33㎡미만’이

10%, ‘33㎡이상 66㎡미만’이 67.5%, ‘66㎡이상 99㎡미만’이 20%로 바뀌었다. 시흥 밀집지의 경우 직전에 살던 주택 면적의 응답자 비율이 ‘33㎡미만’이 30%, ‘33㎡이상 66㎡미만’이 52.5%, ‘66㎡이상 99㎡미만’이 15%였는데,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은 ‘33㎡미만’이 12.5%, ‘33㎡이상 66㎡미만’이 45%, ‘66㎡이상 99㎡미만’이 40%로 바뀌었다. 두 지역 모두 주택의 크기가 증가한 것은 가족 구성원이 증가한 점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거주지를 선택한 이유에 대한 응답으로 ‘집이 더 넓고 깨끗해서’ 항목을 선택한 사람은 부천 밀집지는 2명, 시흥 밀집지는 0명으로, 재한조선족들에게 있어 ‘주거 쾌적성’은 중요해보이지 않지만, 더 품질 좋고 넓은 곳으로 이동한 경향성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거주지 정착요인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2] 재한조선족 신밀집지 간 응답자 간 직전·현재 거주 주택크기 비교 (단위 : ㎡, 명)

구분	직전 거주 주택				→	현재 거주 주택			
	33 미만	33~66	66~99	99 이상		33 미만	33~66	66~99	99 이상
부천 밀집지	16	18	5	1		4	27	8	1
시흥 밀집지	12	21	6	1		5	18	16	1

* 중국은 주택면적 단위를 ‘평’보다는 ㎡’을 사용하므로 설문조사 시 두 단위 모두 기재했다.

N = 80, (자료 : 저자 직접 집계 및 작성)

주택의 점유 형태도 달라졌다. 부천 밀집지의 경우 직전에 살던 주택 계약 방식 비율이 월세 67.5%, 전세 17.5%, 매매 12.5%에서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은 월세 32.5%, 전세 25%, 매매 42.5%로 바뀌었다. 시흥 밀집지의 경우 직전에 살던 주택 계약방식의 응답자 비율이 월세 75%, 전세 15%, 매매 5%에서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은 월세 52.5%, 전세 17.5%, 매매 30%로 바뀌었다. 두 지역 모두 월세방식이 감소했고, 전세와 매매방식이 증가했다. 한편 주거비용은 두 지역 모두 직전 주택보다 증가했다. 하지만 전세방식과 매매방식이 매달 지출되는 비용이 월세보다 적어, 결과적으로는 주거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있다. 주거비용을 아끼고 자신만의 주택을 소유하고자 한다는 점

에서 신밀집지 재한조선족은 ‘주거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거주지를 선택한 이유에 대한 응답으로 ‘주거비용이 저렴해서’ 항목을 선택한 사람은 부천 밀집지는 12명, 시흥 밀집지는 1명으로, 부천으로 이주한 재한조선족들에게 집값이 정착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표 43] 재한조선족 신밀집지 간 응답자 간 직전·현재 거주 주택 점유형태 비교 (단위 : 명)

구분	직전 거주 주택				→	현재 거주 주택			
	월세	전세	매매	기타		월세	전세	매매	기타
부천 밀집지	27	7	5	1		13	10	17	1
시흥 밀집지	30	6	2	2		21	7	12	0

N = 80, (자료 : 저자 직접 집계 및 작성)

[표 44] 재한조선족 신밀집지 간 응답자 간 직전·현재 주거비용 비교 (단위 : 만원)

구분	직전 거주 주택				→	현재 거주 주택			
	월세	전세	자가	기타		월세	전세	자가	기타
부천 밀집지	36.8	6,800	-	-		42.3	11,100	17.7	-
시흥 밀집지	35.6	6,833	-	-		40.7	7,285	16.8	-

* 월세는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이며, 자가는 재산세로 환산했다.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제외)

N = 80, (자료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거래도우미 세금계산기』, 저자 직접 집계 및 작성)

2. 일자리와 교통접근성

신밀집지 재한조선족은 사회·경제적 지위에서도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2021년 통계청 MDIS 자료의 종사상 지위[표20]에 따르면, 재한조선족 노동자 중 자영업자는 약 5.56% 정도인데, 부천 밀집지와 시흥 밀집지는 각각 35% 와 27.5%에 달했다.⁷¹⁾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 비율은 통계청 자료와 거의 같아, 재한조선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특정 밀집지를 초월하여 전국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가지고 있다. 한편 두 밀집지 응답자의 소득구간은 전국

71) 해당 결과는 설문조사 당시 주로 평일 오후, 밀집지 내에서 진행했기에 표본 중 출퇴근 직장인이 적고, 사업자가 많은 한계가 있었다.

의 재한조선족 노동자 월평균 급여보다 높은 편으로, 임금상승을 위해 지역을 이동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45] 재한조선족 신밀집지 간 응답자 근로형태 비교 (단위 : 명)

구분	총계	자영업자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아르바이트	휴직 및 무직
부천 대간동 밀집지	40	14	12	12	2	0
시흥 정왕동 밀집지	40	11	12	15	2	0

* 응답자가 현재 무직자일 경우 또는 가정 내 소득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주소득자 기준으로 응답함
N = 80, (자료 : 저자 직접 집계 및 작성)

[표 46] 재한조선족 신밀집지 간 응답자 연간 소득구간 비교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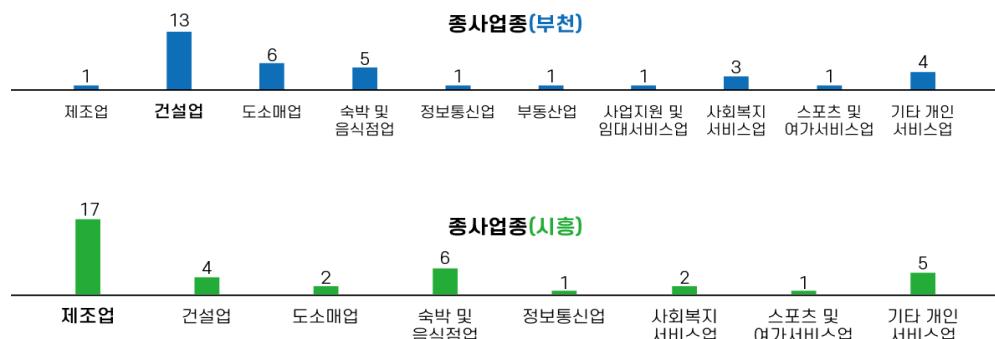
구분	총계	2천만원 미만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4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	6천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	응답안함
부천 대간동 밀집지	40	5	20	11	0	4
시흥 정왕동 밀집지	40	3	20	11	1	5

* 응답자가 현재 무직자일 경우 또는 가정 내 소득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주소득자 기준으로 응답함
N = 80, (자료 : 저자 직접 집계 및 작성)

두 신밀집지는 종사하는 산업분야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부천 밀집지 응답자들의 주요 종사분야는 건설업이 32.5%, 도·소매업이 15%, 숙박 및 음식점업이 12.5%, 기타 개인서비스업이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7.5%였으며, 시흥 밀집지의 경우 제조업이 42.5%, 숙박 및 음식점업이 15%, 기타개인서비스업이 12.5%, 건설업이 10%였다. 이는 4장 3절에서 살펴본 두 지역의 LQ지수 값이 높았던 산업분야와 일치한다. 이는 단순히 재한조선족이 증가하여 이들이 주로 종사하는 산업분야가 성장한 것이 아니라, 해당 산업분야의 일자리 공급이 원활하여 밀집지 형성의 토대가 되었을 것이다. 거주지를 선택한 이유에 대한 응답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쉬워서’ 항목을 선택한 사람은 부천 밀집지는 0명, 시흥 밀집지는 14명으로, 부천 밀집지의 재한조선족들은 ‘일자리’가 거주지 선택에 있어 전혀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았으며, 시흥 밀집지

는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표39]. 이는 종사 분야 특성과 관련이 있는데, 부천 밀집지에서 큰 비율을 차지하는 ‘건설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 특성상 현장에 파견을 나가기 때문에 거주지역이 크게 중요하지 않으며, 시흥 밀집지는 공업단지가 있어 일자리를 위해 거주지역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 63] 재한조선족 신밀집지 간 응답자 종사 산업군 비교 (단위 : 명)



N = 80, (자료 : 저자 직접 집계 및 작성)

한편 직주거리도 신밀집지 정착요인으로서 작용했다. 거주지를 선택한 이유에 대한 응답으로 ‘직장과의 거리가 가깝고 교통이 편리해서’ 항목을 선택한 사람은 부천 밀집지는 8명, 시흥 밀집지는 16명으로 시흥 밀집지의 조선족 동포들에게 직장이 차지하는 중요도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표39].

3. 재한조선족 관련 생활권 형성

내국인 밀집지와 비교하여 재한조선족 밀집지가 외국인 집단거주지로서 가장 부각되는 특성은 역시 상업·문화시설과 거리에서 풍기는 이질적인 분위기다. 정착기간이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향신료가 들어간 식단을 따르고, 자기집 안방 또는 이른바 ‘커맥집’으로 불리는 다방에서 지인들과 담소

를 함께하며 시간을 보내고, 중국식 오락실과 노래방에서 밤문화를 즐기는 등, 중국에서부터의 식습관, 여가 및 유흥문화 등 생활양식은 과거에 비해 크게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밀집지 역시 지역 내에 위치한 각종 상업 및 여가시설의 유형이 구밀집지와 비슷한 것으로 보아 전통적인 생활양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거주지를 선택한 이유에 대한 응답으로 ‘식당, 시장, 여행사 등 동포 관련 가게가 많아 생활하기 편해서’를 선택한 사람들은 부천 밀집지는 14명, 시흥 밀집지는 9명으로 조선족 관련 시설의 유무는 이들의 정착에 있어 매우 크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표39].

‘가족 및 친지의 거주 여부’ 역시 재한조선족 밀집지가 외국인 집단거주지로서 가지는 큰 특성이다. 앞서 3장에서 살펴봤듯이 친척 초청을 통한 ‘연쇄이주’는 구밀집지의 형성과 1차분화 당시 인구증가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이는 2차분화와 신밀집지 형성에 있어서도 크게 작용했다. 거주지를 선택한 이유에 대한 응답으로 ‘가족 및 친지들이 살고 있어서’를 선택한 사람들은 부천 밀집지는 9명, 시흥 밀집지는 7명으로 이들의 한국생활에 있어 가족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표39].

한편 이주초기에는 크게 대두되지 않았던 재한조선족 밀집지의 또 다른 특성은 ‘다문화 특별학급의 유무’다. 이주초기 자녀를 중국에 두고 홀몸으로 한국에 정착했던 이주 1세대와 달리 이들의 자녀세대(이주 2세대)는 오늘날 한국에서 가정을 꾸리거나 한국에서 자녀와 같이 체류하고 있다. 자녀를 둔 이주 2세대 부부들은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양육과 교육환경에도 신경을 써야했고, 취객들이 난무하는 좁디좁은 골목과 경사진 동네가 많은 구밀집지는 양육환경이 불량해 떠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거주지를 선택한 이유에 대한 응답으로 ‘조선족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초등학교가 있어서’를 선택한 사람들은 부천 밀집지는 5명, 시흥 밀집지는 4명으로 모두 자녀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었다. 정착요인으로서 교육환경은 이전 세대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던 경향으로 이주2세대가 거주지를 선택하는 모습은 자녀를 둔 한국부부의 그것과 흡사하다.

2절. 신밀집지 지역인식

앞서 살펴본 신밀집지의 실태에서는 ‘주거 안정성과 주거환경’, ‘일자리와 교통접근성’, ‘재한조선족 관련 생활권 형성’의 세 가지 방향에서의 정착요인이 재한조선족의 신밀집지 정착에 실제로 작용했는지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해보았다. 본 절에서는 신밀집지 두 지역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주민들과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앞 절에서 분석한 내용들을 현상학적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1. 경기도 부천시 대산동 일대

부천시에 오래 거주한 재한조선족들의 중언에 따르면, 부천시 남부에 재한조선족 밀집지가 형성되어 지금의 모습을 갖춘 것은 10년이 안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형성 초기 단계에서는 다수가 자영업에 종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제가 처음 왔을 때는(2006년 경) 교포들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남편이 한국사람이어서 국제결혼 했거든요. 남편 따라 온거죠. 그러다가 식료품점을 차렸고 장사가 잘됐어요. 영등포나 인천에서 떼다 파는 그런.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접고 화장품 유통업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여기 온 동포들은 장사 때문에 왔을거에요. 가게세가 서울보다 싸고, 교통 괜찮고.”

(재한조선족 자영업자, 부천시 소사본동 거주)

부천 밀집지의 재한조선족들은 설문조사 결과상 ‘주거비용’은 중요도가 높았으나, ‘주거 쾌적성’은 낮게 나왔다. 하지만 응답자의 37.5%가 더 큰 집으로 이사했으며, 응답자의 30%가 더 쾌적한 주택유형으로 이사한 사실로 보아, 거주지선택에 있어 주거 쾌적성 역시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저는 대림에서 일하고 독산동에서 살았었는데, 부천 집들이 더 좋지는 않아요. 근데 넓긴 하죠. 같은 돈 내고 더 넓으면 좋죠. 그리고 여긴 좀만 무리하면 내 집이 되니까..” (재한조선족 자영업자, 부천시 대산동 거주)

주택의 질적인 측면에서 부천 밀집지 역시 건축물 노후도가 높은 편으로 구밀집지들과 비교했을 때 차별화될 정도로 쾌적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같은 비용이 든다고 가정했을 때, 부천 밀집지가 매매와 임대 방식에서 모두 더 큰 집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재한조선족들에게 큰 이점으로 작용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재한조선족들은 주거안정성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주택을 매매하는 것일까. 부천시의 주택을 매매하는 사람들에 대한 업계 관계자의 발언도 있었다.

“주변 어린 사람들이 부천으로 많이 가고 있지. 월세가 더 싸지는 않은데 투룸이나 빌라 매물이 많아 거기가 지난 정부 때 외국인들 대출규제도 없어서 거기 입사는 사람도 많아. 원래 우리 중국사람들이 일이든 장사든 엄청 열심히 하고 머리가 좋아서 빨리 건물 사고 싶어서 그런거야.”

(재한조선족 공인중개사, 서울시 대림동 거주)

해당 발언의 핵심은 재한조선족들이 부동산을 많이 매수한다는 것으로 방문했던 구밀집지 소재 공인중개사들에게 공통적으로 들었던 이야기다. 실제로 부를 쌓은 재한조선족 사이에서는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고 있는 듯 했다.

“심곡본동 쪽에 중국인들이 많이 늘긴 했어요. 제가 처음 여기서 일할 때는 고시원 구하는 아저씨들만 있었는데, 네 한 10년 전쯤. 지금은 하루에도 몇 건씩 문의가 와요. 가족단위죠. 네 매매문의도 일주일에 3~4건 정도 있어요. … (중략) … 한국인들이 그렇다고 중국인들 때문에 이사가지는 않아요. 속으로는 싫겠죠. 근데 딱히 티는 안내는 것 같아요. 여기 사람들도 주머니 사정이 좋은건 아니라 당장 어디 가기도 그렇고, 이제 집주인들은 좀 예민하겠죠. 집값 떨어질까봐. 그래서 빨리 팔고 다른데로 가시기도 하고.”

(내국인 공인중개사, 부천시 거주)

부천 밀집지 내부에서의 분위기 역시 마찬가지였다. 부동산을 계약하려는 조선족 동포들이 실제로 많아졌으며 아직까지 매매보다는 임대 계약이 더 많다고 한다. 집값에 민감한 내국인 집주인들은 재한조선족 밀집지가 형성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딱히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것은 아니라서, 집을 팔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려고 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렇게 부동산 매물 공급이 증가하자 결과적으로 부동산 매입을 원하는 또 다른 재한조선족의 유입이 증가했다.

한편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도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 중 하나는 부천 밀집지로 들어온 재한조선족 동포들은 경제적 여건이 구밀집지보다는 조금 나은 편이라는 것이다. 그 배경으로 자영업자들의 등장을 꼽을 수 있다.

“우리 동포들이 중국음식이 유행할 때 부천에 많이 왔습니다. 부천역이 어린 사람들이 다니는 술집도 많고 중국음식이 또 어린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게 되어서 운때가 좋았습니다. 동포들만 가지고는 이 정도로 장사하긴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동포들 중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재한조선족 자영업자, 부천시 대산동 거주)

사람은 주로 자신과 비슷한 환경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를 하기에 이 이야기를 모두 신뢰할 수는 없지만, 음식점을 비롯한 상가들의 등장이 부천 밀집지가 성장에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로 보인다. 상업시설의 증가는 관련 업종의 유입과 고용인구를 증가시키는데, 재한조선족 특성 상 가족, 친척 또는 같은 동포를 고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아주 1세대의 재한조선족은 노화로 인해 육체노동이 불가능함으로 중국으로 돌아가거나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는 갈림길에 서있으며, 실제로는 중국으로 돌아가는 이들이 더 적고 계속 정착해서 자식들과 같이 살거나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⁷²⁾

“이 동네 중국인 아저씨들 다 건설일한다고 봐도 과장이 아니에요. 예전엔 인천 쪽에 많이 갔다가 요새는 광명, 안양, 군포 쪽에 일이 많아요. 아줌마들은 모텔 청소나 식당 많이 나가죠. 얘기 돌보는거나 요양일도 꽤 있지만, 업체들 연락 들어오는건 파출이나 홀서빙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내국인 인력소개소 대표, 부천시 거주)

72) 정선주(2021), 재한조선족 자영업자의 한국 정착과 창업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pp. 214-215.

통계와 설문조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부천 밀집지 임금 근로자들이 종사하는 산업은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업’에 집중되어있었으며, 인력소개소를 통해 일감을 얻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유형 역시 아주 초기의 유형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것 같다. 보다 더 나은 체류자격을 얻기 위해 자격증을 획득하거나, 업계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자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사업장 내에 입지를 있는 다지고 있는 반면, 코로나19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대폭 감소해 임금을 더 챙겨주는 사업장을 찾아 이동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한편 생활 측면에서 문현과 통계로 확인할 수 없는 더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가리봉동은 언덕도 많고 늘 차며 오토바이며 조심해야해요. 그리고 낮부터 술취한 아저씨들이 많아요. 얘기를 키우기엔 아이 좋죠(안좋죠)”
(재한조선족 주민, 부천시 대산동 거주)

“구로는 어른들이 많고 동네가 발전이 없어요. 그리고 다 교포라서 편한 느낌은 있는데 뭐랄까 저희는 그게 오히려 별로였어요. 이미 서로 다 아는 사람들이라 유세부리는(문맥상 ‘텃세’) 좀 그런게 있어요.”

(재한조선족 주민, 부천시 심곡동 거주)

구밀집지에서 신밀집지로 주거이동한 응답자들의 면담내용에 따르면, 구밀집지를 이탈한 주요 이유는 치안, 가로환경, 커뮤니티에 대한 내용이 많았으며, 신밀집지의 조선족 관련 상업과 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구밀집지와 크게 차이가 없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한다. 구밀집지는 이미 재한조선족 내에 중추세력이 자리 잡고 있으며, 아주 2세대에 해당하는 젊은 부부들에게는 이들이 지역 기득권으로 비추어져 새로운 지역에서 정착하고 싶은 열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이를 가진 젊은 부부들의 입장에서 구밀집지의 불량한 치안과 가로환경은 양육환경에 있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부천

시 대산동의 경우 거리가 깨끗하고 조용해서 좋다고 했다. 부천 밀집지의 재한조선족들은 거주지역 선택에 있어 일자리보다는 주거비용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며, 구세대에게서 벗어나 자신들만의 마을을 형성하고자 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2.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일대

시흥시 정왕동에 오래 거주한 내국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시흥시 남부에 재한조선족 밀집지가 형성되어 지금의 모습을 갖춘 것은 10년이 안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형성 초기 단계부터 지금까지 다수가 제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왕동 이 동네가 원래 한 2010년까지는 중국인이 많이 없었어. 원래 치안이 좋거나 비싼 동네는 아니었지만 중국인들이 지금 있는거에 한 10프로는 됐나.. 확 체감이 들 정도로 많이 늘어난건 2013년 14년께에 시화공단에 공장들이 다 들어오면서부터 같아. 요즘 아침마다 셔틀하고 봉고차가 꽉 들어서. 저기 큰 길(정왕신길로)께에 원래 가구, 지물포, 이불 같은거 팔던 곳인데, 지금은 다 인력사무소로 바뀌었거든.”

(내국인 공인중개사, 시흥시 정왕본동 거주)

시흥 밀집지의 재한조선족들은 설문조사 결과상 ‘주거비용’과 ‘주거쾌적성’ 항목은 각각 응답자가 1명으로 중요도가 매우 낮았다. 하지만 응답자의 47.5%가 더 큰 집으로 이사했으며, 응답자의 45%가 더 쾌적한 주택유형으로 이사한 사실로 보아, 거주지선택에 있어 주거비용과 주거쾌적성 역시 중요하지만 그 우선순위가 낮아 보인다. 안산시 단원구와 인접해 있어서인지 원체 부동산가격이 높지 않아서였던지 집주인들이 재한조선족 밀집지의 성장에도 크게 민감하지 않다고 한다.

“중국인들이 늘면서 한국사람들이 오이도 쪽이나 안산 상록수로 많이 빠졌어. 같이 살기 불편하니까.. 근데 또 위낙 공실이 많았어서 중국인들이 다 채워주니까 집주인들은 좋아하지.”

(내국인 공인중개사, 시흥시 정왕본동 거주)

실제로 면담 당시 조선족 주민들에게서 집값이나 주거품질에 대한 내용은 듣기 어려웠으며, 직장을 반월공단에서 시화공단으로 옮겨 안산시 원곡동보다 가까운 정왕동으로 이사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저와 서방은 원래 금속가공쪽에서 일했었어요. 그러다가 전자제품 생산라인 관리하는 직으로 옮겼어요. 네. 예전보다 돈을 더 많이 받아요. 제가 얘기 때문에 일 안하고 있어도 될만큼이요.”

(재한조선족 주민, 시흥시 정왕1동 거주)

이처럼 시흥 밀집지의 재한조선족 주민들에게는 거주지 선택에 있어 살고 있는 주택의 문제보다 직장이 가지는 중요도가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시흥 밀집지 역시 부천과 마찬가지로 생활 측면에서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 (초청) 통해서 20살에 한국에 왔어요. 원래 ○○성 출신인데, 안산으로 간거지요. 근데 요새 중국도 이렇게 (안산시 원곡동처럼) 지저분하지 않아요. 결혼하면서 새로운 곳에 살아보자. 남편 현장이 주로 경기도라서 굳이 원곡동에 있을 필요가 없었죠.”

(재한조선족 주민, 시흥시 정왕본동 거주)

“안산은 피부가 검은 사람들이 많아서 같은 동네에서 살기 싫었어요. 우리만 있는 동네가 좋죠. 그리고 거기(원곡동)는 거리가 너무 지저분해요.”

(재한조선족 주민, 시흥시 정왕1동 거주)

구밀집지에서 주거이동한 동포들의 면담내용에 따르면, 구밀집지를 이탈한 주요 이유는 치안, 가로환경, 커뮤니티에 대한 내용이 많았으며, 신밀집지의 조선족 관련 상업과 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구밀집지와 크게 차이가 없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한다. 이러한 점은 곁으로 보기엔 부천 밀집지와 아주 유사하지만, 그 대상과 내용이 달랐다. 아주2세대 젊은 부부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커뮤니티의 주체는 안산에 거주하는 다른 국적을 가진 외국인들로, 부천 밀집지의 대상이 구세대인 점과 대조된다. 비록 순화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해당 발언을 한 면담자들의 기저에는 타 인종에 대한 선민의식 또는 자신들만의 커뮤니티를 구성하고자 하는 동류의식이 다소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은 자녀의 양육 및 교육환경 선택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저희 애들은 몇 년전에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여기 학교가 더 좋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물론 학교 때문에 여기로 이사온건 아니지만, 안산은 다른 나라 애들도 많고 학교도 오래 됐는데, 여기 학교는 지원도 많고 중국애들이 훨씬 많이 다니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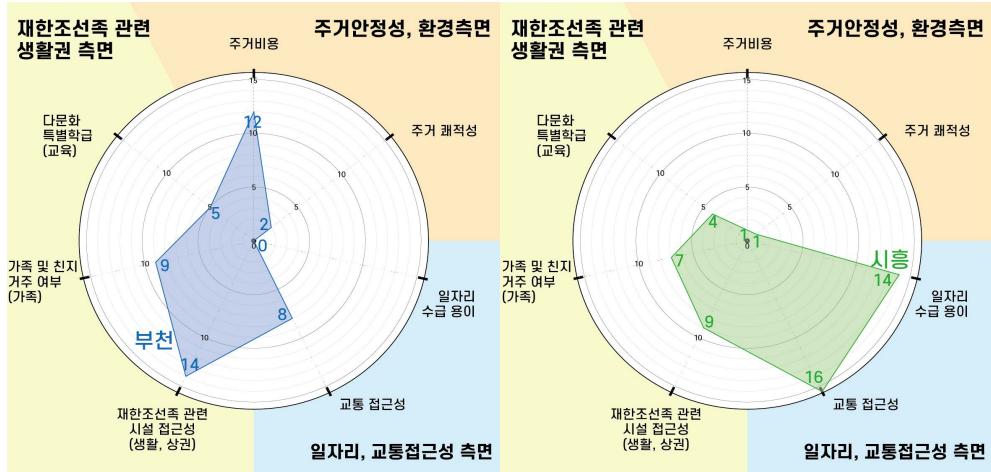
(재한조선족 주민, 시흥시 정왕본동 거주)

해당 발언들이 시흥 밀집지에 거주하는 모든 재한조선족들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면담자들에게서 들은 바, 일정부분 공통된 인식으로 보인다. 시흥 밀집지의 재한조선족들은 거주지역 선택에 있어 주거비용과 품질보다는 일자리와 직주거리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며, 타국적 외국인들로부터 벗어나 자신들만의 마을을 형성하고자 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3절. 소결

본 장에서는 재한조선족 신밀집지 정착요인이 실제로 작용했는지에 대해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 결과를 통해 확인해보았다. 먼저 신밀집지인 부천시 대산동 일대와 시흥시 정왕동 일대 두 지역 모두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에서 장기 체류자 비율이 높았으며 가구단위에서 가족단위 가구 비율이 매우 높음을 확인했다.

[그림 64] 재한조선족 신밀집지 응답자 간 현거주지 정착이유 비교(좌 부천, 우 시흥) (단위 : 명)



N = 80, (자료 : [표38]을 시각화)

현 거주지를 선택한 이유에 대한 응답으로 ‘주거비용이 저렴해서’를 선택한 사람은 부천은 12명, 시흥은 1명이었으며, ‘집이 더 넓고 깨끗해서’를 선택한 사람은 부천은 2명, 시흥은 0명이었다. 두 지역 모두 더 넓고 깨끗한 주택 유형으로 이사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부천에서만 ‘주거안정성’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부천시에서 재한조선족의 부동산매입 행위가 증가한 현상에 대한 설명이 된다. 한편 부동산가격에 민감한 내국인 집주인들은 이들의 유입을 반갑게 여기지 않았으며, 집을 팔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매물로 나온 집을 다시 조선족 동포가 매입해 결과적으로 재한조선족 밀집지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

다음으로 현 거주지를 선택한 이유에 대한 응답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쉬워서’를 선택한 사람은 부천은 0명, 시흥은 14명이었으며, ‘직장과의 거리가 가깝고 교통이 편리해서’를 선택한 사람은 부천은 8명, 시흥은 16명이었다. 두 지역 모두 자영업자의 비율과 임금수준이 재한조선족 근로자 평균보다 높았지만, 부천 밀집지는 지역에 큰 일자리가 없어 중요한 정착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한 반면 시흥 밀집지는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시화공단의 근로자로 ‘일자리’가 차지하는 중요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집단거주지로서 내국인 마을과 차별화되는 재한조선족 밀집지의 특성은 ‘재한조선족 관련 생활권’ 측면으로 신밀집지 두 지역 모두 조선족 관련 상업, 문화, 교육시설 보유량에서 충분히 자급자족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현 거주지를 선택한 이유에 대한 응답으로 ‘생활·가족·교육’을 선택한 사람들의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으로 가장 중요한 정착요인은 아니지만 없으면 생활할 수 없는 필요조건인 셈이다.

신밀집지는 인접한 구밀집지의 특성을 물려받는다. 신밀집지의 정착요인으로서 부천과 시흥 간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주거안정성’과 ‘일자리’였다. 이는 구밀집지인 서울 남서부 일대와 안산의 초기 형성요인이 상이한 것과 같다. 서울 남서부는 구로공단의 붕괴 이후 배후주거지에 빈 집이 늘어나 저렴한 주거비용을 찾는 과정에서 모여 들었다면, 안산은 반월공단이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일자리 수급을 위해 모여들은 차이가 있다. 서울남서부와 부천은 ‘대도시 저렴주택지’ 유형이며, 안산과 시흥은 ‘공단배후 노동자거주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밀집지의 특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점을 미루어보아 구밀집지가 인접한 신밀집지의 부모격인 셈이다.

한편 구밀집지를 이탈한 젊은 부부들이 구밀집지의 커뮤니티를 비판하며 그 대안으로서 신밀집지를 찾은 이유는 부천은 ‘구세대 재한조선족’ 집단으로부터,

시흥은 ‘타 국적 노동자’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호한 치안 및 가로환경 등을 원하는 모습에서 내국인의 모습과 닮아갔다. 정착기간의 장기화로 등장한 새로운 세대는 여러 사회적 변화를 겪으며, 거주지 선택에 있어 고려할 사항들이 다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2차분화 현상에서만 발견되는 점으로 1차분화 현상과 명확한 차이를 보인다.

[표 47] 1차분화와 2차분화 현상 간 비교

구분	1차분화		2차분화
	서울 남서부	부천 밀집지	시흥 밀집지
분화시기	2000년대 중반	2010년대 중반	2010년대 중반
구밀집지	가리봉동	서울 남서부	안산시 원곡동
이탈 요인	주거 불안정성	- 재정비로 인한 대수선 불가 - 주거환경 질적 저하 - 부동산 매매가 상승	- 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매매가 상승
	사회적 변화	- 재외동포법 통과 - 고용허가제 시행 - 친척조정범위 확대	- 가족 구성원 증가 -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 - 쾌적한 주거환경 선호
신밀집지	서울 남서부 일대 (대림2동, 구로2·4동 등)	경기도 부천시 대산동 일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일대
정착 요인	주거	- 단독·다가구 주택 - 반지하 옥탑방	- 연립·다세대 주택 - 매입 증가
	일자리	- 건설업, 서비스업	- 건설업, 서비스업
	생활	- 조선족 관련 상업시설 - 재외동포(F4)체류자격을 위한 기능사 학원	- 조선족 관련 상업시설 - 다문화 특별학급
거주자 특성	- 이주 1세대 - 1인가구	- 이주 2세대 - 친족 가구(가족단위) - 양호한 환경(치안, 가로) - 구세대집단로부터의 분리	- 이주 2세대 - 친족 가구(가족단위) - 양호한 환경(치안, 가로) - 타국적집단으로부터의 분리
분화의 형태	- 팽창 및 확산	- 파생 및 전이	- 파생 및 전이

제6장 결론

1절.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수도권 재한조선족 밀집지가 형성되고 쇠락하는 과정에서 주변 지역으로 분화되는 과정에 주목하여 시작되었다. 재한조선족의 첫 밀집지로 알려진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이 주변부인 서울 남서부 일대로 확장되는 과정을 1차분화 현상으로 규정하고, 이후 서울 남서부 일대에서 다시 경기도 부천시 대산동 일대로 전이되는 과정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이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일대로 전이되는 과정을 2차분화 현상으로 규정하였다. 그리하여 각 재한조선족 밀집지 간의 차이를 형성과정과 현황 차원에서 분석하고, 재한조선족 밀집지 분화현상에 대한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먼저 초기 밀집지인 가리봉동 밀집지와 원곡동 밀집지가 형성되는 과정 그리고 가리봉동 밀집지가 서울 남서부로 팽창하는 1차분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두 지역은 1990년대 중반에 공단 배후주거지로 시작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하지만 조선족 유입 당시 구로공단은 이미 쇠퇴한 이후였고, 반월공단은 한창 성행중인 상태였다. 두 지역의 중요 정착요인은 가리봉동은 ‘저렴한 주거비용’, 원곡동은 ‘용이한 일자리 수급’이었다. 이후 가리봉동 밀집지는 ‘고용허가 제 실시로 인한 불법체류자 집중단속’, ‘재개발사업 추진 및 취소로 인한 지역 낙후’ 등 2000년대 중반부터 성장세가 꺾이면서 주변지역으로 인구가 유출되는 1차분화 현상이 일어났다. 1차분화로 대림동 밀집지가 명실상부 가장 큰 재한조선족 차이나타운이 되었다.

이후 큰 변화가 없던 재한조선족 지역사회는 2010년대 중반 들어 2차분화가 시작되었다. 서울의 재한조선족 인구가 감소한 반면 경기도는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남서부 일대와 안산 원곡동 등 구밀집지의 장기체류자 비율이 소폭 증가한 반면, 신밀집지는 장기체류자 비율이 대폭 증가했다. 또한

귀화자 및 미성년 자녀 같은 장기체류자들이 구밀집지를 떠나 신밀집지로 향하고 있었다. 장기체류자들이 구밀집지를 이탈하는 원인은 주로 ‘지역 재개발 사업과 주거불안정성’과 ‘사회적 특성의 변화’ 두 가지로 재개발 사업이 반복적으로 추진되고 취소되는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불안해졌고, 가족구성원 증가 및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을 기반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지역을 떠나게 되었다.

신밀집지 정착요인은 크게 ‘주거안정성과 주거환경’, ‘일자리와 교통접근성’, ‘재한조선족 관련 생활권’이다. 특히 부천 대산동 밀집지는 매매가가 저렴한 연립·다세대 주택이 다수 입지해 있어 주거안정성을 충족시킬 수 있었고, 시흥 정왕동 밀집지는 시화공단이 입지해 일자리와 교통접근성을 충족시킬 수 있었다. 두 지역 모두 최근 조선족 관련 상업, 문화, 학교 시설 등이 우후죽순 들어서게 되어 생활편의성 면에서도 충족했다.

2차분화는 세 가지 측면에서 1차분화 현상과 같은 구조를 가진다. 첫 번째는 지역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주거불안정성 촉발이다. 두 번째는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과 가구단위의 증가 같은 사회적 특성의 변화다. 세 번째는 대안으로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을 찾은 것이다. 다만 차이점은 재한조선족의 새로운 세대가 구세대 집단 또는 타국적 노동자 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원한다는 점이다.

2절. 연구의 시사점

1. 경기도 서부에 재한조선족 신밀집지들이 형성되고 있다.

재한조선족에 관련된 언론과 연구의 공간적 배경은 항상 서울 남서부인 가리봉동, 대림동 그리고 안산시 원곡동에 집중되어왔다. 그러나 지난 10년 간 재한조선족 인구의 무게중심은 서울에서 경기도로, 구밀집지에서 신밀집지로 이동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 부천 대산동 일대와 시흥 정왕동 일대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 분화현상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장기 체류자들이 중심이 되어 이동에 앞장서고 있다. 비교적 자격요건이 까다로운 재외동포(F-4), 영주권(F-5) 체류자격 소지자들과 귀화자 및 미성년자녀의 비율이 신밀집지가 구밀집지보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둘째, 신밀집지의 지리적 위치는 구밀집지와 인접하다. 신밀집지인 부천 거주 재한조선족은 서울과 인천에서 많이 이주했으며, 그 중 서울 남서부 일대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시흥 거주 재한조선족은 경기 안산 출신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따라서 재한조선족 밀집지 분화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 간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2. 구밀집지와 신밀집지 형성패턴이 유사하나, 거주자의 가치관이 다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밀집지 중 서울남서부 일대는 1차분화를, 신밀집지는 2차분화를 거쳐 형성되었다. 본 연구는 1차와 2차분화의 발생요인에 있어 세 가지 공통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재개발 등 부동산 이슈로 인한 ‘주거 불안정성 촉발’이다. 1차분화 당시 가리봉동 재정비사업의 잇따른 추진 및 취소가 있었다면, 2차분화는 지역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으로 부동산 매매가가 높아졌다. 두 경우 모두 구조적으로 비슷한 결과를 낳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거주자의 사회적 특성 변화’다. 1차분화 당시 초기 가리봉동 재한조선족들은 불법체류자도 많았지만, 고용허가제 실시, 재외동포법 개정 등으로 사회적 지위가 상승했으며 친인척 초청범위가 확대되어 다인 가구 형태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2차분화의 경우 정착이 장기화되어 재한조선족 개개인의 종사 산업군이 다양화되고 평균임금이 상승했으며, 임금근로자에서 자영업자 전환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오늘날 이들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족구성원 수도 증가하고 주거환경에 있어 쾌적성을 더 고려하게 되었다. 두 경우 모두 재한조선족의 사회적 위치 모두 발전했으며 이동의 원동력이 되었다. 셋째,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으로 분화’되었다. 1차분화는 가리봉동은 대림2동, 구로2동 등으로 분화되었고, 2차분화는 서울남서부 일대에서 부천, 경기 안산에서 시흥으로 분화되었다. 구밀집지와 신밀집지는 형성패턴에 있어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하지만 구밀집지와 신밀집지 간의 차이는 거주자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점이다. 신밀집지가 한국에서 오래 거주한 재한조선족 위주로 형성되었지만, 그 중심에는 자녀를 둔 30-40대 부부가 있다. 이들은 사회·경제적으로 진일보하여 소위 먹고사는 문제보다는 양호한 치안, 깨끗한 가로환경, 커뮤니티, 교육환경 등 생활의 질과 관련된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는 사실 빈도는 낮았지만 구밀집지 거주자에게서도 나타나는 부분이다. 재한조선족의 한국 정착이 장기화되자 신·구세대 간 가치관 차이가 발생했고 신밀집지의 구성원들이 더 젊은 세대이기에 생활의 질을 고려하는 것처럼 보인다.

3. 신밀집지는 인접한 구밀집지의 영향을 받았다.

수도권 재한조선족들이 거주지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주거안정성’과 ‘일자리와 교통접근성’이다. 새로운 밀집지로 이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은 서울 남서부 밀집지의 ‘저렴한 주거비용’을, 시흥은 안산시 원곡동 밀집지의 ‘일자리 수급 용이성’이라는 입지요인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인구의 다수가 인접한 구밀집지에서 왔기에 그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수도권 재한조선족 밀집지는 분화 후에도 신·구밀집지 간 지역 생활권을 공유하며 거주지 선택요인이 전승된다고 볼 수 있다.

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본 연구는 재한조선족 밀집지 연구에 있어, 그동안 연구대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비(非)서울 지역 중 경기도 밀집지를 본격적으로 탐구하고, 서울 소재 밀집지들의 재한조선족 인구 감소 현상을 처음 논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몇 가지 명확한 한계점들이 존재했다. 먼저, 자료수집과 방법론이다. 경기도 소재 시군구들의 외국인 인구 통계 자료는 서울에 비해 많이 부족했다. 예컨대 서울은 읍면동 단위의 국적별 외국인 인구 수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나⁷³⁾ 경기도는 읍면동 단위 자료를 지자체에서 파편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과거에 생산하지 않았다. 또한 설문조사의 표본이 적다는 문제가 있다. 각각 40명씩 총 80명은 충분한 신뢰를 가진 경향성을 도출해내기에는 다소 부족한 듯하다. 인터뷰 역시 표본이 적어 소위 ‘일반화의 오류’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보다 다양한 지역의 더 많은 표본을 중심으로 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밀집지 내부의 모습을 살피기 정말 어렵다는 점이다. 연구 설계 단계에 대표적인 정성적 방법론인 ‘참여관찰’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재한 조선족들의 커뮤니티에 스며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속이야기를 오히려 낯선 이들에게만 털어놓아서 인터뷰를 통해서도 많은 내용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향후 재한조선족과 관련 통계와 채널이 구축되어 보다 명확한 연구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73) 이마저도 2016년도 이후 외국인 신분특정이 가능하다는 사회적 문제로 읍면동 단위는 더 이상 생산하고 있지 않았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1) 법률 및 관련 시행지침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부동산거래 등 제1항

(2) 단행본

- 길립신문, 인천문화재단(2012), 엄마가 한국으로 떠났어요 : 조선족,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보리.
- 데이비드 바트럼 외(2017), 이현욱 외 역, 국제 이주와 다문화사회, 푸른길.
- 방미화(2013), 이동과 정착의 경계에서 : 재한 조선족의 실천전략과 정체성, 이 담Books.
- 사스키아 사센(2016), 남기범 외 역, 사스키아 사센의 세계경제와 도시, 푸른길.
- 설동훈, 문형진(2020), 재한조선족 1987-2020년, 한국학술정보.
- 스티븐 카슬, 마크J(2013), 한국이민학회 역, 이주의 시대, 일조각.
- 정태연(2015), 조선족 여성, 동남아시아 여성 그리고 새터민의 적응 유형 분석 및 삶의 질 향상 방안 모색, 집문당.
- 폴 뉴스, 스티븐 핀치(2012), 박경환 외 역, 도시사회지리학의 이해, 시그마프레스.

(3) 학술지

- 고민경(2019), 모빌리티를 통해 본 이주자 밀집지역의 역동성 탐구, 「문화역사 지리」 제31권 제3호.
- 김연홍, 이성순(2020), 중장기 한국 이민정책의 방향 모색, 「다문화콘텐츠 연구」 제33집.
- 김영로(2011), 중국동포 집단적 거주지에 나타난 지역사회에 대한 중국동포의 인식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63권 제3호.
- 김용선, 임영상(2018), 서울 서남권 중구동포타운과 동포단체, 「재외한인연구」

제45호, pp.153-186.

- 김윤영(2016),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차이에 따른 의료경험, 「다문화와 평화」
- 김현선(2010), 한국체류 조선족의 밀집거주 지역과 정주의식, 한국사회학회 「사회와 역사」 제87권.
- 김혜진, 이자원(2018), 수도권 외국인 이주자의 거주지 분포, 「아태연구」 제8권 제1호, pp. 527-538.
- 김홍순 외(2017), 중국인 밀집지역에서 내국인 거주자의 지역 만족도와 이미지 분석. 「국토지리학회지」 제 51권 제3호, pp. 207-223.
- 김희철, 안건혁(2011), 이주회로별 수도권 외국인 거주지역 공간분포와 영향요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46권 제5호.
- 박세훈(2010a), 한국의 외국인 밀집지역: 역사적 형성과정과 사회공간적 변화, 「도시행정학보」 .
- 박세훈(2010b), 외국인 주거지의 공간분포 특성과 정책함의, 「국토연구」 .
- 박세훈, 이영아(2010), 조선족의 공간집적과 지역정체성의 정치, 「다문화사회연구」 제3권 2호.
- 박우(2011), 한국의 “재한조선족” 연구 현황, 「재외한인연구」 제25호.
- 박우(2017), 서울 남서부 지역 조선족 집거지에 대한 연구, 「아태연구」 제24권 제2호.
- 박우, 장경섭(2017), 전환주의 시민권 : 한국의 “조선족”집거지 사업가 「한국사회학회」 .
- 박재영, 강진구(2016), 서울시 조선족 밀집지역과 거주 공간 확대에 대한 연구 「탐라문화」 제53권 53호, pp. 255-290.
- 박준성 외(2015), 남한에서 조선족 직장여성의 문화적응, 「한국심리학회지」 제 21권 1호, pp. 21-43.
- 박찬영, 최준호(2020), 외국인 밀집지역에서의 문화적 성향과 건조환경에 관한 연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1권 제12호, pp. 137-145.
- 박배균 · 정건화(2004), 세계화와 “잊어버림”的 정치 : 안산시 원곡동의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에 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0건 제4호.

- 방성훈, 김수현(2012), 한국계 중국인 밀집주거지의 문화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제19집 제2호.
- 백일순(2019), 도시재구조화에 따른 외국인 주거이동과 주거지 개편, 「한국이민학」 제7권 제1호.
- 송기욱 외(2010), 파워엘리트의 거주지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특성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국토계획」 제45권 제2호.
- 신인철(2007), 외국인의 국적별 거주지 분리: 경기도 및 부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회」 .
- 안재섭(2009), 서울시 거주 중국 조선족의 사회공간적 연결망 「한국사진지리학회지」 제19권 제4호, pp. 215-223.
- 안창혜(2016), 이주민의 시민적 계층화, 「페미니즘연구」 제16권 2호.
- 윤황, 김해란(2011), 한국거주 조선족 이주노동자들의 법적경제적 사회지위 연구, 「디아스포라연구」 제5권 제1호.
- 이석준, 김경민(2014), 서울시 조선족 밀집지 간 특성 분석과 정책적 함의, 「서울도시연구」 제15권 제4호.
- 이석현(2015), 다문화공간의 주거 지속성을 위한 공간인식 조사, 「한국디자인학회」 .
- 이승은(2016), 서울시 ‘한국계 중국인’의 주요 거주 지형도와 경제활동, 「중국과 중국학」 .
- 이정현 · 정수열(2015), 국내 외국인 집중거주지의 유지 및 발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21권 2호.
- 이진영, 박우(2009), 재한 중국조선족 노동자집단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51집.
- 이진영, 남진(2012), 수도권에서 외국인 거주지 분포의 특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제47권 제1호.
- 이창호 외(2021), 중노년기 민족귀환이주민의 건강위기 : 경기도 A지역 중국조선족 출신 이주민의 사례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제15집 2호.
- 전명진, 강도규(2016), 수도권 주거 이동 가구의 주거입지 선택 요인 분석, 「지

역연구」 제32권 제1호.

- 정선주(2020), 재한조선족 자영업자의 한국 정착과 창업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현대사회와 다문화」 제11권 4호.
- 정지은 외(2011), 외국인 거주자의 주거입지 선택 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국토 계획」 제46권 제6호.
- 정현주(2020), 한국 이주정책에서 이주미의 시민적 계층화와 공간분화, 「한국 지리학회지」 제9권 3호.
- 조현미(2006), 외국인 밀집지역에서의 에스닉 커뮤니티의 형성, 「한국지역지리 학회지」 제12권 제5호.
- 지충남(2014), 재개발사업이 재한조선족 집거지에 미친 영향, 「한국민족문화」 제53권 11호.
- 하성규 외, 서울시 외국인 주거지의 공간적 분리패턴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제12권 제3호, pp.91-105.
- 한성미, 임승빈(2009), 소수민족집단체류지역으로서의 옌볜거리의 장소성 형성 요인 분석, 「한국조경학회지」 제36권 6호.
- 홍하연, 이길재(2014), 수도권 유출인구의 공간적 패턴분석 및 이동영향 요인 분석, 「지적과 국토정보」.

(4) 학위논문

- 김일권(2003), 한국체류 조선족의 생활실태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혜진(2017), 수도권 외국인의 공간적 분포 특성과 거주지 분리, 성신여대 박사학위 논문.
- 민경란(2019), 세계도시 서울의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의 공간분포 특성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우(2017), 재한 조선족 집거지 사업가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찬영(2020), 서울의 외국인 밀집지역 유형화와 도시·건축 환경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설동훈(1996), 한국사회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금희(2008), 조선족과 한족 노동자들의 한국에서의 직업/문화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상희(2015), 조선족 이주자들의 사회적응 및 관련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석준(2014), 조선족 밀집지의 형성과 성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정아(2013), 도시지역의 외국인 거주지 분포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주희(2012), 중국 조선족의 한국 이주 경험과 정체성 전략,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주수현(2018), 외국인 거주지 분화현상에 따른 수도권 내 외국인 주거지 선택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미령(2015), 제한 조선족 동포의 순환이주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한정우(2008), 안산시 원곡동 이주민의 영역화 과정,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 기관지 및 연구보고서

- 구로구(2014), 2014구로구 다문화사회 실태조사.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 2002-2021.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 2011-2020.
- 김기태 외(2020),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동성 외(2015), 경기도 재외동포정책 연구, 경기연구원.
- 오정은 외(2016), 국내체류 중국동포 현황 조사, 재외동포재단.
- 오정은 외(2016), 서울 서남권 중국동포 밀집지역 발전방안 연구, 이민정책연구원.

- 이미숙(2018), 시흥시 외국국적동포 사회통합정책개발 연구, 시흥시.
- 임영상 외(2015), 가리봉-대림 중국동포타운 지식맵 구축, 서울연구원.
- 최경수 외 (2016), 이민현황 및 장기적 영향평가를 통한 이민정책 추진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홍석기 외(2010), 글로벌 도시 서울을 위한 사회통합정책, 서울연구원.
- 황복선 외(2021), 경기도 시흥시 외국인주민 지원정책의 추진실태와 개선방향, (사)고운미래교육개발진흥회(경기도 시흥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6) 뉴스기사

- 동포신문(2019), “비자변경, 자격증 취득하면서...중국동포는 한국인의 생활문화 따라잡았다.” (최종열람 : 2022. 10. 4.)
- 부천일보(2019), 중국인 부천 토지 매입 급증. (최종열람 : 2022. 10. 4.)
- 시사인(2018), 대림동에서 보낸 서른 번의 밤. (최종 열람 : 2022. 9. 22.)
- 연변일보(2022), 중국 조선족 인구 10년의 변화. (최종열람 : 2022. 10. 3.)
- 연합뉴스(2003), “고용허가제 통과, 조선족들 기대 속 불안”. (최종열람 : 2022. 10. 3.)
- 월드코리안(2011), “내년도 방문취업동포 30만3천명 유지”, (최종 열람일 : 2022년 10. 1.)
- 충청일보(2020), “건축도장기능사 중국동포 F4비자 관련여행사, 행정사가 운영 또는 소개하는 기술학원조심”(최종열람 : 2022. 10. 3.)

(7) 웹사이트

- unionpedia.org
- 안산녹생환경지원 센터, 반월시화산업단지 현황

2) 해외문헌

- Hamnett, C., (1994), "Social Polarisation in Global Cities: Theory and Evidence", *Urban Studies*, 31(3):
- Borjas, G. J., (1989), "Economic Theory and international migr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3(3):
- Castles, S. and Miller, M. J., (2009), *The Age of Migration :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4th ed, UK: Palgrave Macmillan
- Savage, M. and Warde, A., (1993), *Urban Sociology, Capitalism, and Modernity*, London: Mcmillan.
- Faist, T., (2006), "The Transnational Social Spaces of Migration",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Bremen Center on Migration, Citizenship and Development (COMCAD), Working paper.
- Faist, T., (2000), *The Volume and Dynamics of International Migration and Transnational Social Spaces*. Clarendon Press.
- Knox, P. and Pinch, S., (2009), *Urban Social Geography : An Introduction*, 6th ed, Canada: Pearson Education.
- Hall, S. and Datta, A., 2010, "The translocal street: shop signs and local multi-culture along the Walworth Road, south London", *City, Culture and Society*.
- Comeau. M. T.(2008), Do ethnic enclaves and networks promote immigrant self-employment?, 「Economic Perspectives」 4Q 2008.
- Edin. P, Fredriksson. P, Aslund. O.(2003), Ethinc enclaves and the economic success of immigrants evidence from a natural experiment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
- Logan. J.R. et al.(2002), Immigrant Enclaves and Ethnic Communities in NewYork and Los Angeles, 「American Sociaological Review」 Vol. 67(Apr 299-322).
- Mulder. C.H.(2007), The Family Context and Residential Choice, 「Population, Space and Place」

Abstract

A Study on the Differentiation Factors of Korean-Chinese Enclave in the Metropolitan Area

Park Ji-hoon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In the late 1980s, South Korea, which faced a high-growth era, began to accept foreign workers to solve the shortage of industrial workers due to the widespread avoidance of 3D jobs due to the improvement of workers' human rights. Korean-Chinese in Korea, called Chosunjok and Chinese compatriots, also entered Korea as migrant workers after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in 1992 and began to settle in Korea in earnest. The Korean-Chinese people currently have the largest population among the foreign groups staying in Korea, and form a large number of dense areas around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hile the dependence on migrant workers is intensifying due to the decline in the production population due to the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in Korea, the role of Korean-Chinese workers, who play a large part in the lower service industry in the metropolitan city economy, is also increasing.

The well-known enclaves of Korean-Chinese are in China Town in southwestern Seoul, including Garibong-dong in Guro-gu, and Daelim-dong in Yeongdeungpo-gu, Seoul and Wongok-dong in Ansan, Gyeonggi-do. However, in the past decade, movement has been detected in the Korean-Chinese society in Korea. It is emerging as a new dense area in Daesan-dong, Simgok-dong, and Sosabon-dong, Bucheon-si, Gyeonggi-do, and Jeongwangbon-dong and Jeongwang 1-dong, Siheung-si. Located in the southwestern part of Gyeonggi-do, these two new dense areas have a relatively pleasant and neat urban space, not an underdeveloped and poor dense area.

This study attempted to clarify the formation and background of newly formed Korean-Chinese enclaves in the southwestern part of Gyeonggi-do, and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 differences and meanings of each enclaves. Accordingly, a comparative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dense clusters in Garibong-dong, Daelim 2-dong, and Wongok-dong, and the dense clusters in Daesan-dong and Jeongwang-dong. Based on previous studies on foreigners' enclaves, the process of forming dense enclaves was summarized, and the process of forming dense enclaves was substituted into this structure and compared and analyzed. Based on the results, it was proved that the Korean-Chinese enclave in Korea was differentiated, and the reason for the differentiation was to be revealed.

This study derived trends by region and residence qualifications of Korean-Chinese movement in Korea through stages such as literature research, spatial analysis, survey, and in-depth interviews. Korean-Chinese, who have lived in dense areas for a long time, are trying to move to dense areas due to real estate redevelopment issues and improved social status.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re are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among the concentrated areas of Korean-Chinese living in Korea. The formation period and residents' values are similar between the dense areas, and the same is true between the dense areas. On the other hand, the new dense areas were influenced by geographically adjacent dense areas such as formation factors and residence selection factors. These results suggest that if a new Korean-Chinese enclave is formed in the near future, it will not be far from the existing enclave.. At the same time, it is emphasized that it is the first case in Korea to voluntarily create their own city as a foreigner, and is an important issue to be reflected in future urban planning policy establishment.

.....

keywords : Korean-Chinese, Korean-Chinese enclave, ethnic enclave, differentiation phenomenon, differentiation factors

Student Number : 2021-21631